•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694 호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8월 27일(음력 7월 27일) 수요일(주간)



선지식 17

취운선원장 약산스님
"한국불교 한국인 스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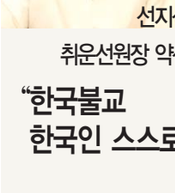
2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장 원학스님
"상설기구 만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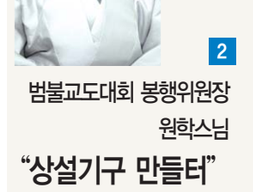


19

김영동씨 국가브랜드 연주회
'화엄' 국악관현악곡 발표



불심 빛나는 금메달 4
"북경올림픽 불자 메달리스트들"



도반의 향기-이진호씨 9
"음악으로 병치료"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 대회' 열리는 8월 27일은

한국에서 종교편향 사라지는 날

8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헌법파괴 ·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에 2000만 불자들의 역량이 집결되고 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7개 종단으로 구성된 범불교도대회봉행위원회(위원장 원학스님)는 연일 회의를 열어 스님과 불자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준비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조계종도 8월 18일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 19일 직할교구종회에 이어 20일에는 임시중앙종회, 21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범불교도대회'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대회 참석인원을 20만~3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봉행위원회 측은 전국 사찰에 최대한 많은 스님과 신도들의 동참을 독려하면서 행사 당일 각 사찰별 하차(下車) 장소와 버스 및 피켓용 문구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또 대회 개최 시간인 27일 오후 2시엔 전국 사찰의 범종(梵鐘)을 동시에 타종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일간지와 불교언론에는 대회를 알리는 광고까지 게재했다.

대형 괘불이 설치된 행사장에서 열리는 이날 대회는 오후 1시30분부터 2시까지 식전 문화행사에 이어 2시부터 본행사가 진행된다. 본행사는 삼귀의, 반야심경, 고불문(종단협 사무총장 홍파스님), 경과보고(집행위원장 진화스님), 봉행사(봉행위원장 원학스님), 대회연설(수경, 법현스님), 연대사(KNCC 종교간대화위원장 김광준 신부), 자정과 참회의 연비, 결의문 낭독(선원대표 지환스님), 국민에게 드리는 글(천태종 사회부장 경천스님), 발원문 낭독(진명스님),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2부에서는 서울광장-태평로-세종로 사거리-종각-우정국로로 이어지는 행진이 이어진다.

이처럼 불교계가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대정부 법회를 계획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사회의 종교편향이 도(度)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 초반인 지금 종교편향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정권 5년 내내 종교차별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진행될 것이란 우려도 깔려 있다.

불교계는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부 등의 지리정보시스템 사찰 정보 누락 ▲'전국경찰복음회 금식대성회' 포스터에 어청수 경찰청장 사진 게재 등으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였다. 약속 기일을 넘겨 정부가 보내온 답변도 구체적인 성의가 담기지 않았다는 여론이 높았고, 더욱이 지난 7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차량에 대한 과잉검문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봉행위는 전 불교도의 뜻을 모아 ▲대통령의 공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종교차별 방지를 위한 법률 제 · 개정 ▲어청수 경찰청장 등 관련자 문책 ▲국민화합을 위한 촛불집회 관련자 수배 해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봉행위는 이번 대회를 마친 후 정부가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거나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지역별 불교도대회를 열고 봉행위를 상설기구로 바꿔 이 대통령의 남은 4년6개월 임기 내내 종교 편향 문제를 따지고 대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김성우 · 노덕현 기자



"정권의 종교차별 · 기만행위 더이상 좌시않겠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자승스님 · 사진 오른쪽)는 8월 20일 제177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의 원만 봉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종교차별종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원에 종교차별과 관련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의했다. 사진 왼쪽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잘못 방치하는 것도 계 범하는 것"

지관스님 '파사현정' 강조

"수행자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야 하지만, 지금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다. 그른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옳은 것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연이어 발생한 종교차별에 대해 조용한 대응으로 일관해 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마침내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의 의지를 밝혔다.

지관 스님은 8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종교차별 시정이) 종도들의 뜻이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한다. 부처님은 잘못된 것을 방치하는 것도 계(戒)를 범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며 종교차별 종식 의지를 천명했다. 스님은 이어 "이념과 계층, 종교 등 사회의 모든 부분의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며 "이번 불교도대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19일 직할교구 종회에서는 이차돈의 순교를 거론하며 "법을 제대로 지키고 아울러 몸도 잘 지키는 게 바로 호법이며, 수행을 잘 해나가면서 잘못한 것을 물리치는 것 역시 부처님 법"이라고 강조했다.

지관 스님은 20일 열린 중앙종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라도 종교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기자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출간기념 돈연법사 강연회
2008년 8월 27일 오후 6시 30분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
메주와 첼리스트 禪詩를 말하다
강연: 돈연 법사 첼로 연극: 도완녀 동참금: 1만원 주관: 현대불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114 010-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 · 관욕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



8월 27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대한민국 정부는 '선교'의 도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정부의 전자지도에서 모든 사찰을 빠뜨린 것, 포항시 예산 1%를 선교사업에 사용하겠다던 전 포항시장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임명한 것, 경찰청장이 경찰복음화에 앞장 선 것, 청와대 간부는 '모든 정부부처 복음화가 나의 꿈'이라는 등 종교평화를 심대히 해치는 종교차별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계가 앞장서서 헌법에 명시된 종교차별 금지의 정신을 되살려 종교간 갈등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가 평화와 통합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공개사과 및 종교차별을 근절할 입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등 종교차별 관련 공직자를 엄중 문책하라
-.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 관련 수배자 수배해제 등 국민 대화합 조치를 시행하라

모입시다! 8.27. 서울광장으로

주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 |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 전화 : 02)2011-1925~7 http://cafe.daum.net/budvoice www.buddhism.or.kr 후원 : 국민은행 023501-04-132893, 농협 053-17-006185 예금주 : 범불교도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hanmail.net

얄팍한 불심 달래기 보다는 공개 참회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불교계가 8월 27일 50만명 참여를 목표로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열기로 하자, 자칫 종교편향 논란이 반(反)이명박 기류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와 한나라당,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은 불교계와 교분이 두터운 인사들을 내세워 불심 달래기에 진력해 왔지만,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청와대 불자모임인 청불회 회장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은 태고종 등 불교계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찾은 데 이어 본사급 사찰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도 불교계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서는 조계종에서 정치인 면담을 일체 거절한 까닭에 국회 정각회장인 최병국 의원이 신행단체 대표 자격으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공개로 만났지만,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입도 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그만큼 불교계의 입장이 단호한 까닭에 여권의 다양한 물밑 접촉에도 불구하고 등 돌린 불심을 돌려세우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불심 달래기'가 스님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으로 비쳐지는 역효과까지 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어청수 경찰청장의 참회 편지다. 어 청장은 "경찰 복음화 포스터 게재등 일련의 사건으로 불교계에 큰 걱정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조계종 중진 스님 등 300여 스님에게 편지를 발송했고, 전국 사찰별로 관할 경찰서장 등 경찰 고위관계자들이 스님들을 찾아 해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무원은 "이 같은 시도들이 8·27 범불교도대회를 앞두고 법회 최소화와 함께 퇴진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설상가상으로, 8·27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는 정부가 대회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며, 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범불교도대회 상임집행위원장 진화 스님은 8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시, 군, 구 경찰과 공무원들이 범불교도대회 참여를 막기 위한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종교차별 행위를 참회하고 시정해도 부족한 정부가 대회를 방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여권은 평화적이고 여법하게 봉행될 불교도대회에 앞서 종교차별 방지를 위한 불교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공개적이고도 책임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이명박 장로를 대통령으로 만든 많은 불자들을 다시 한번 농락한다면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박람회는 하나님의 큰 선물…"

오현섭 여수시장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복음박람회간증' 파문

"세계박람회라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아 경제박람회 뿐 아니라 '복음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유치한 오현섭 여수시장의 종교편향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보도된 '여수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회장 오현섭 여수시장의 간증'에 따르면, 개신교 집사인 오 시장은 여수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여수지역 내 15개 직장선교회를 이끌어왔다.

공직자 신분으로 개신교선교연합회장직을 수행해 온 오현섭 시장은 "세계박람회 투표 현장에 가기 며칠 전 시청 회의실에서 긴급기도회를 열어, 박람회 개최가 확정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 이하 종평위)는 8월 22일 여수시장에 보낸 '여수시장 종교편향·차별에 대한 시정요청의 건'에서 "특정 종교편향, 차별발언 등 종교적 중립과 솔선수범해야 할 시장이 특정종교를 고무 찬양한 것은 상식이하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종평위는 공문에서 "여수시장의 공식사과와 언론을 통한 게재, 여수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에만 전념할 것을 서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복음엑스포로 만들겠다는 것은 오현섭 시장 단독 구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3월 개신교신자를 3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성시화 계획을 구체화해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 3개시로 구성된 복음네트워크를 결성했다. 7월 13일 '여수엑스포 성공개최와 3개시 성시화를 위한 2008 복음엑스포 대회'를 열고, 여수엑스포를 기독교 복음엑스포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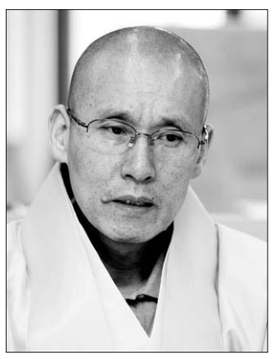
"어청수 청장 퇴진"

천태종 종교편향규탄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이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을 규탄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실천활동'에 동참했다. 8월 22일 천태종 기획국장 진철 스님과 총무과장 자운 스님, 이금복 신도회장 등 관문사 신도 10여 명은 8월 22일 오전 7시부터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진행 중인 단식농성에 참가했으며 이날 오후에는 단식에 참여한 진철 스님을 비롯한 서울지역 천태종 신도 150여 명이 경찰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재완 기자

"상설기구·권역별대회 추진"

범불교대회 봉행위원장 원학 스님



"최근 공직사회의 종교편향은 한국 사회 전체를 복음화하려는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기에,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8월 27일 예정된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대회'의 상임봉행위원장을 맡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원학 스님(사진)은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행위가 생각보다 심각하고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8월 21일 조계사 인근 식당에서 불교언론 데스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원학 스님은 이번 대회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근절을 천명하고 종교화합을 발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학 스님은 "이번 법회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산하 27개 종단의 스님과 불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모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정부 행사"라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공직자의 종교 차별 근절 입법 조치 즉각 시행 등을 촉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이어 "불교계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권역별 범불교도대회를 추진하겠다"며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날까지 종교차별 행위를 감시하는 상설기구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원학 스님은 이웃 종교의 훼불행위에 대해 묵빈대처나 조용한 대응으로 일관해 온 불교계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불교계 권익옹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스님은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 때, 종교갈등은 경제와 사회 안정을 통한 나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와 개신교계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김성우 기자

이명박 정부 150일의 종교편향 사례

▲2008.2.22. 정부 주요인사 기독교 편중 인사, 불교계 비율은 장관(7.7%), 수석(12.5%), 비서관(4.8%)에 그침
▲2008.3.4. 김성이 장관 후보, 2007년 5월 31일 양극화는 신앙심이 부족한 탓이라는 기고로 논란
▲2008.3.8. 정장식 前 포항시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임명
–정장식은 포항시장 재임시 기관장 기독교모임인 홀리클럽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포항시 예산 1%를 성시화운동에 사용하려다 적발(이명박 대통령의 기독교인맥 보은인사의 대표사례).
▲2008.3.16. 이명박 대통령, 뉴라이트 김진홍 목사와 청와대 예배
▲2008.4.1. 경남일보, 개신교 극동방송 중계소 설치 서명운동 실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언론이 특정 종교와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공익성 훼손.
▲2008.4.1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종교사학의 학내 선교 사실상 용인
▲2008.4.30. 청와대, 정무직공무원 종교조사 실시로 물의
–MB의 개신교 편중의 종교적 코드 인사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의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항.
▲2008.5.1. 주대준 청와대 경호처 차장, 모든 정부부처의 복음화가 나의 꿈이라고 발언.
▲2008.5.8. 학교종교자유 문제제기한 대광고 강의석군 2심 판결 패소
–서울고등법원(재판장은 강남 모 교회 장로), 대광고 강의석 군이 제기한 학교종교자유 판결에 대해 1심을 뒤집고 개신교 재단인 대광학원측이 승소.
▲2008.5.15. 이명박 조찬기도회는 참석하고 '불교 홀대' 논란
–청와대 5월 12일 부처님오신날 '부처님 오신 날 축전도 안보내' 구설, 靑 "1200개 사찰에 보냈다" 해명, 봉은사에 '대리시주' 했다 사과도.
▲2008.6.7. 추부길 청와대 홍보수석, 촛불집회 참가자 사탄발언 물의
▲2008.6.15. 소망교회 김재철 목사, 이명박 대통령은 주님의 아들 발언
▲2008.6.20. 김황식 대법관, 조찬기도회 참석 강연 후 감사원장에 임명
–MB의 '고소영'이라는 종교적 코드인사의 대표적인 사례.
▲2008.6.20 국토해양부, '알고가' 교통정보에 교회·성당만 표시, 사찰 전부 누락
▲2008.6.23. 추부길 청와대 홍보수석,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 포기발언 직후 대운하 관련 발언 물의
▲2008.6.23. 경기여고교장, 학내 불교문화재 훼손 논란
▲2008.6.24. 어청수경찰청장, '제4회 전국 경찰복음화 금식 대성회' 광고 포스터에 사진게재
▲2008.6.28. 송파구청, 개신교 일색으로 대학생 멘토링 사업추진
▲2008.6.30. 경주초등학교 교사, 특정 종교 강요 논란
▲2008.7.11. 국토해양부 '경관법' '경관계획수립지침'의 대상에 향교와 지방문화재 등은 포함되었으나 전통사찰은 누락.
▲2008.7.29. 경찰–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차량 검문·검색 사건발생
▲2008.7.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서울시 교육감선거 종교시설투표소 운영에 특정종교시설에 지나친 편중
▲2008. 8.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지리정보서비스 학교현황 서비스에 전통 사찰과 대형 사찰들의 정보가 누락된 반면 교회는 명칭과 함께 교회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아이콘이 상세히 표시됨.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금을 캐는 광부는 목숨을 걸고 갱도에 들어갑니다. 불교 속에는 금보다 억 만 배나 더 귀한 보물들이 무더기로 함장되어 있습니다. 이 보물은 목숨을 걸고 찾아나서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불 때마다 목숨을 건다는 귀명은 잘도 쓰면서도 부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늘 불교의 언저리만 소득 없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마명보살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하여 대승기신론을 썼고 그것을 신라의 원효대사가 대승은 일심이라는 전제하에 주옥같은 해설을 남기셨습니다.
이 해설이 동서양의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극찬하고 있는 불세출의 명저서 대승기신론 해동소라는 것입니다.

이 대승기신론 해동소를 독보적으로 심층연구 강의하는 곳이 바로 원효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제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기 마음인 목숨을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해 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원효센터에서 일심에 대한 원효대사의 박진감 넘치는 해설의 숨결을 감동스럽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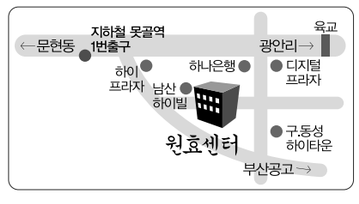
大乘起信論

海東 疏·別記
8期 회원 수강신청 받습니다
– 6, 7期회원 현재 수강중 –

개강안내
■법 사 : 공파스님
■개 강 : 9월 4일(목) 오후 8시
■장 소 : 원효센터 智悲光殿
■기 간 : 1년
■교 재 : 무료 – 해동소(고려대장경판)
■입회비 : 10만원 ■월회비 : 10만원

법회안내
■ 1부 : 단체 예불 및 장엄염불 / 신행 중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9시반
■ 2부 : 대승기신론 해동 소 별기 6기 수강 중 / 매주 금요일 오후 8시~9시반
대승기신론 해동 소 별기 7기 수강 중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9시반
대승기신론 해동 소 별기 8기 모집 중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9시반
■ 3부 : 일반신자, 기초교리 및 장엄염불 / 신행 중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반

■공파 스님 저서
• 부처님의 유언
• 천수경의 원본경전
• 극락세계 1, 2, 3
• 원효전집 6권.
• The Vajra Sutra(영판).
• 바이로차나 1.
그 외 다수.



☎(051)611-3808 e-mail : zero-pa@hanmail.net ■http://cafe.daum.net/wonhyocenter ※9월 4일(목) 오후 8시에 대승기신론 해동 소 공개강의가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수미산 아미타도량 원효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동 1765-6번지
지하철 2호선 못골역 1번출구에서 부산공고방향·하나은행 뒷편

'法'으로 종교편향 방지

강창일 의원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 제출…정부·여당도 '긍정적'

불교계가 종교차별에 반발하며 8월 27일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키로 한 가운데,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입법조치가 가시화 되고 있다.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등이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에서 제출됐다.

국회 정각회 부회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8월 14일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 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 차별적 조치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대통령이 종교편향 정책을 펴거나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이 종교편향과 차별이 있을 경우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했고,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발의자는 강창일 의원, 강기정 의원, 박선숙 의원 등 11명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도 7월 30일 공무원의 정책과 법령 집행 과정에서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민주당 대표 정세균 의원(사진) 등 민주당 지도부가 8월 21일 조계사에서 '종교편향 반대' 단식시위중인 스님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개정안은 공무원의 법령과 정책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된 직무 수행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시정과 구제 절차 명문화, 피해사실 입증 책임의 배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들의 종교편향과 관련한 각 정당의 입법조치에 대해 조계종에서는 개정안에 공직자의 종교편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조항이 미약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무원 호법부장 정만 스님은 "'국가공무원법' 이외에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법'에도 '종교 중립' 조항을 반영하고, 관련 종교차별금지법에 징계조항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 등 여권은 불교계가 종교차별 방지를 위해 요구한 4가지 사항에 대해 최근 관련 수습책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종교차별 방지 입법화와 관련, 한나라당이 주도해 현행 정부조직법이나 공무원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교회 투표소 안된다"

종교평화위 성명, 관련 사례 취합

"선관위는 다른 종교를 믿는 국민들을 배려해 교회투표소를 배제하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상임위원장 손안식)는 8월 19일 중앙선관위에 '종교시설투표소 설치 · 운영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문과 성명을 발표했다.종교평화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선관위에 시정요청을 했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 특정종교시설 투표소에서 선교행위와 상징물이 그대로 들어나 등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했다"며 "관련자를 문책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공식사과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종교편화위원회는 이어 "선관위에 자료제공 및 시정요청을 했으나, 서울시교육감 선거시 교회투표소가 2,189개소 중 397개(18.1%)에 달하는 등 조치내용이 변함이 없다"면서 "선관위는 다종교, 다문화 사회인 우리 사회를 인정해 아름답고 성숙한 선거문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법 제147조 2항에 의거해 종교시설투표소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20조 2항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종교자유를 규정한 헌법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에서도 특정종교시설투표소가 유권자 인권을 침해하므로 시정 권고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종교평화위원회는 향후 조계종 지역신도회와 연계해 각 지역 종교시설투표소 설치 · 운영에서의 종교편향 사례를 취합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조계사 불전함에 '예수천국' 헌금봉투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자는 지옥, 아멘!"

정부의 종교편향으로 종교간 화합과 평화가 요구되는 때, 조계사(주지 세민) 불전함에서 길거리 팻말에서나 볼 수 있던 선교용 문구가 적힌 1000원권 현금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8월 20일 발견된 현금은 '십일조 헌금' '세계선교 헌금' '건축 헌금' '평양 조용기 심장병원건축 헌금' 등 5개 봉투에 1000원씩 담겨 있었다.

조계사 이세용 총무과장은 "선교용 문구가 적힌 1000원권이 간혹 보이기는 했지만, 무더기로 헌금 봉투에 담겨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광신도들의 조계사 출입이 확인된 이상 경비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지리정보 사찰 누락 '종교 코드 과잉 충성'?

최근 국토부와 교과부의 사찰정보 누락으로 종교편향 파문을 일으킨 (주)한국공간정보통신이 수주를 따기 위해 종교코드로 과잉충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8월 22일 "국토부 '알고가', 교육부 '교육지리정보서비스', 서울시 'GIS서비스' 등을 제작한 (주)한국공간정보통신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급성장한 중견업체로 사찰누락도 수주를 따기 위한 과잉충성"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이웃종교·일반언론도 "종교차별 반대"

기독청년협등 성명발표…일간지·방송도 관심

종교편향 종식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이란 화두는 불교계를 넘어 타종교와 언론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원불교청년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천도교청년회 등 9개 단체들은 8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교편향종식과 종교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웃종교 청년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종교편향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종교편향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와 종교에 의해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차별 금지법 개정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제도적 장치마련 위한 범사회적합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 7개 일간지도 사설에서 종교차별 금지와 입법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MBC, SBS 등 주요 방송도 종교차별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왜 이 정권에선 종교 편향 논란이 계속되는가'라는 8월 11일자 사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종교를이유로 혜택도,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하고, 종교들도 지나치게 공격적인 선교, 지나친 피해의식으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도록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12일 '이런 상황이라면, 종교차별금지법 필요하다'는 사설을 통해 "헌법 이외에 종교차별을 금지하고 처벌조항까지 두는 건 문명국가로선 창피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차별적 발상과 행태가 되풀이된다면 체면을 따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종교편향 반대하는 말 말 말 …

정부의 거듭된 종교편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베이징 올림픽 응원만큼 드높다.

2008년 6월 국토해양부가 교통정보시스템에서 사찰 표기를 누락한 일명 '알고가' 사건으로 표면화된 종교편향 시비에 불교계는 일관되게 ▲책임자 문책 ▲공개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종교편향에 대처해 불교계에는 어떤 말들이 있었을까?

▲"불교의 사찰과 상징물을 제외한 것은 분명 누군가의 지시와 감독이 수반된 일."

–"1700년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송두리째 엎애버린 대중교통이 용정보시스템 '알고가'는 즉각 개편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퇴하라" 조계종 중앙신도회 · 종교평화위원회(6월 23일)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특정세력 이익을 위해 정부 본래 기능과 의무를 팽개친 사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 정부인가?" 조계종 자정청정 실천운동본부(6월 25일)

▲"어청수 경찰청장의 종교편향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종교적 코드정치의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적 코드정치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특정종교편향 행위를 규탄한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6월 28일)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고 진심으로 참회할 때 국민의 화합이 가능하다."

–"평화집회 보장하고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강원 · 충청 · 호남지역 본말사 주지스님들 (7월 14일)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검문검색은 현정부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 "이명박 정부의 불교모욕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국법회추진위원회(7월 29일)

▲"경찰이 총무원장을 검색한 것은 이명박 장로와 그 하수인인 어청수 경찰청장이 합작해 저지른 꼼수."

–"국론을 분열시키는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불교연석회의(7월 30일)

▲"총무원장스님이 출타한다고 경찰에 이미 통보한 뒤에 벌어진 일이기에 더욱 기가 차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의 주구가 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조계종 종무원조합 원우회(7월 30일)

▲"불자들은 7월 29일을 '교단치욕일'로 기록하고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정부의 불교모독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7월 31일)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불교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퇴진의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 불교인권위원회(8월 4일)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길 없어 삭발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종교간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재가불자 삭발 성명(8월 6일)

▲"불심검문은 2000만 불자를 대표하는 총무원장스님을 범죄자 취급한 것"

–"불교계는 연이은 불교폄훼와 종교 갈등 속에 시달려왔다" 조계사 신도회 성명(8월 7일)

▲"요즘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방해한다지만 우리는 상대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외도들이 욕하거나 때려도 묵빈 대처하라고 하시지 안했든가."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하안거 해제법어(8월 15일)

▲"내 종교에 대한 신념과 타종교에 대한 존경심 발현돼야 사회평화 보장된다."

–'2008 한국 교수불자대회 결의문' 한국교수불자대회 동참자 일동(8월 20일)

조동섭 기자

대한민국 전 불교도에게 드리는 글, 건 백 서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7부 대중 여러분!!!

1. 대한민국의 전 불교도는 절대로 중국 법원사 고심율사 율맥으로 재가계(삼귀의계, 오계, 보살계)나 출가계(사미, 사미니, 식차마나, 비구,비구니)를 수지(계를 받아 지님)해서는 안됩니다.

2. 대한민국의 전 불교도는 조선불교 지리산 동국제일선원 중흥율 서상계 대은율사의 율맥으로 재가나 출가계를 전수하거나 수지(계를 받아지님)해야만 합니다.

3. 만약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 법원사 고심율사의 서상계 율맥으로 재가나 출가계를 주거나 받아 지녔다면 지심으로 참회하고 다시 조선불교 중흥율 대은율사의 율맥으로 재가계나 출가계를 수계해야만합니다.

▷ 이 유 ◁

1. 법원사는 중국 북평 선무문 밖에 있는 절로써 본시 민충사라는 절입니다. 당정관 19년(AD645년) 당태종이 고구려 침공 당시 고구려 안시성 전투에서 대패한 후 고구려에서 전사한 당나라 군사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는 서원으로 세운 절로써 서기 1734년 법원사로 개명한 절이니 불교의 계율사상과는 배치되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중국 법원사의 고심율사도 서상계로 율맥을 이었고 조선불교 동국제일선원대은율사도 서상계입니다.
3. 같은 서상계맥 이라면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자 세운 저 법원사의 율맥으로 계를 주고 받아야합니까?

따라서 조선불교 중흥율 서상계 대은율사의 율맥으로 전계도 하고 수지도 해야만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1 독입운동 정신과 학생독립운도의 정신계승과 국토수호차원에서,

응화북전 삼천삼십오년(戊子)夏 해제일
용성문인 조선불교 중흥율 제8세
국토수호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 태화 석가산 계수화남

불심 빛난 그들의 메달!

2008베이징올림픽서 붓다의 아들딸들 선전



레슬링 박은철, 배드민턴 이용대, 태권도 손태진, 역도 윤진희, 체조 유원철, 양궁단체 임동현 · 박경모 · 이창환 선수(왼쪽위부터).

인류 화합의 올림픽 정신은 순위가 아닌 열정에 있다.

그러나 참가에 의의를 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 삶의 의미가 성공 그 자체보다 전력을 다하는 과정에 있기에 본질은 승리가 아니다. 부처님도 일찍이 승패를 초월한 승리에 대해 말씀하셨다. 패자의 두려움과 승자의 오만으로부터 해방될 때여야만 비로소 평온의 화합이 가능하다는 진리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의 세계 · 하나의 꿈'을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이다.

세계인의 문화축제 제29회 하계 2008베이징올림픽이 8월 24일 폐막됐다. 17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4년 후 런던올림픽을 기약한다. 총 204개국 약 1만5000명의 선수들이 302개의 금메달을 놓고 펼친 각본 없는 투혼의 드라마였다. 한국은 총 28개 경기종목 중 25개 종목에 출전, '금11 · 은10 · 동6'으로 메달 종합 순위 7위(8월 22일 기준)를 기록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응원한 국민 모두의 값진 성과다. 그 중에서도 부처의 아들딸이 선사한 승전보는 2000만 불자 가슴에 벅찬 환희심을 안겨준다.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불자선수는 임원 포함 총 54명이다. 그중 금메달을 가장 먼저 안겨준 종목은 8월 10일 올림픽그린양궁장에서 펼쳐진 양궁 여자단체전이었다. 윤옥희(23 · 예천군청) 선수를 위시한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은 홈팀 중국을 224대 215로 꺾으면서 올림픽 6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다음날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도 금메달 행진은 이어졌다. 박경모(33 · 인천계양구청), 이창환(26 · 두산모비스), 임동현(22 · 한국체대) 선수가 출전한 결승전에서 한국은 227대 225로 이탈리아를 꺾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이어 4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 효자종목 양궁은 개인전 활약으로 이어졌다. 8월 14일 개인전에서 윤옥희 선수가 동메달, 박성현 선수가 은메달, 15일에는 박경모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윤진희(22 · 한국체대) 선수도 한국 역도 부분 사상 두 번째 메달을 들어 올렸다. 10일 베이징대 항공우주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역도 53kg급 경기에서 인상 94kg · 용상 119kg을 들어 올려 합계 213kg으로 영광의 메달 주인공이 됐다.

레슬링 종목의 박은철(27 · 주택공사) 선수는 12일 중국농업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그레코로만형 55kg급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경기 종료 30초 전 옆굴리기로 동점을 획득 승리의 메달 주인공이 됐다.

금메달 윙크 세레모니로 올림픽 완소남에 등극한 배드민턴 이용대(20 · 삼성전기) 선수는 17일 베이징 공과대학 체육관에서 벌어진 배드민턴 혼합복식 결승에서 승전보를 전했다. 세계랭킹 1위 인도네시아의 노바 위디안토와 낫시르 릴리야나를 2대 0(21-11 21-17)으로 격파해 정상에 올랐다.

베이징 국가실내체육관에서 19일 열린 남자체조 평행봉 결승에서도 유원철(24 · 포스코건설) 선수가 영광스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권전사 손태진(20 · 삼성에스원) 선수는 21일 베이징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남자68kg급에서 미국의 난적 마크 로페즈를 3대 2로 물리치면서 금메달을 획득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열정의 2008베이징올림픽, 세계 최고의 철인을 가리는 승패의 현장에서 인류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직한 땀의 결과를 의미하는 올림픽의 참된 가치일 것이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7〉 희섭 대선사

희섭 스님은 한암 스님의 상좌로 법명은 혜원(慧園)이다. 필자가 처음 상원사 선방에 들어갔을 때는 원주로서 지객 별좌일까지 겸하고 있었다.

스님은 필자에게 미감을 맡기며 이렇게 말했다.

"상원사는 1947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한암 스님이 중건한 것이다.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선, 염불, 간경, 의식, 가람수호 등 다섯 가지를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선원 규례는 각기 소임대로 실천하게 되어있지만 금년에는 모인 대중이 모두 18명 밖에 되지 않으니, 주실 밑에 있는 제1좌와 제2좌가 없고, 열중, 병법, 헌식, 지전, 소지, 지객, 서기, 원주, 다감, 별좌, 시자, 공사, 미감, 마호, 정통, 종두, 간병, 화호만이 짜여져 있다. 그 가운데서도 소지, 서기, 마호, 정통, 화호를 거사와 처사들이 맡고 있으니, 1인 2역 내지 3역을 할 때도 있다. 상당 설법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하고, 운력은 밭일, 집안일 할 때만 동원된다."

스님은 평균 5·6일에 한번씩 강릉 포교당에 가서 시주를 하여 장을 봐 왔다. 짐이 많을 때는 어쩌다가 거사들이 마중 나가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일백 근이 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천천히 발끝만 보고 걸어오신다. 온 몸이 땀이 젖어 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무겁다는 말씀 한 마디 하지 않고,

"가련하구나 우리 인생. 허망하기 그지 없네."

하고는 그대로 개울에 들어가 몸을 씻으신 뒤 바로 선방으로 들어가신다. 석달 동안 누워 주무시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떤 때는 고사리 버섯을 다듬다가도 그대로 삼매에 들었다.

산에 오를 때는 으레 한암 스님 '참선곡'을 읊었는데, 하도 여러 번 들어 잊혀지지 않는 곳이 있다.

"어제 같이 청춘시절 어언간 백발실세.

백옥같이 곱던 얼굴 검버섯이 웬일인가.

예전 사람 공부할 때 하로 해가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었거늘 오늘이 몇 일인가.

임술년 정월 십오일이올시다."

한번은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시간이 늦어 오후 2시에 쌀만 내어 밥을 지었다. 급히 지은 밥에 돌이 섞여 뱉아 놓으니 그것을 다시 조리로 일어 홀딱 입에 넣어 버렸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다시는 밥 한 톨도 버릴 수 없었다. 그뿐 만이 아니다. 감자밥이나 옥수수 밥이 쉬면,

"대중스님들께 아뢰옵니다. 한 술갈씩이면 천도되오니 찬물에 말아 드십시오."

공양주, 채공, 미감이 쩔쩔매고 있을 때면 이따금씩 이런 말씀을 하여 남은 밥을 처리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쌀을 낼까 그것이 그대로 공부였다.

한암 스님께서 콩나물 하나를 줍기 위해 오리 길을 걸으셨다더니, 이 산중의 가풍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다.

"스님은 왜 그리 눕지 않고 앉아 계십니까?"

하고 누가 물으면,

"노는 입에 염불이요."

하고 다시 두 마디도 않는다. 초하루 보름 법문도 따로 하지 않고 한암 스님 선문답 21조를 있는 그대로 읽었다.

"선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도요. 도가 곧 선이다. 그러므로 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제 마음을 믿고 화두를 가지고 철저히 정진하라.

옛 사람이 말하기를 힘 아니 드는 곳이 곧 힘을 얻는 곳이다 하였으니, 여실히 깨달을지언정 경계를 쫓아가지 마라.

관문을 지낸 자는 나루터를 물을 필요가 없다. 잣나무도 성불한다 하였는데 옛 스님들이 어찌 우리를 속이었겠느냐. 단지 큰 코끼리와 작은 토끼가 물을 건너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또 어쩌다가 사람들이 공부에 대해 물으면,

"성색(聲色)을 초월하여 무엇 하려 하는가. 초월한다는 그 생각이 병통이니 공부가 익는 것은 밥 익는 것 하고는 다르다.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요. 무명실성이 곧 불성이라 하였지 않는가. 단지 공부한다는 생각만 버리면 해도 부처고 달도 부처가 된다."

쉰밥도 씻어먹는 청빈함 … 청정 계율 사표

"코끼리와 토끼는 물을 건너는 방법 달라"

이렇게 답하되, 이를 드러내고 웃는 법이 없었다.

오대산 도량에 무뱀이 많아 솔뚜껑 위에도 올라앉고 밥통 주위에도 도사리고 있다. 무심코 부엌에 불을 지피다 보면 두 마리, 세 마리가 쏜살같이 달려 나온다. 사람들이 놀라 질겁을 하면, "나무 불!" 하고 고개를 떨군다. 세종대왕이 기도 왔다가 대중 스님들께 은전 금전을 많이 주어 공부 못한 수좌들이 죽어 도량지킴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도반끼리 그렇게 무서워하면 어떻게 하겠는냐는 것이다.

청정하고 엄한 계율 눈서리와 같고/ 중생을 섬기는 마음 수미산 같아라/ 앉아서 자고 서서 공부하는 희섭 스님이여/ 지금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둑첸카규' 법왕 초청 지혜관정 법회

서울 길상사, 8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인 서울 길상사는 티베트의 '둑첸카규' 법왕을 초청, 지혜관정 법회를 봉행한다. 8월 31일 오전 10시부터 길상사 극락전에서 열리는 이번 지혜관정 법회는 길상사 창건 11주년 기념법회로 마련됐다.

티베트 밀교의 독특한 지혜관정 법회는 일체 중생에게 본래 구족되어 있는 불성의 종자를 본존불의 가피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전통 관정의식이다.

'둑첸카규' 법왕은 티베트의 4대 종파 중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겔룩파에 이어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까규파의 둑바까규 계보의 최고지도자로 12대 째 환생한 스님으로 알려지고 있다. (02)3672-5945 김성우 기자



조계종 무량회 몽골법당 개원

조계종 종책모임 무량회(회장 향적)는 8월 21일 서울 광희동 법당에서 몽골불자들을 위한 법당 및 쉼터 개원식을 봉행했다.

몽고타운 주변에 20평 규모의 공간을 임대해 마련된 몽골법당은 한국 거주 재한몽고불자회(회장 알타호이가) 불자들이 모여서 법회를 봉행함은 물론이고, 외국생활의 애환을 달래주는 쉼터 역할도 할 전망이다. 후원=(010)5717-5229

김성우 기자

불교지도법사 과정(3년)
2008년도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과 목	일 시	개 설 경 전	교 수
불교학과 (정규,통신 각30명)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대지도론 ②	김형준 교수
		화엄현담 ②	정엄 스님
근본불교학과 (주간,통신 각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금 강 경 ⑥	최봉수 교수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시간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8월 1일 ~ 9월 9일(화) [서류전형]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화엄현담 (9월 9일)화요일 • 대지도론(9월 22일) 월요일
• 근본불교학과(금강경) : 10월 9일(목) 오후 4시

4.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3년과정)
2008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불교장례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사찰음식문화학과〉, 〈요가삼밀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 불교학과(200명) • 불교다도학과(30명) (포교사,법사과정)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3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30명) • 요가삼밀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8월 1일 ~ 9월 9일 • 입학금 : 250,000원

전형방법	개 강 일 시
서류전형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학과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교학과주간반) 8월 접수중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포교사과정) : 9월 9일(화)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다도학과,법사과정) : 9월16일(화)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 례 문 화 학 과) : 9월 9일(화)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미 술 학 과) : 9월 9일(화)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 문 학 과) : 9월 4일(목)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사찰음식문화학과) : 9월 3일(수)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요가삼밀학과) : 9월 7일(일)

2008 학년도 불교의식법사과정(2년) 신입생 모집
불교한글의식교육원

1. 교과목 및 교수

과 정	기간	요 일	법 사	내 용
• 토요의식반	2 년	매주 토요일(오후 2시~5시40분)	심만춘스님,문종순법사	이론,실기
• 목요의식반	2 년	매주 목요일(낮 12시)	문종순법사	실 기
• 전통범패반	2 년	매주 금요일(오후 3~5시)	인각스님	실 기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토요반 30명(2년) • 범패반 30명(2년) • 목요반 20명(2년)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반명함판사진3장	9월 11일 목요일 까지	• 매주 토요일(토요반) 오후 2:00 ~ 5:40 • 매주 목요일 낮 12시 (목요반) • 매주 금요일오후 3:00 (범패반)

3. 개강일시 9월 6일(토) 오후 2시 (토요의식반)
9월 11일(목) 낮 12시 (목요의식반)
9월 5일(금) 오후 3시 (범패의식반)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원 ·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원서교부및 접수
본 대학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8년 8월 27일 수요일 (주간) 제 694 호



“한 몸만을 위해 해탈 구하지 말라”

선문회, 혜국 스님 초청 특강 … ‘몽산법어’ 등 열강

“마음의 언어 깨닫는 공부가 화두선” 분발심 독려

8월 15일, 하안거 한철 안거수행이 끝났다. 폭염보다 뜨겁게 정진하던 수좌들도 바랑을 둘러메고 홀가분하게 산문을 나섰다. 드디어 만행수행이다. 결제 때 정중(靜中)공부를 위주로 했다면, 해제 때는 동중(動中)공부 위주로 탁마하는 수행기간이다.

이처럼 하안거 해제 후 결제동안 공부했던 것을 점검하며 새롭게 발심하기 위한 공부모임이 울진 불영사(주지 일운) 천축선원에서 열렸다. 전국비구니선원선문회(회장 육문)가 17~18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을 초청해 봉행한 ‘선(禪) 특강’은 해제와 결제가 따로 없이 정진하는 선불장(選佛場)이었다. 전국 비구니선원 34곳에서 하안거를 난 924명의 비구니 수좌 가운데, 150여 명이 동참한 이번 법회는 참선의 기초를 다룬 <좌선습의(坐禪習儀)>와 선어록인 <몽산법어(蒙山法語)>에 대한 혜국 스님의 법문과 지도로 진행됐다.

17일 오후 2시, 인도의 천축산과 같은 지명, 비슷한 산세를 가진 천축산 아래 천축선원에서 막 만행 길에 나섰던 수좌들은 다시 모여 선특강 입재식을 갖고 중단 없는 수행을 다짐했다.

선문회 회장 육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일생일대의 단 한 번 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입재식이 끝난 후 특강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초청법사 혜국 스님은 <좌선의> 습의에 앞서, 화두에 대한 안목을 새롭게 갖도록 하기 위해 <몽산법어> 강의부터 시작했다.

“화두는 말씀과 천지창조 이전의 근본자리입니다. 부처님이 오고 감에 상관 없이,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여여(如如)한 자리입니다. 몸뚱이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의 언어로만 가능합니다. 마음의 언어를 깨닫기 위해 애쓰는 공부가 바로 화두선입니다.”

혜국 스님은 <몽산법어> 원문을 읽고 해설하면서 화두공부를 경험담을 곁들여 설명해나갔다. “주관도 객관도 없는 그 자리를 화두라 하니,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지는 화두를 스승 삼고 벗 삼는 이 복은 염라대왕도 어쩔 수 없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잠재의식이라는 업식(業識)이 부처로 되는 시간이니까요. 망상을 어디에 내버려두고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망상을 화두로, 아는 놈을 모르는 놈으로 바꿀 수 있는 화두참선법은 참으로 대단한 수행법입니다.”

간화선 수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지침서인 <몽산법어> 강의를 통해 혜국 스님은 앎과 실천의 일치를 강조했다. 특히 신해행증(信解行證: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증득하는 것)이 차례대로 닦아야 할 과정이 아니라, 모두 한 자리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동시에 닦아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몽산법어> 가운데 “달마가 송(頌)하여 이르시되 ‘부처 마음을 깨닫는 데는 한 가지라 차별이 없으나, 아는 것(解)과 행(行)이 서로 상응해야 이름을 조사라 한다’ 하시니라” 하는 구절이 그것이다.

이튿날, 혜국 스님은 좌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좌선의> 강의를 통해 좌선하는 마음가짐, 호흡법, 자세 등을 체험담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호흡, 몸가짐, 마음쓰기(用心)가 부조화되면 신진대사가 안돼 선질(禪疾)을 얻어 중도에 포기하기 쉽기에 몸과 호흡이 잘 되도록 해서 마음의 현실적 깨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혜국 스님은 잠이나 음식 조절, 마장의 극복 등 좌선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수행자의 정신자세 즉, 보살정신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릇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우선 대비심을 일으켜 큰 서원을 세우고, 정교하게 삼매를 닦아 맹세코 중생을 제도하려할지언정 자기 한 몸만을 위해선 해탈을 구하지 말지니라”는 <좌선의> 법문이 그것이다. “널리 이웃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이 전제되지 않은 수행은 이미 방향이 틀렸습니다. 개인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수좌들이 있다면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60~70대 노스님들도 적지 않게 참여한 이번 법회에서 수좌들은 간화선 수행의 목표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더욱 새롭게 인식하고 발심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선문회 기획실장 성정 스님은 “스님들이 참선의 정신과 방법을 제대로 익힌 귀한 공부기회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부처님 형상을 한 바위가 연못에 비치는 유서깊은 아름다운 도량을 뒤로한 채 웅장하고 깊은 불영계곡을 나서는 비구니 수좌들의 발걸음이 환희심으로 가볍게 느껴졌다.

울진=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인터뷰

“비구니 수좌 수행정진 돕는데 일조”

전국비구니선원선문회장 육문 스님



“조사스님들의 서릿발같은 대검(大劍) 아래 일도양단(一刀兩斷)하는 대용맹의 기개로 헤이해지는 정진의 마음을 다시 대분심으로 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구니선원의 발전과 청규기강 확립, 수좌들간의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1000여명의 비구니스님이 모여 지난 2000년 창립한 전국비구니선원선문회. 이 수행결사의 회장 육문 스님(은해사 백흥암 회주 · 사진)은 “선원 수좌들의 위의와 생활규범을 더욱 강화해 올바른 참선 수행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4월 24일 영천 은해사 백흥암에서 개최된 제8차 전국비구니선원선문회 정기총회에서 연임된 육문 스님은 1962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4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0년 경북 양진암에서 수선안거한 이후 제방 선원에서 수행에 전념했으며, 1982년 백흥암 감원, 제11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다.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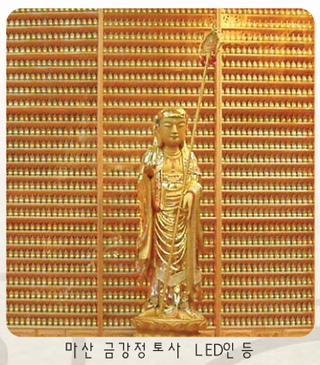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_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_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칙수백장청규 역주’ 8월 21일 출간 고불식



전국선원수좌회(대표 혜국)와 대구사원주지연합회(법혜 · 사진)는 8월 21일 불교대구회관에서 <칙수백장청규 역주> 출간 고불식을 봉행했다. <칙수백장청규>는 중국 선종의 여러 총림에서 간행된 청규를 참조해 완성된 가장 체계적인 청규(선원 수행규칙)서다. 이날 고불식에는 혜국 스님과 역자인 법혜 스님을 비롯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축서사 선원장 무여, 해인사 가야산회 회장 보광,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조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손동진 총장 등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중국 주래상 교수 한국서 名博 받아

화해미학(和諧美學)을 핵심으로 미학체계를 정립한 주래상 교수(중국, 산동대)가 한중 학술교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옥)에서 명예문예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래상 교수는 <중국고대미학> 등 전문학술서 19종과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300여편의 학술논문을 발표 · 게재하고 1993년 서울대학교 등에서 ‘중국미학’을 특강했다.

조동섭 기자

군종교구 연호사서 예비군승 하계교육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8월 26일~29일 가평 수기사 연호사에서 예비군승 하계교육을 개최한다. 예비군승 44명에 대한 이번 교육은 정기 하계교육 외에 각종 의식실수나 설법실수, 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종특별교구는 이어9월 2일~5일 백담사에서 준 · 부사관 250여명을 대상으로 불자수련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불자수련회는 사관 불자들 무형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덕현 기자**

‘제2회 간화선실참 향상과정’ 개설

조계종 교육원, 22~26일 지리산 벽송선원서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8월 22~26일 4박 5일간 지리산 벽송사(주지 월암)에서 ‘제2회 간화선 실참수행 향상과정’을 개설했다.

종단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본 · 말사 주지스님의 간화선 신도입문 지도능력의 향상과 간화선 지도에 나서고자 하는 스님들에게 체계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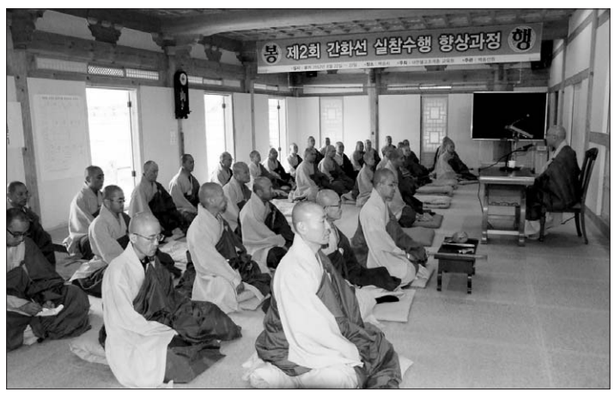
첫날인 22일 오후 2시 입재식에서 교육부장 법장 스님은 인사말에서 “간화선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최상의 가치를 지닌 수행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장소의 제약 탓에 강의 중심으로만 진행돼 실참이 참 아쉬웠는데 올해에는 실참에 많은 시간을 배정했으니 간화선 수행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벽송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은 환영사에서 “간화선은 고행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수행”이라며 “신심과 원력을 북돋울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입재특강에서는 조계종 원로위원 고우 스님은 “선, 교, 염불의 목표는 모두 견성성불로 선종에서 말하는 ‘매일 매일 좋은 날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 견성성불 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방편인 간화선을 통해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했다.

이번 연수는 선원장급 스님의 2차례 특강과 교수사인 벽송선원장 월암 스님의 10품에 걸친 강의로 진행된다. 월암 스님은 ‘선으로의 초대’, ‘양변을 여읜 자유로운 삶’, ‘지혜의 길 자비의 길’, 등 10가지 주제로 이론수업과 실참지도를 병행하게 된다. 이번 연수 이수자에게는 올해 본말사 주지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055)962-5661

박지원 기자



8월 22일 벽송선원에서 열린 간화선 실참 향상과정에서 입재특강 중인 고우 스님.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게 최고의 공덕”

70일 단식 회향한 법륜 스님, 단식일기와 편지 공개



북한 동포들의 아사(餓死) 소식을 접하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고자 5월 26일부터 단식을 해온 법륜 스님(사진)이 8월 3일 70일 간의 단식을 회향하고 ‘단식을 마치며’라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했다. 정토회 홈페이지에는 편지 외에도 스님이 단식정진을 하면서 메모해 두었던 단식정진 일기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다.

법륜 스님은 편지에서 “처음에 북한 동포들이 겪는 배고픔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동체대비’로 7 · 7 (49일) 원력 기도단식을 시작했다”며 “그리고 북한 동포의 죽음을 외면한 우리의 죄업을 대신 받는 ‘대속’의 마음으로 3.7 (21일) 참회기도단식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지금 몸은 많이 야위었지만 마음은 아주 가볍다. 옳은 일이라면 시류를 거스르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서 온갖 오해와 비난을 받더라도 불퇴전의 신심으로 중단없는 정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륜 스님은 “지금 거대한 역류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정토행자 여러분들은 이 역류의 물결에 내던져져 거센 물결의 저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류의 물결을 거슬러 저 언덕으로 나아가야 한다.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오직 불,법,승 삼보에 의지해 계,정,혜 삼학을 닦아서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고 저 열반, 해탈의 언덕에 이르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몽골 드림센터’ 개관

재단 최초 해외 식수공급, 지역맞춤형 복지예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8월 15일 재단 최초의 다목적 해외복지시설 몽골 ‘드림센터’ 개관식을 진행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얀주르흐구의 게르촌 식수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드림센터는 160㎡ 면적에 2층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다. 1층에는 마을우물과 마을사랑방 및 사무공간이, 2층에는 각종 모임과 학습이 가능한 다목적 공부방과 아동 · 청소년들을 위한 소규모 도서관이 들어섰다.

이날 개관식에는 한국국제협력단 몽골사무소 고희숙 부소장, 고려사 경산 스님, 재몽골한인회 김명기 회장, 바얀주르흐구청 뭉크바트 비서실장, 다시촐링 사원 빠리쩔리 스님, 등 1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목탁 스님 미얀마문화원 종로구서 개원식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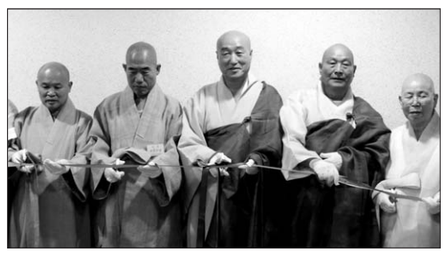
한국불교와 남방불교의 심장 미얀마 불교문화가 만나 서울 종로에 사랑방을 마련했다.

한-미얀마 양국간 친선 협회로 창립된 미얀마문화원(공동대표 목탁 · 사진)이 8월 22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대명빌딩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목탁 스님은 미얀마의 날 선포 7주년의 의미를 회고하며 “미얀마문화원은 올바른 미얀마의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제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아름다운 회향을 할 수 있도록 문화원 재원 확보와 공동의 선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원 내에는 스님이 지난 20여 년간 모아 온 부처님 사리와 불상으로 국제붓다사리박물관을 조성했다. 원하는 이는 언제나 친견 가능하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향후 미얀마와 폭넓은 교류협정을 통해 문화 도서관을 개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마정수기법회도 봉행할 예정이다. (02)733-5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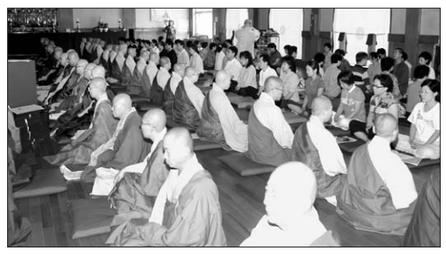
가연숙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전개소식



장기기증으로 자비정신을 실천해 온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발족 14주년을 맞아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8월 19일 견지동 대성스카이렉스 사무실에서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은 “여러분의 100원, 200원의 후원과 장기기증 서약으로 오늘날 연간 2억 원 가량의 환자지원 활동으로 성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삼화불교 하안거 해제법회



조계종삼화불교(총무원장 혜인스님)는 8월17일 삼화총림 백화사에서 불기 2552년 하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혜인 스님은 법어를 통해 “삼복더위에 안거(安居)를 지내느라 모두 고생하셨다”며 “모름지기 수행자는 진정한 결제와 해제를 이루어 확철대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스님 출판기념 사인회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8월 20일 오전 9시 20분 1층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장 · 보현 · 문수보살점안식을 봉행했다. 이어 우학 스님은 오전 10시, 오후 2시 <회주 우학 스님의 명심보감> 출판기념 사인회를 가졌다. 한편 영남불교대학 명칭이 한국불교대학으로 변경됐다. **손법천대구지사장**

2008학년도 하반기 동산불교대 입학식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은 8월 9일 동산불교회관에서 ‘2008학년도 하반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무진장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과 동산불교대 안동일 이사장, 이종현 동산반야회 신도회장, 이화열 동산불교대총동문회장, 차은산 동산포교사단장, 동산불교대 최봉수 교수와 불교학과재학생 60명이 참석했다. **김성우기자**

경전강좌 학인 모집

과 목	강 의 시 간	강의일자 변경
법 화 경	1교시 : 2시 – 3시 10분 (매주 월요일 오후)	법회일인 경우 화요일
화 엄 경	2교시 : 3시 30분 – 4시 40분	

◆모집대상 : 스님, 일반인 ◆통신생 : E-mail 통신 가능
◆모집인원 : 약간명 ◆학 기 : 2학기
◆개강일시 : 2008년 9월 22일 오후 2시
◆장 소 : 서울 중랑구 망우 3동 120-7(면목역, 상봉역)
◆전 화 : 02)496-3952~3



강사 마정스님
가야산 해인사 율맥 전수
금강산 장안사 율맥 전수

필요한 분에게 여래선,금강경, 대승기신론 통신강의 가능

불교전문강원 임제선학원

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 입종안내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 제120121-0004598호 정식 등록된 종단입니다.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신청서(총무원) 지방은 요청 시 우편발송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찰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 사진(여권용) 3매
◆ 사찰 전경사진(내,외부)

누차에 걸쳐 편지와 등기를 드려도 연락을 주지 않은 사암은 임의로 폐적된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및 접수처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 2동 25-12 석목법조빌딩 701호
◆전화 : 총무원 032)867-2694,543-2693 / 팩스 032)868-2694

지구촌 네티즌들 "한국 종교편향 이해 안 돼"

해외불교칼럼


계속되는 종교편향 발생에 불교계가 분노하고 있다. 사진은 7월 4일 열린 불교계 시국법회에서 스님들이 108배를 하는 장면.

최근 격화된 한국 내 종교 갈등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가 줄을 잇는다. 지구촌의 네티즌들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광신적 행태와 맹신집단의 좌충우돌을 인터넷 영상매체 등에 도배질하듯 올려놓고 모든 '한국인'을 싸잡아 비웃는다. 국제문화의 공존을 연구하는 하버드대학의 다원기획(Pluralism Project)도 7월 4일자 '종교적 다양성 뉴스(RDN)'에서 한국의 불교단체가 이명박 정부의 기독교 편향에 맞서 투쟁할 예정(Buddhist groups plan to fight Christian bias in Lee Government)이란 제목의 보도를 게재했다. 이처럼 국제학술지에까지 오를 정도니 국제망신이 따로 없다. 다음은 영국의 BBC에 게재된 '불교와 폭력'이란 칼럼의 일부를 편집 번역한 것이다.

비폭력(Non-Violence)은 불교의 기본 사상이자 불자의 행동규범이다. 불교의 오계(五戒) 중 그 첫째가 모든 생명체를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 불살생(不殺生)이다. 평화적 본질을 지닌 불교의 경전에선 단 한 구절도 갈등과 대립을 폭력으로 해결하도록 충동질하지 않는다. 붓다 세존은 나의 적이 나에게 극히 몹쓸 짓을 해도 그를 안타까이 여겨 보듬어주라 이르셨다. "미움의 매듭은 미움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으로 풀린다. 이것이 불가의 오랜 전통이자 법도다." 따라서 승려는 자기방어는 하되 살생은 절대 금하며, 재가불자 역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폭력은 자제한다. 이로 인해 일부국가의 불자들은 비폭력원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생명과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곤혹스런 딜레마에 부딪친다. 폭력에 당면한 불교인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어느 베트남참전 군인이 틱낫한 선사의 철저한 비폭력 자세를 몰아세웠다. "누군가 이 세상의 모든 불제자들을 다 죽여 없애고 이젠 틱낫한 선사께서 마지막 남은 불자라 칩시다." 당시 베트남은 전쟁의 와중에 고딘디엠의 가톨릭 집권세력이 불자들을 체포, 고문, 살해하는 등의 만행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선사마저 죽이려든다면 선사께선 어찌 하시겠소?" 틱낫한 선사가 담담히 대답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죽이도록 놔두겠습니다. 불교와 다르마의 진실은 온 우주에 늘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이 그 진실을 찾는 한 언제든 다시 나타나 보일 것입니다. 살생은 제가 배우고 지켜온 모든 가르침을 배신하고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나를 죽여 다르마의 참모습으로 남게 해주길 바랄 것입니다." 그 참전군인은 더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BBC의 칼럼치곤 좀 엉뚱하게 사찰무도로 건너뛴다. 이렇듯 평화적인 불교와 어울리지 않는 각종 사찰무도가 발달한 까닭은 뭘까?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세속에 횡행하는 물리적 충돌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승려들은 강인한 심신수련을 통해 폭력의 본질을 이해하며 폭력을 막아낼 능력을 갖춘다. 따라서 사찰무도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상대의 공격을 차단할 최소한의 방어술을 가르친다.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불교 역시 폭력과 전쟁에 휘말린 사례가 있다. 14세기 대원제국말기에 탁발승 출신의 주원장 등 한족 불교도들은 몽골족 통치에 맞서 무장투쟁의 선봉이 되어 외세를 축출한다. 전국시대 일본의 선승들은 무사들의 심신수양과 전투력 강화훈련에 참선수련을 도입한다. 일본제국 당시, 해외정탐과 사전공작에 투입된 '낭인' 중 상당수가 승려 출신이다. 그런데 BBC는 이와 유관한 한국불교의 역사적 유산을 간과하고 말았다. 삼국시대 신라의 화랑은 '문무를 겸비하고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승병조직'이었다. 이를 위해 원광 법사는 세속오계(世俗五戒)라는 다섯 가지의 행동강령을 제시했다. 군왕을 충성으로 받드는 사군이충(事君以忠), 효를 다해 부모를 모시는 사친이효(事親以孝), 또 믿음으로 벗과 사귀는 교우위신(交友以信)은 불자든 아니든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덕목이다. 그에 이어, 전투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는 임전무퇴(臨戰無退), 또 죽이되 가려하라는 살생유택(殺生有擇)에 이르면 최소한 무력시위가 이미 불가피한 정황임을 시사한다.

그 후 고려시대에도 몽골침입에 맞서 호국승병집단이 무장봉기를 하고 승려 김윤후는 원정군 대원수인 살리타이를 사살하여 전세를 뒤엎는다. 조선의 임진정유양대 왜란 때도 마찬가지다. 사명당 등 휘하의 정예승병조직이 결사항전으로 이 땅을 지켜냈다. 그때는 이 땅에 기독교가 없었다. 우리 민초들은 주님의 은총이나 축복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힘들여 싸워 이 땅을 지켜왔다. 그것이 곧 한국인이 이뤄낸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기적이다. 그리고 민초들의 구심점이자 빛이 되어온 것이 한국불교다.

그런 한국불교가 지금 일부 광신집단이 선동 교사하는 제도폭력, 행정폭력, 사법폭력, 언론폭력 등 온갖 폭력과 음해에 노출되어 있다. 호국호법의 민족전통을 갉아대는 사악한 자, 잘나적 권력의 배경을 믿고 구린 혀를 내두르는 천박한 자, 미리 알아서 발발 기는 누추한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력은 보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견제력의 사용여부는 그 자들이 툭하면 써먹는 이른바 상황윤리(狀況倫理), 곧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때를 보아가며 꿰맞추면 될 터이다. 요즘 어떤 이들은 한국불교의 역경을 속단하고 우려한다. 그러나 역풍도 돛을 다루기에 따라 순풍으로 바뀌듯 '역경은 곧 역전의 기회'다. 집단광기의 역풍에 맞서 기보다는 한국불교의 중흥을 향한 순풍으로 다뤄가는 지혜가 모아지리라 믿는다.

편역 ; 성휴 스님

기사참조: BBC, RDN(Harvard: Pluralism Project) BCTV, Topix, Radio Australia 기타

영상참조: Youtube.Com :Crazy Korean Christians make children crazy, Crazy Korean Christian Maniacs 기타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앨리스 워커 ❻

두 눈 뜨고 바로 보는 믿음

앨리스 워커의 문학세계는 무척 다양하고 풍부하며 그녀의 소설만 해도 <컬러 퍼플> 이외 예닐곱의 수작이 더 있다. 미국의 유명 불교잡지에 게재된 그녀의 인터뷰 가운데 일부다. 먼저 기자가 묻는다. "선생님께선 <컬러 퍼플>은 불교가 드러나지 않은 불교적 작품이라 하셨습니다. 불자이신 작가선생님께 직접 설명해주실 수 있겠죠?" 그녀의 대답이다. "붓다께선 본디 싯다르타 왕자로 호사스런 궁정생활을 하셨지요. 그러나 생로병사의 고통을 알게 되시자 그 괴로움을 풀어갈 '더 나은 길'을 찾아 나서신 겁니다." "네, 그렇죠. 사람마다 당면한 현실에 불만과 저항을 지니긴 하지만 타성과 인습에 얽매여 정작 그 현실을 떨쳐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를 떨쳐낼 용기도 없고 자신을 굳게 받쳐줄 신념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붓다께선 달랐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내고 '더 나은 길'을 찾아 나서신 거죠. 저는 그것이 이미 자기해방이며 해탈이라고 봐요." "아, 그렇다면 구도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놓아주는 자아해방이자 나의 묵은 껍질을 벗어내는 해탈의 시작이란 뜻인가요?" "물론이죠. 이 작품 속의 모든 인물들이 나름대로 인습과 타성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더 나은 길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것이 곧 갇힌 나를 풀어 놓아주는 자아방생(自我放生)입니다." "아, 이젠 <컬러 퍼플>이 '불교가 없는 불교적 작품'이란 선생님의 말씀이 헤아려집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천부적 필재와 경륜을 유감없이 과시한 대중문학인 <컬러 퍼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 글은 신학(神學)에 관한 거예요. 플로트의 구성상 근친상간, 여성학대, 배우자구타 등의 충격적인 장면이 설정된 만치 그저 통속 휴먼드라마로 보이겠죠. 그러나 저로선 독자들이 소설적 흥미와 더불어 등장인물 각자 나름대로 걷는 구도의 길을 눈여겨 봐주셨으면 해요. 예컨대, 셀리 자신은 숱한 고통 끝에 이 마침내 신성(Godness)의 한 부분이 되어가요. 동시에 자아발견을 향해 떠나는 거죠. 저는 인간이 지닌 신적 요소, 곧 신성은 인정하지만 신의 존재는 모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신(God)이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께선 신을 부정하시나요? 아니면 신의 존재를 부인하시나요?" "하하, 왜 저를 걸고넘어지려 하세요? 지금 저는 신이 아니라 누구나 지닌 보편적 신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때론 선생님께서도 두 눈을 감고 신과 교감하면서 뭔가를 보시긴 하겠지요?" "하하, 참 재미있군요. 먼저 한 말씀 드릴께요. 불교는 두 눈을 뜨고 바로 보는 믿음이죠. 그래서 두 눈을 질끈 감고 그저 믿습니다 하며 질질 끌려 다니는 믿음과는 근본부터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뭘 보려면 눈을 떠야지 왜 눈을 감나요? 게다가 저는 두 눈을 감지 않아요. 제가 왜 멀쩡하게 뜬 눈을 굳이 감아야 하는 거죠? 신이란 여기저기 어디에든 있죠, 안 그래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신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신이란 거죠? 저는 신을 찾고자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자아의 내면을 밝히려 할 때만 눈을 감아요." 그녀의 기가 막힌 달변이자 법문이다. 그녀는 보통 인간이 지닌 보편적 신성에 대해서도 과연 시인 앨리스 워커다운 시적 표현으로 마무리한다. "내 방의 창 너머 보이는 작은 뜨락, 저 작은 단풍나무에도 넉넉하고 포근하며 따스한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그 신성을 나는 엄마(Mama)라 불러요." 그녀가 여기서 말하는 엄마란 굳이 여성을 뜻하지 않는다. 앨리스 워커 보살은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을 더욱 친근하게 엄마라 부르고 있다. -계속- 성휴 스님

신성 인정하지만 신의 존재는 몰라

사물에 깃든 신성 '엄마'라 불러요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Why is it necessary to be quiet in class?"

수업 땐 왜 조용히 해야지?



At the kid's dharma class, the teacher told her little children, "I was so happy to see you listen carefully to what the master said at the last Dharma talks." While sharing some rice cakes over tea with them, she continued her talks, "But some of your senior students want you to be quieter at the next ones. And why is it necessary to be quiet in class?" One bright little girl replied, "Because all the brothers and sisters are sleeping!"

어린이 법회의 선생님이 꼬마들한테 말했다. "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지난 번 법회 때에 지도 법사님의 법문을 열심히 들어줘서 참 기뻐요." 선생님은 애들과 차와 떡을 나누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상급반 학생들이 다음 법회 땐 여러분이 좀 더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대요. 수업 때엔 왜 조용히 해야 할까요?" 똑똑한 여자 어린이가 대답했다. "네, 언니들이랑 오빠들이랑 코오 잠을 자니까요." 번안: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태국서 18톤 옥불 조성 호주에 봉안 예정

오스트레일리아 벤디고시에 보내질 무게 18톤의 옥불(玉佛)이 태국에서 18개월 동안의 불사 끝에 완성됐다. 투명옥에 조각된 높이 3.5m의 옥불은 벤디고시 교외에 건축 중인 10층 사찰에 봉안된다. 벤디고시 불사기획단 아이언 그린 회장은 이 옥불이 호주 도착이전에 태국의 방콕,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와 페낭에서 순회전시되며 기타지역의 전시요청으로 추가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ABC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실전교육으로 책임 전수함
▷ 교육시간 : 화요일 – 일요일(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까지)
▷ 특별교육 : 시간,요일 조절가능 ▷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제 1기 단전호흡 · 명상 · 최면 수강생 모집
▷개강 : 2008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지장사 법당
매주(수) 오전 10시 – 11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9시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

불교, 세계종교를 만나다

교불련, 창립20주년 맞아 월정사서 국제학술회의 개최


에이몬 아담스 교수 (영국 . 런던대).


최일범 교수 (성균관대).


판카즈 모한 교수 (호주. 시드니대).


김홍철 명예교수 (원광대).


강병조 교수 (경북대).

정부의 종교편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때, 불자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와 세계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특히 고준환 교수(경기대 ·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초대회장)의 기조강연(본지 693호 2면 보도)에 이어 강병조 교수(경북대)가 재가자의 종단운영 참여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 창립 20주년을 맞아 8월 18~20일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에서 열린 '2008교수불자대회'는 200여 불자교수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8월 19일 '불교와 세계종교와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는 에이몬 아담스 교수(영국, 런던대), 최일범 교수(성균관대), 판카즈 모한 교수(호주, 시드니대), 김홍철 명예교수(원광대), 강병조 교수(경북대)가 발표했다.

불교와 개신교의 만남

에이몬 아담스 교수는 '한국에서의 불자와 개신교도의 대화(Buddhist Christian Dialogue in Korea)'에서 "기본(초발심)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아담스 교수는 "'종교간 대화'는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대화는 상호이해와 관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가치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와 개신교가 적대감을 넘어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종교간 소극적 대화를 초월해 실험적 · 긍정적 태도로 귀중한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이몬 아담스 교수는 "한국이 진정한 종교다원주의 사회인지 묻고 싶다"며, "진정 상대를 인정하고 싶은지, 변화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점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담스 교수는 종교간 협조와 우정을 설명하며, "같은 지역 사찰과 교회부터 소통하며 지내자"고 제안했다.

불교와 유교의 만남

'유교와 불교와의 대화'를 발표한 최일범 교수(성균관대)는 "종교간 대화는 반드시 서로 인정하고 하나가 돼 마칠 필요가 없다"며, "포용과 갈등 여부보다 인간을 위한 인간의 종교인가가 중요한 문제"라 주장했다.

최 교수는 불교와 유교의 대화를 ▲<모자이혹론(牟子理惑論)> 등을 인용한 배타적 관점 ▲우란분회(백중) 등을 예로 든 포용의 관점 ▲최치원의 삼교관을 통해 배타와 포용을 아우른 다원주의적 관점으로 나눠 설명했다.

최일범 교수는 "유교와 불교는 동아시아와 인도라는 지역적 차이로 다른 점이 많았지만 '덕성'과 '불성'을 내세워 인간의 자기완성이 종교의 본질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유교와 불교가 보여준 지적 전통이 오늘날 종교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인류를 위한 종교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진단했다.

불교와 힌두교의 만남

판카즈 모한 교수는 '불교와 힌두교의 대화(Hindu-Buddhist Dialogue through Early and Medieval History)'에서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한 기원전 6세기부터 이슬람 침공 등으로 생명력을 잃기까지를 조명했다.

특히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한 것에 대해 호사카 순지 교수(일본, 레이타쿠대)의 학설을 정면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호사카 교수는 김호성 교수(동국대)가 번역한 <왜 인도에서 불교는 멸망했는가>(한길음 더 刊)에서 이슬람 사료인 <차츠나마>를 인용해, "불교가 이슬람교에게 '안티 힌두교' 역할을 넘겼기 때문"이라 주장했었다.

판카즈 모한 교수는 "이슬람교는 힌두교 못지않게 불교를 공격했다. 불교인들이 이슬람교를 자발적으로 수용했다는 <차츠나마>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인도를 침략한) 이슬람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일본강점기 일본학자들이 쓴 한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오류"라 지적했다.

판카즈 교수는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한 원인을 무분별한 힌두의식 수용으로 인한 불교의 정체성 상실로 진단했다. "7~8세기경 탄트라(Tantra) 등 힌두교 의식을 받아들인 불교교단에 여자, 술이 등장한 음탕한 종교의식이 행해지면서, 불교가 힌두교와 크게 구분되지도 못했고 인도 내에서 대중적 지지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방대한 불교경전을 요약본으로 만들고, 요약본을 다라니로, 다라니를 만트라로 줄였다"면서, "대중들이 만트라만으로 불교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점도 불교가 지지기반을 잃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불교와 신종교의 만남

김홍철 명예교수(원광대)는 '불교와 신종교의 대화'에서 천도교 · 증산교 · 원불교 등 한국 신종교에 내포된 불교적 요소와 불교와의 관계를 고찰했다.

김 명예교수는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가 불교 사찰에서 기도생활 하고, 해원 최시형도 불교식 수행한 것을 예로, "동학이 불교를 부정했어도 가르침에는 불교적 요소가 스며들어 있다"고 분석했다. 증산도와 관련해서는 "증산도를 창종한 강증산도 불교를 유교보다 우위에 뒀고, 증산이 세상을 떠난 후 증산을 미륵불로 숭배하는 교파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진리인 불법의 차원에서 보면 불교와 원불교는 완전 일치한다"며, "원불교의 법신불인 원상 가르침은 불교의 법신불을 일원상이라 한 것"이라 말했다.

김홍철 명예교수는 "천도교 · 증산도 · 원불교는 유 · 불 · 선 세 종교를 부정하면서도 근본이념과 사상을 끌어들여 교리와 사상체계를 형성했다. 다만 천도교는 유교를, 증산도는 도교(仙)를, 원불교는 불교를 주체로 삼은 것이 다를 뿐"이라 정리했다.

개혁 절실한 한국불교

강병조 교수(경북대)는 주제발표 '한국불교, 종교개혁이 필요한가'에서 '한국불교 개혁'을 주장했다. 지난해 교수불자대회에서는 성철 스님의 비과학적 설법을 비판해 화제를 모았던 강 교수가 이번에는 한국불교 승가 전체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강 교수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인용해 "한국불자의 상당수는 촌사람, 고령의 할머니나 아주머니"라며, 승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스님들이 막연한 설법으로 신도 위에 군림하려고 하니 할머니, 아주머니만 절을 찾는다"고 비판한 그는 승가개혁을 한국불교 개혁의 핵심으로 역설했다. 강병조 교수는 "스님들 사이의 문중 파벌을 없애야한다" "종단 내 문제를 사법부에 고소하는 승려는 제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불교 전반에 관해 "내세와 윤회를 믿으려면 힌두교와, 석가모니를 신격화하고 영험을 중시하려면 기독교와, 점 치고 부적 팔려면 샤머니즘과 통폐합하라"고 한국불교를 강도 높게 비판한 강 교수는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종단운영, 과학 · 어학 교육을 중심으로 한 승가교육제도 개선 등을 역설했다.

한편 국제학술대회에 이어 19일에는 ▲정치 · 경제 문화와 불교 ▲문화예술과 불교 ▲사회 · 윤리 · 환경문제와 불교로 나뉜 3개 분과에서 미래불교를 위한 학술적 담론이 펼쳐졌다. 종교간 화합과 상생을 바라는 불자교수들의 결의문도 채택됐다. 불자교수들의 정성 어린 목소리가 불교계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화엄경문답' '대승사론현의기' 한국 문헌"

최연식 교수,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학술세미나서 발표



'한국불교 문헌의 새로운 발굴'을 주제로 8월 20일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최연식 교수는 '일전문헌과 불교사상의 재인식'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 또는 일본 문헌으로 알려졌던 <화엄경문답> <대승사론현의기>는 한국 고대 문헌이며, 원효스님 등에 의한 한국 문헌으로 알려진 <유심안락도> <대승기신론동이략집>은 8세기 후반 일본 승려가 찬술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가 8월 20일 서울역사박물관 시청각실에서 '한국불교 문헌의 새로운 발굴'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 세미나서 최연식 교수(목포대)가 주제발표 '일전문헌과 한국불교사상사의 재인식'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최 교수는 "다양한 사상 가운데 후대에는 주류만이 남게 된다"며, "(잘못 알려진) 문헌들이 '자기'가 아닌 '남'으로 존재해 오면서, 없어지지 않고 현존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진심직설>과 <건나표하일승수행자비밀의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연식 교수는 "신라말 화엄학자의 저술인 <건나표하일승수행자비밀의기>는 중국 화엄종의 대표문헌으로 선양됐었다. 정체가 탄로 난 고려에서는 멸실됐으나, 성격이 드러나지 않았던 중국에서는 석경으로 잘 보존됐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진심직설>도 우연히 지눌의 저술로 오해받아 현존할 수 있었다"며, "돈황석굴서 발견된 문헌들이 남북조와 수당시대 불교사를 다시 쓰게 한 것처럼 일전(逸傳) 문헌들은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불교사상사를 재인식하게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김천학 교수(금강대 HK)는 '백제 도장의 <성실론소> 일문에 대해서'를 통해 백제 승려 도장(道藏)의 저서로만 알려졌던 <성실론소>의 내용 등을 최초로 발표해 주목받았다.

조동섭 기자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따라 바뀐다

문화재청,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통일성 없이 제각각이었던 문화재안내판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기준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8월 21일,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06년부터 궁궐, 사찰 등 주요 유형별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정리해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안내판 개선시 고려사항, 개선 기본원칙, 세부 가이드라인, 개선의 주요 프로세스 등을 포함해 각 지자체의 문화재안내판 개선업무 담당자들이 실무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실무지침 보급과 함께 10월 중 전문가들로 '문화재 안내판 개선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전국의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성인병(당뇨 · 고혈압) 예방
첫서리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금강선원 뽕잎차는 초중스님께서 구증구포의 전통방식으로 정성들여 만들어 맛과 향이 탁월합니다.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는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 강 선 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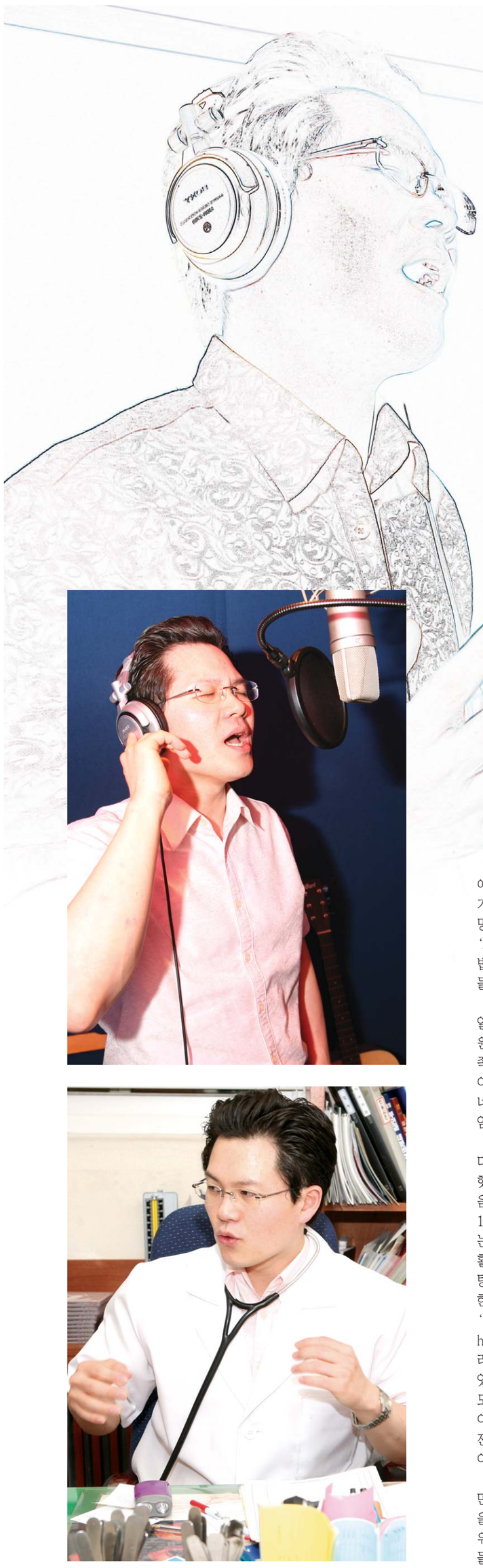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절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절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대한명인(06-122호)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노동부장관 표창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진호(의사, 싱어송 라이터)

청진기로 진료하고 음악으로 치료해요



'이내과' 부원장 이진호씨는 대학시절 우연히 <심우도>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됐다. 이때부터 불교에 빠져들었고, 참선과 명상에 관심을 가졌다. 명상을 배우기 위해 인도로 날아가서 '오쇼 아쉬람'에서 명상하기도 했으며, 그는 자신만의 명상법을 구현하기 위해 일본의 선센타를 비롯하여 산사의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움을 구했다.

이진호씨는 아침에 한 두 시간씩 명상하는 것이 생활의 일과가 된지 오래이며 경전을 읽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원래 천주교 집안이었는데 이진호씨의 신행활동을 보고 가족들이 모두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 '이 내과' 원장 아버지 이욱용씨는 십년 전 쌍계사에서 스님들의 새벽예불을 보고 너무 좋아 불교에 귀의하게 됐으며, 조계종 포교사단장을 역임한 포교사이기도 하다.

그의 음악경력을 살펴보면 화려하다. 고등학생 때 혼자서 작곡 공부를 했으며, 연세 의과대 재학 시절에는 락음악 동아리 SECE(쎄스)를 창단했다. 1997년부터 'Yasodara(야소다라)' 라는 이름으로 홍대 근처에서 인디밴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끝없는 구도심은 2006년 한 장의 음반이 되어 나왔다. 'Screaming Buddha 붓다를 외치다'에 수록된 곡들에서는 구도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세상을 돌아다녔던 그의 행적을 여실히 읽을 수 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곳으로, 나란 감옥을 벗는 곳으로, 모든 번뇌가 없는 곳으로, 온 우주가 부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진실이요 진리"라고 노래하고 있다. 특히 이진호씨는 경전 중에서도 <보왕삼매론>을 가장 좋아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곡으로도 만들었다.

구도심을 노래한 음반 외에도 2007년 의학싱글 1집 '듣기만 해도 살 빠지는 노래' 발매를 시작으로 하여 당뇨환자들을 위하여 '당뇨'음반을, 자궁경부암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자궁경부암 백신' 음반을 발매했다. 또 많은 암환자들을 위해 '나는 암을 사랑합니다'를, 2008년 3월에는 흡연 환자들을 위해 '금연! 병원으로 와요' 등의 음반을 발매했다.

그가 이러한 음반을 내놓는 것은 진료실에서 안타까운 이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이다. 당뇨 음반의 타이틀곡인 '이겨내요 당뇨'는 당뇨 합병증의 무서움을 인식시키고, 식생활 습관 등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격려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뇨 진료를 거부하던 고등학생이 음반을 듣고 나서 생각을 바꾸게 된 일부터 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말을 듣게 됐다. 다음은 고지혈증의 위험성을 노래한 가사의 일부이다.

"고지혈증! 혈관이 기름으로 좁아지는 병! 평소 아프지는 않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중풍 걸려요. 삼겹살, 보신탕, 알탕, 계란 노른자 많이 먹으면 합병증 생겨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환자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생활 습관병인데도 많은 환자들이 관리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에 이렇게 의료음반을 보급하고 있다.



당뇨 등 주제로 앨범제작 "음악이 최고의 백신이죠"

'나는 암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음반은 녹음할 때 암환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암에 걸렸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나 분노를 극복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을 암환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든 음반이다.

여성 사망률 2위를 차지하는 '자궁경부암'은 여성들을 위협하는 무서운 암중 하나였지만, 백신이 등장해 예방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의 인식부족으로 잘 모르고 있기에 백신을 알리기 위하여 이 음반을 내놓았다. 또 인기가 많은 다이어트 음반은 잘못된 식습관만 고쳐도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복용의 위험성을 담은 음반이다.

환우들에 대한 애정과 배려는 이진호씨 또한 그러한 고통을 겪어보았기에 더욱 절절하게 노래에 배어나오는지도 모른다. 의과대를 다닐 때 교통사고를 당하여 반신마비가 왔다.

"지금은 정상인의 몸이지만, 그 당시에는 후유증으로 인턴과정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냥 일반의사로 일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하면서 살기로 했죠."

그는 음반발매 뿐만 아니라, '암시민 연대'와 함께 '암환우 콘서트'를 열기도 하며, 한 달에 한 번은 당뇨나 암환우들을 위하여 의사가운을 벗고 록 가수가 되어 무대에 선다.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음반을 듣고 고통에서 헤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야소다라(www.yasodara.com)'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해 놓았다. 그리고 질병과 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산사음악회에도 출연하고 있으니, 이진호씨는 이 시대의 약사여래보살이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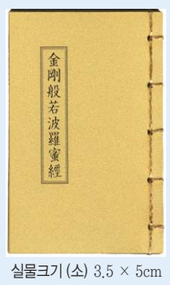
"부처님은 가르침을 통하여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환자들을 맞이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의술이란 본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기에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을 보면 마음의 번뇌 망상으로 인해 병이 생긴 경우도 많아요."

이진호씨는 자신의 노래가 시방세계로 메아리쳐서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위안이 되고 튼실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하지만, 질병 없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의 노래는 계속될 것이라 했다.

참선을 하면서 환희로 가득 찬 자신의 마음을 노래한 '참선-우주와 하나가 되다'를 가만히 들어 본다.

"등줄기 타고 뜨거운 기운/ 빛나는 우주 속에서 헤엄을 친다./ 너와 나 둘이 아니고 하나였구나/ 기쁨이 너무도 커서 누를 길 없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 장 의 식 상 량 식 불 가 사 장 용 소 천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 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신심 제일의 도시 배움의 열기도 '짱!'

부산 지역 사찰 및 교육단체 '가을 학기' 일제 개강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9월, 불자들의 신행관을 정립하고 불교적 인생관을 설정해줄 교육의 도량이 부산에서 대거 열린다.

부산불교인재개발원(원장 이욱태, 051-853-8539)은 제1기 입문자 수행학교 및 불교전문강당 신입생을 모집한다. 제1기 수행학교는 처음 불교를 접하는 초심자들을 위한 쉽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9월2일 개강해 6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오전반과 오후 7시 야간반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강사진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前 범어사 포교국장 무관 스님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 대원불교대학(학장 송석구, 051-583-7811)은 2008년 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입문 6개월 과정, 대학2년 과정, 대학원 2년 과정, 법사 3년 과정으로 불교입문과 및 불교학과,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명상학과 강의를 개설했다. 강의시간은 주간 오후 2시, 야간 오후 7시부터 각각 2시간 40분간 진행된다. 수료 후에는 각 분야 전문 자격증이 부여된다.

수미산 아미타도량 원효센터(주지 공파, 051-611-9308)는 <대승기신론 해동소> 제8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년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고려대장경판 해동소를 교재로 중생이 부처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의 과정을 강의한다. 법사 공파 스님은 <원효전집 6권> <천수경의 원본경전> 등 다수의 저서를 편찬하고 수준 높은 강의로 정평이 나있다.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 051-253-8687)에서는 초심자를 위한 불교기본교육(4개월)을 마련한다. 9월 2일 개강해 총 4개월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주·야간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참선 입문과 실참수행을 아우르는 참선수행학교에서도 제2기 초심자를 위한 참선강좌(3개월)와 참선강좌 심화과정인 <수심결> 강좌(2개월)를 마련한다. 7월 23일 성황리에 마친 선원장 오경 스님의 <화엄경>강의는 보다 깊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재단장해 <화엄경 II> 강의로 개설된다.

연산동 혜원정사(주지 원허, 051-866-7771)에서는 제17기 혜원불교대학을 개강한다.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통도사해운대포교원 부처님마을(주지 효범, 051-704-0332)은 제14기 불교대학신입생을 모집한다. 6개월 과정의 기초반에서는 불교기초교리 및 불교예절, 불교신행방법, 성지순례 및 현장학습 위주로 진행된다. 경전반은 불교방송 목요법회를 진행하는 효범 스님이 지도법사로 출강한다.

당리동 관음사(주지 지현, 051-701-5655)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환희불교복지대학에서는 제20기 호스피스 과정과 제5기 카운슬링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2일 개강해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료 후 특전이 주어진다.

박지원 기자hdbp@hanmail.net


부산 불교계는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 불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얼음골 케이블카 환경파괴 논란 '가열'

총 4단계 중 공원계획 변경승인 절차만 남아

경남 밀양시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밀양시와 환경단체 및 사찰 간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8월 17일 경상남도와 밀양시,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주)한국화이바는 120억 원을 들여 가지산 도립공원 내 밀양시 구연마을~진창골 계곡 남측 정상 1.7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경상남도, 밀양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주)한국화이바는 5월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신청하고 조건부로 협의를 마쳤고, 경상남도에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했다. 현재 공원계획 변경승인과 삭도사업 허가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강력하게 반발해 2002년 사업이 무산된 선례를 바탕으로 경남과 울산지역 환경 및 시민 단체,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와 밀양 표충사(주지청운) 등 불교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지산 도립공원 얼음골 케이블카 반대 시민사회단체-불교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중간 지주탑 예정지는 녹지자연도 등급이 8, 9급인데다 최근 멸종 위기종인 삵의 분비물이 발견됐는데도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전환경성 검토는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밀양시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밀양시는 "환경단체가 '케이블카 공사로 얼음골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계 전문가 4명으로부터 '케이블카 공사는 문화재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 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케이블카 중간 지주탑의 경우 얼음골에서 559m 떨어져 있으며, 케이블카 상부에서 산 정상까지 진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등을 설치하면 오히려 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밀양시 얼음골 일원은 통도사, 석남사, 표충사, 내원사 등 유명 사찰과 억새군락지 등이 위치한 이른바 '영남알프스'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지원 기자hdbp@hanmail.net

"이순간 닦고 실천하라"

정광스님, 반야원·미타선원서 초청법회


봉암사 선원장 정광 스님이 반야원과 미타선원에서 불자들을 만나 "지금 이 순간부터 청정하게 닦을 것"을 법문했다.

'실천하고 수행하는 삶'에 대한 정광 스님의 특별 법문이 부산의 2곳 사찰에서 하루 동안 릴레이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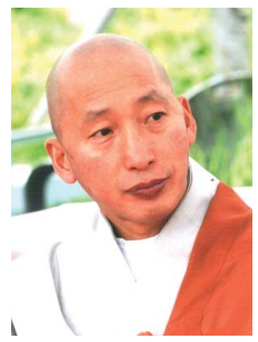
8월 20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범어사 해운대 포교원 반야원(주지 목종)과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에서 봉암사 선원장 정광 스님의 초청 법회가 열렸다.

정광 스님은 "불교는 깨달음과 자비의 종교로, 법성을 깨달아 남에게 베푸는 것을 실천 수행해야 한다"며 "내일부터 혹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가 불교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봉암사는 조계종 종립선원으로 일반인들은 물론 신도들에게도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특별선원이다. 정광 스님의 이번 법회는 각각 200여명의 신도들이 모여 성황리에 마쳤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

"누구든 와서 근심 걱정 놓으세요"



"남구의 절, 나아가 부산 시민의 절로서 문화적 휴식공간이 앞으로 동명불원이 가져야할 모습입니다."

비룡산 동명불원(주지 정산) <사진>은 8월 15일 백중을 맞아 부산시 남구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흥겨운 잔치를 열었다. 지난해 2월 정산 스님이 주지로 취임한 후 생긴 큰 변화 중 하나다. 모창가수 주용필의 유쾌한 공연과 전문 무용단의 아름다운 무대, 어르신들의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 등 지역축제 못지않은 큰 호응 속에 마쳤다. 단순한 대중공양만이 아니라 즐거운 축제의 장을 만든 정산 스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불자들이 집에 계신 내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명불원은 울타리가 없는 절이다. 2700평의 넓은 대지에 동남아시아 건축양식으로 지은 17채 건물과 국내 최대 규모 27톤 범종으로 백과사전에 오를 만큼 특색 있고 유명한 사찰이기도 하다. 이런 특색 때문에 인근 학교에서는 소풍이나 사생대회 때 자주 찾는 단골명소가 된 지 오래. 너무 많은 이들이 찾아와 번거로울 법도 한데 정산 스님은 오히려 더 자주 오라며 반긴다.

"우리 절은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시민과 불자 모두에게 평안함과 행복을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누구든 지나가다 들러서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8월 17일에는 동명불원 신도회가 용호사회복지관에 옷, 양말, 치약 등 생필품 200kg을 기증했다. 스님은 모두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공을 모두 신도들에게 돌린다. 하지만 신도들의 이런 선행에도 정산 스님의 뜻이 담겨있다.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부처님 뜻을 가르쳐줘서 이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비'이고 곧 스님들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앞으로 크고 작은 후원은 꾸준히 이어나가는 한편, 자원봉사에 필요한 인력 수급에도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신도들이 봉사하고 싶어 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싶어하지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동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체계적인 봉사의 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울타리없는 절… 지역명소에서 나눔운동

자비를 실천하고 싶지만 물가가 오를수록 서민들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진 요즘. 우리 가족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형편에 감히 도울 엄두가 나지 않는 불자들이 많아졌다. 정산 스님은 "지금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일 뿐 곧 하나씩 해결되고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며 "지금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고통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려울수록 더 많이 베푸는 그 공덕이 나중에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자비와 나눔을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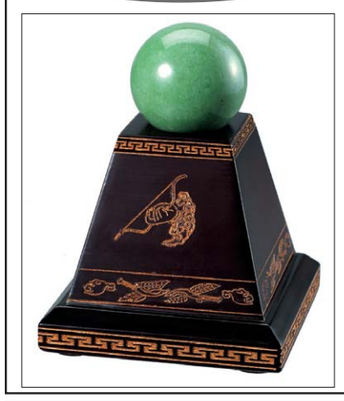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독거노인에게 희망더하기’ 주거개선

고창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복운주거개선사업단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18일부터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거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고창지역 65세이상 노인 단독세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7~8월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한 독거노인 100가구에 도배, 장판, 보일러, 수도시설 등을 정비해 독거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번 ‘복운주거개선사업’은 노인이 노인을 위한 지역의 ‘노-노 케어’의 장을 마련해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첫 혜택을 받은 김영애(71) 할머니는 “하루 종일 고생하며 일한 분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업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업을 주관한 무공 스님은 “올해 주거개선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노인주거개선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주거개선사업 참여노인과 수혜노인 삶의 만족도가 함께 올라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밥차는 자비 싣고”

광주 자비신행회 ‘자비의 밥차’ 운행 시작



8월 14일부터 광주 자비신행회 ‘자비의 밥차’는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무료공양 서비스를 시작했다.

맛있는 건강식을 가득 실은 ‘자비의 밥차’가 광주지역 노인들을 위한 무료점심 대접에 나서 눈길을 끈다. 무료급식소까지 찾아가야 먹을 수 있던 점심을 마을 노인회관까지 찾아와 대접하니 지역 어르신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빛고을 광주의 대표적 신행단체인 사단법인 자비신행회는 8월 14일 광주시 외곽 용연마을을 시작으로 매월 1~2회씩 무료급식 차량을 이용한 어르신들 점심공양에 나섰다. 5월 7000만원 예산을 들여 구입한 밥차를 이용해 수차례 시범행사 후 본격적인 무료공양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점심공양 서비스를 시작한 14일, 광주광역시 용연동 마을회관 앞에는 마을과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 100여명이 모여 분주했다. 어르신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시식하느라 기쁜 모습이었다.

공양에 참여한 박말려(71) 할머니는 “ 불교단체에서 무료로 갖다주는 음식은 처음 먹어 본다. 음식이 정말 맛나고 좋다”며 감사표현을 했다.

특히 자비신행회와 인근지역 법림사(주지 무진)가 함께 마련한 행사는 신행단체와 지역사찰이 연계한 밀착형 지역서비스의 새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행사를 기획한 자비신행회 김영섭 사무국장은 “지역사찰과 연합해 지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의미로 시작됐다”며,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번뇌 비우고 지혜 채우자

호남지역 경전·문화 등 ‘가을강좌’ 풍성

무더위로 영근 곡식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때, 솔솔 부는 시원한 바람에 배움이 절로 생각나는 계절이 시작됐다. 마음가는대로 불교서적 한두 권 읽으며 독각을 자처했다면 올가을 지역 불교대학 등을 찾아 체계적인 부처님 법 공부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호남에서는 광주전남지역 5곳(재가 화엄학림, 광주불교대학, 광주불교문화대학, 강진불교대학, 무각사불교대학)과 전북지역 5곳(무주불교대학, 남원불교대학, 전북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화엄불교대학) 불교대학이 강좌를 열고 불자들을 기다린다.

 # 광주 전남지역

재가불자들의 열린 배움터 재가 화엄학림(학장 정원채)은 9월 2일부터 ‘근본불교사상’과 <화엄경> 강좌를 개최한다. 각각 7회씩 연속해 열리는 강좌는 법인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해강 스님(실상사 화림원 원장)이 강의한다. 10월 중에는 태국 불교 성지 순례도 계획 중이다.

강진불교대학(학장 여연)은 8월 20일부터 <천수경> 강좌를 시작했다. 매주 1회씩 열리는 강좌는 12월 17일 종강법회 전까지 <천수경>, 기도수행법, 참선수행법 강의와 성지순례 등으로 진행된다.

광주불교문화대학 · 원(학장 영조)은 대학과 대학원으로 나눠 학기를 시작한다. 대학은 9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화, 목으로 나눠 ‘차 문화’(여연 스님), ‘한국불교사’(정의행 법사), ‘<천수경> 해설’(도성 스님), ‘포교방법론’(한탑 스님), ‘<반야심경> 해설’(혜광 스님), ‘<아함경>’(법선 스님), ‘불교상담학’(양진명 선생) 강의가 열린다. 대학원은 9월 5일부터 한탑 스님의 ‘<유마경>’ 강의를 시작으로 ‘불교문화’ 강좌가 12월 19일까지 계속된다.

광주불교문화대학은 3개 학과(불교학과, 한문학과, 성보문화해설사)를 별도 운영한다. 성보해설사 과정은 지역문화재 전문단체인 남도불교문화연구회와 공동진행하며, 광주전남지역 문화재 전문위원과 대학교수진이 강의한다. 특히 졸업자는 지역 불교문화재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다.

광주불교대학 · 원(학장 혜향)도 대학과 대학원이 각각 9월 3일과 1일이 개강한다. 재학생 및 졸업생이 원하는 과목을 청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불교교리’ ‘불교문화’ ‘포교방법론’ ‘<아미타경>’ ‘경전연구’ 강좌 등이 준비됐다.

 # 전북지역

전북지역에서는 8월 27일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 개강을 시작으로, 화엄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등이 강좌를 연다.

9월 1일 개강하는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은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불자들을 위한 강좌를 연다.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은 9월3일부터 매주 수 · 목 강의한다. 9월에는 한탑 스님과 일원 스님이 각각 <천수경>과 ‘불교문화’를, 10월에는 이택회 포교사가 ‘불교역사’를 강의한다. 10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학장 덕림 스님의 ‘<초발심자경문>’ 특강이 열린다. 11월 5일부터 26일까지는 김진수 포교사가 ‘포교방법론’을 강의한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 등에서는 일반인을 위한 교양강좌도 준비됐다. 9월 2일부터 고창사회복지관에서는 불교문화강좌와 중급강좌가 열리고, 한가위를 맞은 산사체험 특별 프로그램으로 9월 24~25일에는 선운사에서 ‘정현종 시인과 함께하는 꽃 무릇 시문학 템플스테이’, 10월 3~5일에는 도정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 10~12일에는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이 직접 참선지도를, 17~19일에는 전통 사찰음식 전문가인 무공 스님이 사찰음식으로 웰빙 식단을 꾸며보는 강좌를 준비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을에 개강하는 불교대학

재가 화엄학림	(062)234-2732
광주불교문화대학	(062)228-9098
광주불교대학	(062)375-7633
강진불교대학	(061)432-0837
무각사불교대학	(062)383-0107
무주불교대학	(063)322-6162
남원불교대학	(063)632-6936
전북불교대학	(063)226-7878
이리불교대학	(063)854-1578
화엄불교대학	(063)277-3497

순천 금당절 중창불사 회향법회 봉행

순천 도심 속에 자리한 금당절(주지 범일)이 현대인들을 위한 도심포교 도량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8월 14일 순천 금당절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명선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재가불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여년 금당절 중창불사를 회향하는 법회가 봉행됐다.

명선 스님은 법어에서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정성이 모아져 부처님 도량을 가꾸게 됐다. 지역민들의 큰 사표가 되는 사찰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범일 스님은 경과보고에서 “지난 10여년간 많은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도심포교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지역민들과 함께 생활 불교를 실천하는 도량으로 가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창불사를 마친 금당절은 연면적 500m² 규모 현대식 건물에 1층 선정당, 2층 법당, 3층 대중요사채로 마련됐다. 어린이, 청소년법회뿐 아니라 운전불자회를 비롯한 직장불교법회까지 다양한 법회와 다도, 요가, 명상 교실 등이 열려 순천지역 불교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이준엽 원장

불교문화운동의 ‘대부’

가슴 속에 언제나 “호남불교의 활성화”라는 화두를 참구하며 수행하는 이가 있다. 호남불교문화원 이준엽 원장이다.

“우리 마음속에 녹아있는 ‘불교문화 DNA’에 자극 주는 일을 하겠다. 할아버지 그 윗대 할머니, 또 그 윗대 선조님들이 염원하던 ‘불국정토’를 이루는 길라잡이가 되겠다.”

이준엽 원장의 말에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묻어있다. 실제로 그는 호남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활동가이다.

한국불교 재도약은 호남불교 활성화로 가능하다는 이준엽 원장은 호남불교를 ‘잠자는 사자’에 비유한다. 언젠가 깨어나 한국불교의 주역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호남불교문화원에서는 몇가지 실험적인 호남불교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중이다. 얼마 전 성황리에 끝난 남도 4교구본사 체험 템플스테이인 ‘남도 선지식을 찾아서’가 대표적 예이다. 또한 차(茶) 체험, 호남불교문화 답사 등 서울, 경기, 경상도 등 타지역 불자들이 호



“호남불교 활성화로 한국불교 재도약”

전북 남원이 고향인 이 원장은 불교학생회와 대학생불교연합회 전북지부장을 거쳐 1989년 ‘대중불교’를 시작으로 언론에 몸담기 시작했다. 이후 ‘법보신문’ ‘현대불교’ 등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전북불교대학 사무처장과 제주불교 편집국장 등 이준엽 원장의 이력에는 불교언론인이자 호남지역 불교 전문가다운 면모가 보인다.

“한국불교의 정신은 호남불교에 있습니다. 진묵, 경허, 만공, 용성, 탄허, 구산 스님 등 수많은 큰스님을 배출한 부처님 땅이 호남이지요. 부설거사 일가족이 깨침을 얻은 재가불교 산실이기도 합니다.”

남불교를 체험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고 한다. 때문에 “호남불교와 문화에 대한 궁금증은 이준엽 원장을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도 들린다.

분서갱유 때 불서(佛書)에 불붙힌 병사였을 거라던 불교출판일 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려 준 이원장은 자신도 전생에 불교를 해코지 했나 보다고 웃는다.

“그래도 부처님 심부름하며 살 수 있어 썩 괜찮은 업보라 생각합니다. 호남불교를 위하는 일이라면 마냥 신바람 나기 때문입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산삼의 효능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있다.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될 수 있지만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별도상담(자연산삼, 장뇌산삼)
▪ 100년,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 마 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석 51160-150)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9월 5일 금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 기 사 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직지축제 기간에 유등축제

청주청원불교련, 9월 5일 청주 무심천서

청주 무심천에 소망의 등(燈)을 띄우는 '무심천 유등 축제'가 9월 5일 봉행된다.

청주청원불교연합회(회장 각의)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는 '직지 축제' 기간에 무심천 유등 축제를 함께 진행해 더 많은 시민들이 불교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무심천 유등 축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 유등 공모전'을 시작으로 '유등 띄우기' '권공 및 축원' '기념 법회' '축하 공연' '경품 추천'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창작 유등 공모전'은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 주관, 청주청원불교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이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학생들의 작품은 유등 축제와 함께 전시된다. 또한 입상자에게 총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어 유등축제의 꽃인 유등 띄우기 행사는 오후 6시 30분부터 무심천변에서 진행된다. 이날 무심천에 띄울 유등은 지난 7월부터 일반 시민과 불자들이 접수했으며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축제를 위해 시민들이 접수한 유등은 접수표가 달려 있어 '권공 및 축원'시 축원문으로 사용되며, 행사 마지막에 '경품 추천'용으로도 쓰인다. 또한 이날 청주청원불교연합회는 유등을 접수한 시민 및 불자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며 일일이 축원할 예정이다.

청주청원불교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창작 유등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교문화에 친숙 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연합회는 청소년들도 아우를 수 있는 불교문화 행사를 많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옥천 대성사 베트남 끄엉사 자매결연

8월 20일 끄엉사서 사대부중 200여명과 함께



베트남 끄엉사 스님과 자매결연한 혜철 스님(가운데).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와 베트남 하노이 끄엉사(주지 팜 응옥 끄엉)는 8월 20일 끄엉사에서 하노이 사암 주지스님 및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자매 결연식 및 대법회를 봉행하고 증서를 교환했다.

두 사찰은 이 증서를 통해 "한국 불교와 베트남 불교의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한국의 불자 선남과 베트남 불자 선녀의 건전한 만남을 주선하고 원만한 한국 결혼생활과 베트남 여성의 인권과 종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간에 스님을 양국에 파견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대성사는 끄엉사에 대웅전 불사를 하고 끄엉사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한국 불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혜철 스님은 "베트남을 비롯한 국제결혼 가정의 어려움을 종교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내년 1월부터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천 대성사 다음카페(cafe.daum.net/dasungsa)를 통해 결혼한 회원은 국내 170쌍, 해외 35쌍이며 모두 5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043)732-5560

손효선 기자

"선선한 가을, 불교공부 해봐요"

충청지역 불교대학 가을 학기 신입생 모집

불교대학은 매 년 초에만 입학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불교대학의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이 있기 때문이다. 선선한 가을날, 충청 지역 불교대학에서 신심나게 불교공부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충청지역 불교대학들은 불자들에게 부처님 법을 바르게 가르쳐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다.

8월 25일부터 개강한 대전 정토불교대학(042-253-8990)은 근본불교와 불교 변천사에 대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강좌를 연다. 근본불교 강좌의 경우 불교를 배움으로써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불교 변천사 강좌는 ▲불교 역사 ▲불교 사회 ▲역사 변화에 따른 불교 변천 등이 주로 다뤄진다. 이와 함께 특별 프로그램으로 ▲환경 ▲복지 ▲통일 ▲수련 등에 관한 특강이 틈틈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주불교문화대학(043-250-6254)은 9월 1일부터 매주 월·화·수·금요일 마다 불교교리와 신행,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불교교리의 경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행오 스님(동학사 승가대학 학감)의 '원각경(圓覺經) 특강' ▲현진 스님(청주 관음사 주지)의 '불교기본교육', '불교문화' 등이 진행된다. 이어 금요일에는 지순애 한국무용가(충북불자예술인협회 회장)의 '한국무용' 강의(무료)가 이어진다.



충북불교대학의 공부 장면.

청주 충북불교대학(043-273-2159)은 9월 3일부터 가을학기 신입생 일정이 시작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강의는 ▲정법 스님(대구 지산정사 주지)의 '불교 문화' ▲중앙승가대 백영식 교수의 '불교 교리' ▲동국대 김경집 교수의 '반야심경' ▲전철호 교무처장의 '포교방법론'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학기 중에 틈틈이 성지 순례와 봉사활동, 사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함께 불교를 느끼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전 홍익불교대학(043-286-4980)에서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하며, ▲대전 노은구 영평불교대학(042-823-1882) ▲대전 선화동 만불선원(042-222-3316) ▲대전 자양동 광제사불교대학(042-627-8600) 등에서 사찰 특색에 맞는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

손효선 기자

선재봉사단 자원봉사대회서 銀 수상

상금 전액 어르신 무료급식에 사용키로

지난 6년 동안 매주 일요일 어르신들의 무료급식 자원봉사를 펼쳐온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선재봉사단(단장 신숙창·청주 주성고)이 '제10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9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 은메달과 상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서는 은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상, 금상 등이 최종 확정된다.

이번 대회에 은상 수상자로 확정된 선재봉사단 단원은 ▲류재훈(충북공고) ▲류호영(청주동중) ▲신경민(청주인터넷고) ▲안정아(청주동중) ▲연제휘(청주남중) ▲염정준(주성고) ▲이채륜(오창고) ▲장지영(주성고) ▲정상혁(주성고) ▲조현진(청주기계공고) ▲최지수(대성고) ▲황미나(금천고) 등이다.

선재봉사단은 "회원 모두가 이번 상금을 9월 첫째 주 일요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열리는 무료급식에 전액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관촉사, 광복 60주년 기념 대웅전서 행사 열려

논산 관촉사(주지 태설)가 광복절 6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 화합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논산시와 논산발전협의회, 대한가수협회 충남지회가 후원한 이날 음악회는 8월 15일 관촉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는 성진 스님(논산불교사암연합회장), 법안 스님(안심정사), 임성규 논산시장, 전유식 논산시의회 의장, 이석현 경찰서장 등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 진행된 산사음악회는 1부 산사 가요제와 2부 시민위안 공연으로 진행됐다. 1부 공연에서는 배일호, 김태곤, 일렉로즈 등이 출연해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손효선 기자



은퇴 후 자원봉사 원력 세워 단체 설립

청주·청원지역 사찰봉사단 운영 모태 돼

청주에는 불교 이름을 걸고 봉사하는 단체가 없음을 깨닫게 돼 '불교 봉사단체'를 만들게 됐다. 그 단체가 바로 '충북불교대학 용화사 봉사단'이다.

전 거사는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서 불기를 닦고, 법당을 청소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일을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불자들의 수는 많은데 그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적은 것이 불자로써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만들어진 용화사 봉사단은 활발할 활동을 통해 청주·청원시 관내 사찰들이 봉사단을 운영하게 하는 모태가 됐다.

이렇게 봉사, 신행, 포교 그 어느 하나 뒤쳐지지 않고 열심인 전철호 거사.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불교에서도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특성에 맞는 포교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각 연령층에 맞는 포교 방법을 개발해 체계적으로 포교 시스템을 구축해 놓을 것이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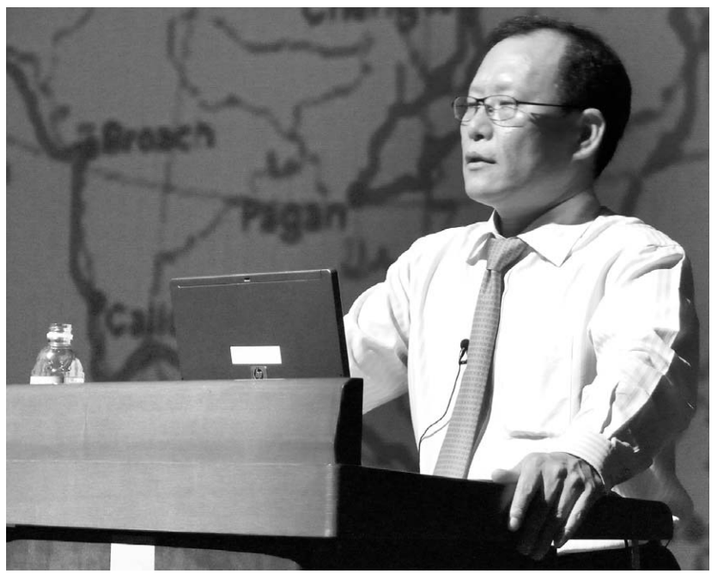
강 사 : 조성택 (고려대학교 철학과 · 불교철학)
주 최 : 한국학술진흥재단
일 시 : 2008년 8월 16일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경쟁하는 두 붓다

한국불교, 대륙과 호흡·세계 속으로…

불교의 역사적 이해④ 〈끝〉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시리즈' 아홉번째 강연을 맡은 조성택 교수(고려대)는 기존 불교학연구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전통 내의 두 구원의 존재, 즉 미륵과 아미타불과 관련된 신앙이 인도에서 어떻게 시작·형성됐고, 이러한 신앙이 중국과 한국의 지역문화에 어떻게 수용됐는지를 개관한다.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이라는 각 문화권의 독특한 특징들을 파악하고 두 구원 신앙을 통해 한국불교의 위치를 재조명한다.





 # 불교구원의 두 존재, 미륵과 아미타불

각 문화권의 미륵과 아미타불에 대한 신앙형태를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는 불교 교리 내에서 이 구원의 존재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륵불과 아미타불은 많은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미륵은 불교가 상정하고 있는 삼계(욕계·색계·무색계)중 욕계 육천의 하나인 도솔천(兜率天)에 살면서 지상에 붓다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보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신성한 실체가 특정한 시기에 이 땅에 나타나는 유사-역사적인 존재(quasi-historical)입니다.

불교도들은 보통 미륵이 먼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혁명과 관련될 경우 미륵의 '하생'은 임박한 것으로 믿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혁명 지도자들은 종종 자신이 미륵의 현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아미타불은 정토(淨土, Sukhāvatī), 즉 불국토에 머무르고 있는 부처가 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는 신성함이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넘어선 차원에서 실현되는 초역사적 존재입니다.

 #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아미타불과 미륵

우선 미륵과 도솔천을 살펴보면 대승과 소승을 통틀어 미륵신앙보다 복합적이고 불분명한 기원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래의 붓다로서 미륵을 인정하고 있는 다양한 문헌자료들은 너무나 단편적인데다, 보통 상호 모순적이어서 불교사 내에서 '미륵'의 개념과 미륵신앙의 발전모습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승과 상좌부의 자료들이 미륵신앙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 내 미륵신앙이 생겨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며 미륵신앙은 그의 거처가 도솔천으로 결정된 이후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미륵신앙이 후대에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등지에서 누렸던 인기에 비해 인도에서 더디게 발달한 이유는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도 불교도에게 도솔천은 이상적인 재생 장소가 아니었다. 도솔천은 불교 우주관에서 가장 낮은 영역인 욕계에 속해 있으며, 미래의 부처는 인간세계와 가깝다는 이유로 그곳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석가모니 붓다가 활동하던 시기와 비교적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던 인도불교도들에게는 미륵은 매력적이지 않았다.

셋째는 미륵과 관련된 신앙은 그 당시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법과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는 붓다의 유훈에서와 같이 미륵신앙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륵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후대가 되어서야 인기를 누릴 수 있었고, 오히려 '본고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특히 인도와 이란의 접경지대에서 수많은 미륵상을 볼 수 있듯이 이 지역에서 미륵신앙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아미타불신앙은 인도 거의 모든 대승 전통의 출가자들에게도 타당한 종교목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에 입각해 우리는 인도 대승불교의 정토 개념 그리고 인도불교의 구원론적 지향점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인도에서 아미타불은 신앙대상으로 발전하지 않았고 정토는 그곳에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곳이었다. 오직 정토는 아미타불, 도솔천은 미륵과 연관돼 있다는 중국불교 전통과 상반된다.

둘째, 출가중심 전통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경시했지만, 정토는 승려들에게도 합리적인 목표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는 멸법에 대한 관념과 관련 있을 수도 있다.

셋째, 아미타불신앙과 미륵신앙이 경쟁관계였다는 증거는 없다.

 # 중국에서의 두 부처

불교가 처음 중국에 소개됐을 때, 당시 중국북방을 점령하고 있던 유목민족과 남쪽의 한족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방유목민족은 불교에 우호적이었습니다. 특히 북방유목민들의 왕은 불교가 자신이 원하는 관심사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교의 업설은 한족에 의해 무시당하던 유목민의 '선출제 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륵과 전륜성왕 개념은 당시 그들의 중국북방 침입과 정복을 정당화해 줄 수 있었습니다. 유목민의 왕들은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미륵신앙과 함께 한국과 같은 다른 지역으로까지 전파했습니다.

반면 한족은 불교가 유교적 사회질서에 기반을 둔 자신들의 고유한 풍속과 달랐기 때문에 불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교의 출가전통과 금욕수행은 가족의 혈연적 유대와 그들의 조상숭배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족의 중국은 북방유목민의 침입으로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에서는 혼란기인 남북조시대에서야 불교가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남북조시대가 막을 내린 수나라 통일 초기 미륵과 아미타불신앙은 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남조에서 각광받았던 미륵신앙이 쇠퇴하고 아미타불신앙이 선호받게 됩니다.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통일정권에서 이땅에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 미륵불은 정권불안정을 초래했고, 둘째는 통일된 이후 다시 찾게된 옛 땅에서 아미타불 신앙이 조상제사 등 유교전통과 사후영생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 미륵신앙과 아미타불신앙은 정권과 민족적 차이로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 자리잡습니다.

 # 한국불교, 미륵과 아미타의 통합-노힐부득과 달달박박

한국불교는 이런 중국불교문화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혀 아닙니다. 한국에는 북방유목민족의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처음부터 미륵신앙이 강조됐음을 의미합니다. 북방유목민족의 왕들이 미륵신앙이 갖는 정치적 효과에 끌렸던 것처럼 한반도의 왕조들 또한 새로운 종교로 나라를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특히 신라 화랑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땅에 온 미륵이 있고 바로 여기가 불국토라고 믿었습니다.

중국에서 미륵신앙이 가라앉고 아미타불신앙이 떠오를 때,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미타불신앙이 대부분 자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미륵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때서야 중국 아미타불신앙에 영향을 받아 미륵신앙과 아미타불신앙이 혼재해 자리잡게 됩니다. 이는 삼국유사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설화에 잘 나타납니다. 노힐부득(미륵불)과 달달박박(아미타불)이 부처가 된 자리에 신라사람들은 절을 짓게 되고 미륵불과 아미타불을 함께 모시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불교에서는 미륵신앙과 아미타불신앙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공존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미륵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까닭은 천상에 대한 토착적인 믿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한국의 건국신화는 천제 혹은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이라는 존재가 하늘로부터 강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화의 골격이 재림할 부처인 미륵불과 유사하게 융합됨으로서 한국의 불교인들은 한반도가 과거 '불국토'였으며 미래불인 미륵의 '불국토'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의 종교적 감수성을 형성해온 '하늘'에 대한 깊은 믿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한국불교를 중국불교와 구별시키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문화 발달에 영향을 미친 외래요소들을 고려할 때 중국기원에 비해 비중국적기원이 종종 평가절하 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는 15세기 이후 한국역사상 중대한 역할을 해온 강력한 유교전통의 잔재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기원을 중시하는 편견은 불교학 연구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비중국적인 문화요소가 한국불교에 있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의 한국유입은 중국의 북방유목민족과 한반도 사이의 문화교류의 일환이었습니다. 한국학과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학계가 오로지 중국자료에 기초하고 있는 문헌적 전통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러한 비중국계문화와의 연관성에 보다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의 틀에 메여있는 한국은 중국이 세계와 차단되면 자동적으로 세계에서 고립된 섬이 됐습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벗어나 대륙과 호흡하는 한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국불교를 중국적 틀에 싸여있는 동아시아의 문화권에서 벗어나 세계 문화권속에서 재조명해야합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모집 불교문화원 범음·범패, 불화, 단청 신입생 모집

제방의 사암에서 수행정진과 전법도생에 여념이 없으신 출가 수행승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의 법체청안 하옵기를 축수기원 합니다.
금번 본 불교문화원에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50호인 영산재 의식과 48호인 불화. 단청 부문의 강좌를 개설하여 뜻있는 스님들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을 모실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범음범패과≫ 1년과정 (4학기제)
- 초급반 : 사물. 도량석. 조석예불및 종성. 각종불공
- 중급반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중단권공. 관음시식

※공 통
소 리 : 종성. 거불. 복청게. 천수태징타법. 도량게. 헌좌게. 가영. 향수나열
바 라 : 요잡. 천수바라. 사다라니. 화의재바라
나비춤 : 도량게. 다게

- 개강일시 : 2008년 9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매주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수업)
- 수 업 료 : 입학금 10만원, 매학기(3개월) 30만원
- 특 전 : (1) 매년 1~2차례 봉원사 영산재 보유자 초청특강, (2) 장학생 수업료 면제, (3) 수료후 각종 행사 지원알선
- 강 사 : 준범스님(봉원사 옥천범음대 출신)

≪불화.단청과≫
- 초 급 반 : 불교기초이론. 시왕초 등선긋기. 뎃생실기. 문양그리기. 채색법
- 중 급 반 : 시왕. 여래. 보살. 사천왕 그리기 완성
- 고 급 반 : 각종 소품 및 탱화제작
- 연 구 반 : 단청문양. 불상개금. 달마도연구
- 개강일시 : 연중 수시모집
- 수 업 료 : 입학금 5만원. 매월 5만원
- 특 전 : 신심돈독한 성적우수자는 전문가로 양성.
- 강 사 : 영범스님(30년 경력의 불화작가)
- 다음카페 : '불화교실' 운영

한국불교태고종대구교구 종무원 부설 불교문화원
문의처 053)622-3702 / H·P 011-814-0648

학 인 모 집

영남 범패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7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안 내

- 입교일시 : **2008년 8월 28일(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관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일반불공의식 및 재의식
  1.각종 불공 및 재의식 2.사물 다루는 법 3.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 한 출가 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교재비 별도)
- 수 강 일 : 매주 월,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서진주 I.C에서 5분거리)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보세요.
- 문의전화 : 055)747-8419 / 011-867-8419(원장 원명스님)

영 남 범 패 불 음 원

불서읽기 캠페인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조립식 보리수나무 조하형 지음|문학과지성사 펴냄 | 1만원

해체된 낙산사에서 잃은 자아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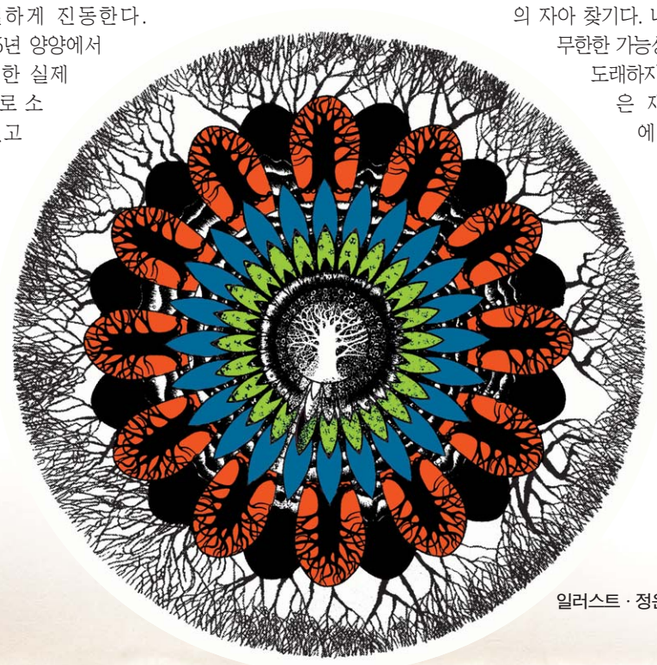
일상을 뒤흔드는 논리학의 폐허들을 재결합한 재난 시뮬레이션 소설이다.

'현재 지금 여기의 삶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비로소 몸의 공간을 자유롭게 비행하리라.' <조립식 보리수나무>는 불과 모래의 재난을 주제로 파국의 결말을 예감한다. 지금이 아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존재의 고민에 휩싸인 인물들이 강원도 낙산사로 향하면서 소설은 시작된다.

원통보전의 건칠관세음보살(보물 제1362호) 위신력은 어찌된 것인가. 이미 세 번이나 불타 사라진 '낙산사는 불타지 않는다'는 모순 속에서 혼란스럽다. 과거의 흉터에 상처를 덧입히며 죽기 위해 살아가던 이들에게 죽음은 절망의 해결책이 아닌 과정으로 여겨진다.

지우고 싶은 기억으로 넘쳐나는 과거를 지닌 이들이 있다. 과거에 짓눌린 현재가 작동하는 한 지배하는 기억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쏟아지는 모래 빗속에서 화재의 기억을 안은 채 살아가던 이들이 낙산사에서 만난다. 부처의 고행과 같이 각자의 사막을 떠돌다 서서히 절망을 극복하며 실마리를 찾아간다.

'오래된 녹차처럼 비릿한 산불 연기 맛' '파충류의 등뼈를 닮은 홍련암으로 가는 길' '검은 연기로 풀려나가는 금단청' '촛농처럼 흘러내리는 범종의 법의.' 뒤틀린 언어로 표현된 화마에 휩싸인 낙산사는 격렬하게 진동한다. 2005년 양양에서 발생한 실제 산불로 소실됐고 3년 만에 복원된 낙산사는 오온(五蘊)이 이합집산(離合集散)하듯 윤회 전생했기에 고정된실체가 아닌 과정으로 온전한 것이다.



일러스트 · 정은경

이들의 낙산사 찾기는 일종의 자아 찾기다. 나의 무한한 가능성과 도래하지 않은 재난에 대한 공포는 대안의 본질을 더욱 또렷이 한다. 인간의 불행이 극대화된 미래상에서 이상향 찾기는 절망을 절망으로 극복하며 삶을 통찰한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원통보전 둘레를 서성일 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고요한 폭력은 질문의 무게로 무너지며 무릎을 꿇는다. 엉덩이를 붙이지 않고 일어선 장궤 자세로 응시한다.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낙산사는 모래 밀물에 휩쓸리고 자아는 허물어진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미래를 탈역사 · 탈일상적인 시공간으로 재구성 한 조하형의 두 번째 장편소설이다. <조립식 보리수나무>는 제1부 짝수 장, 또 하나의 제1부 홀수 장이라는 남다른 구성으로 시간을 분리하고 반복하며 왜곡시킨다. 상상력이 재구성한 역사와 실제의 경계 허물기 사이에서 현재는 뒤틀리고 변형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구도의 철학가가 헤아린 空



불심초(佛心草)
소흥렬 지음|호미 펴냄 | 9000원

절집 밖을 서성이던 철학자가 붓다를 만나기 위해 길을 걷는다.

붓다를 찾아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나눈 대화를 헤아리는데 여덟 해가 지났다. <불심초(佛心草)>는 붓다를 더 가까이에서, 좀 더 다양한 붓다와 만나고자 하는 서원의 흔적을 소설로 탐구하고 철학적으로 되뇐 붓다의 길이다.

논리는 진리에 이르는 방편일 뿐 제한된 논리는 무명의 원인이 된다. 서양철학에서 소크라테스의 논리를 터득한 저자가 붓다와 대면한다. 일흔 살의 철학자는 여든 살에 열반한 붓다와의 만남을 적어도 십 년쯤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행복으로 평온하다. 붓다를 만나는 길이 마음의 논리로 정진하는 길이라면 시공간의 관리는 수행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아는 까닭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삼십대 젊은이가 수행한 역사지만,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은 여든 노인이 되기까지 갈고 닦은 지혜지요. 지혜는 사람을 차분하게 하면서 중용의 도를 선택하게 하는 반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은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극단까지 나아가게 하지요."

중국 신강성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자는 스님과 대화를 나눈다. 우주의 마음인 '공(空)'과 법을 몸으로 입은 인간이 바로 석가모니 붓다라고 말한다. 우주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이며 그 마음이 바로 불심인 것이다. 차창 밖으로 느릿느릿 지나는 단조로운 풍경 속에서 붓다를 찾아가는 길, 내가 선택한 나 홀로의 길이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3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4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	정명	불교정신문화원
5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6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7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8	인연	정찬주	작가정신
9	진언 다라니 수행 입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10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오룡골에서 전하는 희망의 정토가



오룡골에는 여자가 없다
정목 지음
자연과인문 펴냄 | 1만2000원

'혼탁한 세상에서 마지막 희망은 염불이다.'

경남 양산 오룡산 깊은 산중에서 홀로 염불 정진하시는 정목 스님(정토원 주지)의 수필집이다. 원효 대사의 '일체 경계는 일심'이라는 정토 사상을 염불과 결합해 구도의 메시지를 전한다. '헤아린 지식보다 순수한 감정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저자의 서언처럼 스님의 삶이 그려내는 정토의 구현은 본래 순수한 청정의 마음자리로 안내한다.

<오룡골에는 여자가 없다>는 것은 남녀차별의 분별심이 없는 정토이기에 가능하다. 통도사에서 자장 율사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도망왔다는 다섯 마리 용이 산다는 오룡산. 산 언덕 아담한 기암 사이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주목나무와 인내를 상징하는 매화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스님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낮에 지게를 지고 밭에서 일하는 모습은 천상 농부다. 불시에 정토원을 방문한 범어사 주지스님과 나눈 환담은 경외의 대상이 아닌 우리 곁의 다정한 이웃이다. 스님은 밤이 되면 치열한 수행의 불씨를 피운다. 원효 스님의 <무량수경종요>를 비롯한 정토 사상과 염불 관련 저술서를 번역한다.

스님은 이 시대를 두고 '형식이 실질을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한다. 고정관념을 깨야하는 불교가 허위허식에 휩싸여 있는 현실을 염려한다. '아미타불' 명호에 담긴 진실한 믿음으로 용맹정진하는 희망의 '정토가(淨土歌)'를 들어보자.

가연숙 기자

한국의 정신 · 문화 세계에 심기



'이순신' '세종대왕'
금강경독송회 기획|BM북스 펴냄 | 각권 6000원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원효 스님 등 우리나라의 위인과 국보 및 보물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32만부 이상의 보급용 책자를 발행한 금강경독송회가 일반 서점 판매용 영문 책자를 보급한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 시리즈를 기획한 금강경독송회는 보급용 보다 훨씬 정제되고 일기 쉽게 편집된 서점용 도서를 통해 한국문화 알리기 사업을 배가한다는 계획이다.

일차발행된 <이순신 전기>는 장군의 생애를 통해 애국애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시리즈의 두 번째는 <세종대왕>. '한글창제'라는 대업을 이루고 민생의 풍요와 인륜에 대한 국가 기반 구축에 힘썼던 군주의 생애와 업적들을 세밀하게 정리했다.

임연태 기자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봉 해동불교무량종 행
종 도 모 집
해동불교무량종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자각, 계송,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바탕으로 상구보리하화중생의 보살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 속의 적극적인 포교를 종지로 합니다
· 총재 및 조실 : 김정일 (법일 대종사)
· 종정 대행 총무원장 : 학성 (무량 대종사)
· 중앙고시법계위원장 : 박찬옥 (춘파 종사)
· 중앙교육원장 : 신원식 (도우 종사)
· 중앙포교원장 : 이광춘 (혜엄스님)
· 중앙사정원장 : 김광윤 (성일스님)
· 비 서 실 장 : 조종훈 (광원스님)
학성 (무량 대종사)
◆ 사암등록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소정양식 1통
· 승려, 교임, 전법사 신고서 1통 · 명함판 사진 7매
(재)해동불교무량종
총본산 :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1구 10번지 무량사
전화 061)683-7147 / 010-3114-4074
※입종시 사암등록증과 주지임명장과 법계증서, 수료증서, 승려증을 드립니다.

(株)天星建設
석 · 납골당 석 · 굴법당 전문
석 · 납골당 조성공사
석 · 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 · 축대 및 보수공사
석 · 저장실, 보관실(과일)
석 · 까다로운 석 · 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밤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향원

세종의 시대와 오늘의 닮은꼴 찾기


세종대왕영정.



대왕 세종(전3권)
이상우 지음|집사재 펴냄/각권9800원

태평성대는 있는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근접해 있을까? 우문(愚問)이다. 태평성대는커녕 날마다 '민생고'의 아우성이 들끓는다. 고유가 시대, 부동산과 건설경기 침체, 각종 세금인상, 소비자물가의 폭등 거기에 종교편향까지….

과거 민생의 고통이 없던 시절은 있었을까?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세상은 욕망에 의해 지속되고 욕망이란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집착과 불만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욕망의 억제 그리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해탈이라고 한다. 진정한 태평성대란 그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두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대일 것이다. 그래서 진짜 태평성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중생계가 온전히 불국토가 되기 전에는.

#실용정책과 태평성대의 함수관계

조선왕조에서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의 시대는 어땠을까? 한글창제와 측우기와 천문학 관측기구, 농사를 위한 각종 계측 기구의 개발 등 '실용'이 빛난 그 시대는 과연 태평하고 성대했을까? 물론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걸출한 제왕을 중심으로 제도의 변혁과 민생에 용이한 신문물을 꿈꾸었던 제도권의 몸부림이 낳은 결과는 찬란했지만, 동시대의 가치관과 풍습 그리고 민생은 하루아침에 행복해지지 않았다.

아무리 성공한 혁명이라 해도 이면의 고통은 역사의 그림자로 남는 법인데 성군 세종의 시대라고 해서 부정과 부패, 민생의 고통이 없었을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흔적에서 오늘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욕망이 사라지지 않은 중생계이긴 마찬가지겠지만 일련의 기록들은 어쩌면 오늘날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다.

언론인이자 작가인 이상우씨가 내 놓은 장편역사소설 <대왕 세종>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종 때의 일들을 맑은 창밖의 일처럼 자세하게 전해준다. 소설에서 드러나는 숱한 스토리들이 '실록'을 비롯한 사료에 입각한 것이기에 현실감을 더한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기치는 '실용'이다. 세종도 목하 '실용'을 위해 왕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각오였다. 한글창제와 농사관련 각종 계측 체계와 기구의 제작, 측우기 등 기상관측 기구의 발명과 천문학에 대한 깊은 연구 등등. 그의 실용이 오늘의 실용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지향점의 문제이고 일관성의 문제다. 세종의 실용은 철저히 '어린백성'을 향해 있었다. 그때라고 해서 '대국'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큰 충성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국'을 섬기는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실용은 대국을 초월해 펼쳐졌고 뿌리를 내렸다.

#영토문제의 해법 원동력은 '자부심'

영토의 문제도 닮아 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 이래로 멀찍하게 우리 땅이었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을 향해 조마조마하게 대응하고 있다. 세종은 집권 초기에 남으로는 대마도를 정벌했고 북으로는 김종서의 지휘 하에 6진을 개척해 옛 고려의 영토까지 팽창해 나가는 꿈을 펼쳤다. 자국의 영토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애착이 북방의 고토를 되찾는 원동력이었다. 소설 <대왕 세종>에서는 그 과정이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깔고 있다. 화적패의 여자 두목 홍득희의 활약상이 부각되면서 세종이 고뇌했던 신분해방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성인 석가모니가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누대의 계급제도(사성제도)를 부정하고 인간 평등 선언을 했다는 것을 부러워하는 세종의 모습에서 진짜 실용이 뭔가를 절실하게 보여준다.

#쇠고기와 종교 문제, 그리고 어학바람

올 상반기 우리나라는 '쇠고기 문제'로 들끓었다. 지금도 식지 않은 그 문제. 경우는 다르지만 세종 때에도 '쇠고기 문제'가 있었다. 당시의 농경사회에서 소는 절대적인 자산이었다. 그래서 도축이 금지될 수밖에 없었지만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도살이 횡행했다. 세종은 농사 의존도가 낮은 산악이나 북방의 유목민들에게는 융통성 있게 소의 도축을 허용함으로 관대함의 가치를 보여 주었다. 소설을 읽는 동안 독자는, 대신들의 무작정적인 반대와 세종의 형편에 따른 정책조율의 대비가 왠지 낯설지 않음을 느낄 것이다.

그 때도 어학 바람이 불었었다. 백성들을 위한 '나랏말' 창제에 강한 의욕을 가졌던 세종이 오랑케의 말이라도 깊이 연구하여 그 쓰임이 편리하고 효용적이라면 받아 들여야 한다고 일장 연설을 한 뒤 집현전을 중심으로 어학열풍이 불었던 것이다. 집현전에 스님들이 들어와 범어를 가르치고 여진의 평민들이 들어와 원어민 교사 노릇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 때에 지금 불교계를 분노하게 하는 종교편향도 있었을까? 굳이 지금의 개념과 같은 편향은 아닐지라도 종교로 인한 갈등은 있었다. 조선의 국시가 숭유이니 자연 억불정책이 정론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종의 형 효령대군이 승려나 진배없는 생활을 하며 세종에게 '불씨(佛氏)'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것이나 왕비나 궁녀들이 불가로 귀의하는 대목들이 심심찮게 분출된다. 불교와 유교 사이에 앉은 왕의 고민과 대신들의 강경한 척불론들이 세종대에 적지 않은 이슈였던 것이다.

역사는 윤회다. 500여 년 전의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오늘로 이어져 있고 오늘의 모든 일들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소설 <대왕 세종>은 세종의 시대에 일어난 왕과 민초들의 고민과 애환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
도법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 1만5000원

"온 우리의 생명 행복 하길"



'눈 내리는 한 밤중에 진리의 스승은 말씀하셨네. 내가 밝힌 생명평화의 등불로 온 누리의 생명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원하라.'

생명평화의 벗에게 존재 실상의 근본이 되는 공생의 나눔을 전해온 도법 스님(사진)의 탁발순례기이다.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정체를 찾고자 18세에 출가한 이후 구도의 길을 걸으며 그 실상은 보편적인 문제임을 알았다. 스님의 화두는 너나없이 풀어야 할 삶의 과제였던 것이다.

스님이 생명평화탁발순례를 펼친 지도 다섯 해가 되어 간다. 한국 불교 개혁과 생명평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도법 스님'이 첫 손에 꼽힌다.

도법 스님은 "국가 · 종교 · 이념 · 정의 · 불의 · 선함 따위의 인위적인 관념이 만들어진 이후 '나는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인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중중무진(重重無盡)한 불일불이(不一不二)의 끊임없는 연기관계, 인드라망에 있다"고 말한다.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중생이 자연과 우주의 어울림 속에 공존하는 이미지(생명평화 로고)를 구현한다.

스님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피의자는 종교계"라고 말한다. 올바른 방향을 중심에서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의 현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진리를 펴는 정법인 것이다.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은 '생명평화경(經)'이고자 한다. 불교의 세계관과 철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100가지 문안을 제안한다.

부록으로 함께하는 '백대서원문'과 'CD'를 활용해 절 명상을 할 수 있다. 메시지를 듣고 음미하면서 인드라망 연기관과 자비행으로 상생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취지다.

생명평화의 시작은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이다. 온전한 내 삶이 이웃과 세상으로 퍼져 나아갈 때 자기완성과 더불어 사회완성을 실현하는 무애자재한 삶이라고 전한다.

생명평화의 벗에게 존재 실상 공생의 나눔 전해
'100대 서원문' 절명상용 CD등 실천의 길 제공

가연숙 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백프로보안 전등록 전5권 / 백프로보안 무문관 / 백프로보안 벽암록 / 백프로보안 천부경 / 백프로보안 금강경
백프로보안 신심명 / 백프로보안 증도가 / 백프로보안 반야심경 / 백프로보안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백프로보안 환단고기 전5권 / 백프로보안 법융선사 심명 / 백프로보안 선가귀감 / 백프로보안 법성게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삼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 책은 지혜 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재조명하여 보인 것입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달다



대원 선사님과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섬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 달다 〉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78대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마음, 그대의 주인이자 주재자

오늘의 禪語 ㉜ 무위진인

시간 공간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인
'마음이 곧 부처' 아는 순간 깨달은 것

'무위진인(無位眞人)'은 '아무런 지위가 없는 사람이 참사람'이라는 뜻으로 중국의 유명한 선승 임제 선사(?~867)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임제 선사가 법상에 올라가 대중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적육단(赤肉團) 위에 한 무위진인(一無位眞人)이 있다. 그는 항상 그대들의 면전(面前)으로 출입하고 있다.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직접 확인하라."(임제록 3칙)

'적육단'은 '붉은 고깃덩어리'라는 뜻으로 육체를 가리킵니다. '무위(無位)'는 '일정한 위치나 맡고 있는 지위가 없다'는 뜻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을 가리킵니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맡은 바가 있다면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직책이나 고집하는 바가 없으면 해탈한 사람입니다. '진인(眞人)'은 '참사람'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법신 · 불성 · 본래면목 등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데 깨달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면문(面門)'은 얼굴을 가리킵니다.

이상은 글자 해석인데 그 뜻은 "너의 육체 속에 무애/자재한 참 사람(無位眞人;법신 · 불성 · 진리 · 부처)이 있다. 항상 그대의 얼굴로 들낙날락거리고 있는데, 아직 그 참사람을 보지 못한 사람은 똑똑히 보고 똑똑히 보라"는 뜻입니다.

'진인'이나 '무위진인'은 <장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용어는 도가적이지만 뜻은 불교적 진리인 부처 · 진여 · 법성 · 불성 · 법신 · 마음 · 주인공 · 본래면목 등을 가리킵니다. 즉 깨달은, 무애자재한, 해탈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비록 표현은 인격화되어 있지만 어떤 인격체 보다는 진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부처, 즉 그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진인(眞人=眞如法身, 불성)이 항상 그대의 면문(얼굴)으로 출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몸속에 주재자나 아트만 같은 것이 있으므로 확인해 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음' 즉 그대의 주재자이자 육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청정한 마음을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실체를 안다면,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대는 깨달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종잡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칭찬해도 좋아하고 비판 · 충고하면 분노합니다. 마음은 분명 자기 것이지만 뜻대로 잘 통제되지 않습니다. 또 마음은 형체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엄연히 그대의 주인이고 주재자입니다. 바로 <장자>에서 말하고 있고 임제 선사가 말하는 '무위진인'입니다.

임제 선사는 진여 · 법신 · 법성 · 불성 · 부처, 그리고 깨달은 자를 <장자>에 나오는 무위진인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도록 도가적 용어에 익숙해 있는 중국인들에게 진여 · 법성 · 법신 · 불성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이미지화 되어 있는 '무위진인'이라는 말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장자>는 '진인(眞人)'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진인은 생활이 풍성해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역경이 다가와도 싫어하지 않았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기뻐 날뛰지 않았고, 죽음이 당도해도 거부하지 않았다. 유연히 왔다가 유연히 떠나갈 뿐이다." "진정한 진인은 잠을 자도 꿈이 없고 잠에서 깨어나도 근심이 없다."(<장자> 대종사편).

우리는 근심 · 걱정 등 번뇌 망상에 시달리다 보면 낮에는 물론 밤에 꿈속에서도 고역을 당합니다. 번뇌가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 꿈은 모두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꿈을 사실로 여겨서 좋은 꿈을 꾸면 좋아하고 나쁜 꿈을 꾸면 하루 종일 불안해합니다.

중생의 어리석음은 꿈도 사실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현실을 모두 허망한 것으로 보라는 말이 어떻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갔겠습니까?

진인이나 무위진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인(부처)을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열반하셨지만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옹 큰스님은 만년에 본격적으로 '참 사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참 사람'이 바로 '진인(眞人)' '무위진인'입니다. 진인은 '깨달은 자'이고 '부처'입니다.

진리는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체득한 사람도 구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위진인'이라야 합니다. 번뇌와 무상과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구속받는다면 아직 중생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 무위진인이 아닙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편안할 때도 번잡할 때도 순일 이루어야

㉜유도파 여인

인절미 굽는 도중 홀연히 화두 관문 타파
참선 공부 오로지 마음으로 지어가는 것

당나라 때 위앙종의 창시자인 위산영우(771~853) 선사가 어느 날 상당(上堂)법문을 했다.

"사람마다 각자 모양 없는 참사람(眞人: 불성을 상징)이 있어서 항상 면전(面前)에 출입자재(出入自在)하는데, 지금 여기 모인 대중은 이를 보느냐?"

대중 가운데 한 청신녀(淸信女)가 이 법문을 듣고서, '사람마다 모양 없는 참사람이 있어서 일상생활 가운데 쓰고 있다는데, 나는 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고?' 하는 분심(憤心)이 일어 자나 깨나 의심하고 참구했다. 그녀는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워 시골 장터에서 인절미를 구워 팔며 살았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더욱 더 깊이 화두 일념을 지어갔다.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간절하게 골수에 사무치도록 공부한 결과, 하루는 그녀가 인절미를 굽는 도중에 홀연히 화두 관문(關門)이 타파되어 모양 없는 참사람을 깨달았다. 너무나 기뻐 인절미 소쿠리를 팽개쳐 버리고 위산 선사를 찾아가니, 선사가 벌써 간파(看破)하고 질문했다.

"어떤 것이 모양 없는 참사람이냐?"

"머리는 셋이요, 팔은 여섯 가진 큰 장사가(三頭六臂大力將) 한 주먹으로 태화산을 쳐부숨에(一拳擊破太和山) 천겹 만겹의 태화산이 두 동강이 나니(分破和山千萬重) 만 년이나 흐르는 물은 봄을 알지 못하더라(萬年流水不知春)."

보살이 이렇게 깨달은 경지를 이르자, 위산 선사는 "그대가 바로 알았느니라"하고 인가(印可)했다.

이 청신녀가 바로 유도파(兪道婆) 또는 유도파(有道婆)였다. 이름이라기보다는 별호가 더 유명해져 뒷날 그대로 이름이 되어버린 경우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도에 응답한 노파' 또는 '도가 있는 여인네' 정도일 것이다.

유도파는 임제종 양기파의 낭야계(琅耶 啓) 선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선림에 전해져 온다.

<나호야록(羅湖野綠)>에는 다음과 같은 구도기가 보인다.

시장에서 인절미 장사를 하던 유도파가 어느 날, 거지가 부르는 연화악(連華樂)을 듣게 되었다.

"유의(柳毅: 용왕의 딸을 구해준 후 결혼했다는 사람)가 편지를 전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로 동정호에 왔느냐?"

유도파가 이 노래를 듣고 홀연히 느낀 바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껄껄 웃으며 인절미를 던져 버리니, 시장의 아이들이 앞다퉈 주어 갔다.

남편이 "당신 미쳤어?" 하고 화를 내는데,

그녀는 손뼉을 치며 "당신이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오" 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유도파는 스님들을 만나면 으레 시험해 보았다.

하루는 한 스님이 문앞을 지나가는데 유도파가 갑자기 "아가야!" 하고 불러 세웠다.

그러자 그 스님이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있소?" 라고 대꾸했다.

이에 유도파가 몸을 돌려 노주(露柱: 건물의 기둥)에 절을 하니,

그 스님은 노파를 차서 넘어뜨리고 말했다.

"대단한 데가 조금 있다고 생각했지…."

뒷날, 유도파가 또 다른 한 스님을 보고 물었다.

"스님은 어디서 왔소?"

"오조사(五祖寺)에서 왔습니다."

"오조사 노스님도 내 아이다."

"할머니는 누구의 아이오?"

"이 노파가 스님 묻는 말에 선 채로 오줌 싸겠소."

이렇듯 시끌벅적한 시장에서 장사하며 살던 여인네가 화두 관문을 뚫어 일대사(一大事)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참선 공부가 오로지 마음으로 지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요한 곳과 시끄러운 곳, 승속, 남녀, 어떠한 형상과도 무관한 것이 이 참선법이다. 고인들은 고요한 데서 공부를 익히는 것보다 시끄러운 가운데서 익히면 그 힘이 몇 배나 더 수승(殊勝)하다고 했다. 참선은 이로움과 쇠멸함과 헐뜯음과 예찬함과 칭송함과 나무람과 괴로움과 즐거움의 여덟 가지 경계(八風)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공부로서, 편안하고 고요한 때만이 아니라 번잡한 환경속에서도 순일(純一)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신심명 강좌=**반나라마 사띠스쿨이 다보산 반나라마에서 8월 29~31일 <신심명(信心銘)>을 주제로 제4기 SUTTA WORKSHOP을 개최한다. 29일 오후 3시 시작되는 이번 워크숍은 붓다팔라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서 <신심명>을 지도한다. 동참금은 10만원. (055)331-2841

●**호두마을위빠사나 명상센터 9월 주말수행=**천안 호두마을 위빠사나 명상센터는 9월에는 주말수행 프로그램만 운영한다. 5~7일, 13~15일, 19~21일, 26~28일 능혜 스님의 지도로 2박3일간 주말수행 프로그램이 열린다. 동참금은 6만원이다. (041)567-2842

●**보리수선원 9월 수행=**서울 보리수선원이 제113차 수행을 9월 15~20일 개최한다. 수행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30분, 오후 7시 30분에서 9시 30분이다. 제113차 집중 수행은 13~20일 열린다. 매월 둘째 넷째 금~일요일 진행되는 자율 주말 수행은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산행을 겸한 직장인 수행 프로그램이다. (02)517-2841

●**신심명 설법=**우곡선원이 8월 28일 부산선원(051-740-6288) 정기법회에서부터 <신심명> 설법법회를 개최한다. 우곡 선사가 설법하는 <신심명>법회는 9월 2일부터 일산선원(031-975-3127)에서도 시작된다.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내몸내가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多注氣) 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수치의 비밀 ◆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8. 23(토) 오전 9시 ~ 8. 24(일) 오후 1시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선착순 12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한국불교는 한국인 스스로 세워야”



약산 스님 (통도사 취운선원장)

1940년 生. 1955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1961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방선원에서 50여 안거를 성만하고 1984~1990년 통도사 보광선원장, 1994년 통도사 강주, 1999~2001년 영축총림 통도사 부방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통도사 취운선원장을 맡고 있다.





약산 “어찌 개에게 불성이 없겠습니까?”
설봉 “인마, 개가 아니라 너에게 없다”

여름의 솔밭은 그다지 뜨겁지도 않았고 간간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쉬어가기에 좋았다. 한 스님이 솔밭에서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이사를 가는 긴 행렬을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두 발로 개미들을 깔아뭉개고 있었다. 순식간에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약산 스님이 “왜 죽입니까?”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 스님이 태연하게 답했다.

“불생불멸이라 했는데 태어남이 어디 있으며, 무슨 죽음이 있는가? 수좌는 아직 아무 것도 모르는구만?”

‘이 뭣고’ 화두를 들고 있던 열여덟 살의 약산 스님은 이 말에 화두를 깨쳤다. ‘나의 진성 자체가 불생불멸이어서 항상 있는 것임을 깨달았으며, 내 몸뚱이를 끌고 가는 주인공을 알겠더라’는 말을 덧붙였다. 설봉 스님에게로 달려가 자신이 깨친 것을 내보였더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다. 단지 ‘이 뭣고’로 계속 공부하면 진보성이 없다면서 조주 무(無)자 화두를 주셨다.

약산 스님은 어릴 때부터 서당에서 소학, 대학을 공부하고 논어, 맹자를 익혔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 세상에서 도인(道人)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으며 절에 가면 많은 도인을 만날 수 있음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꼭 도인이 되고 싶었던 열두 살 어린 소년은 집을 떠나 통도사로 출가했다. 통도사에서 행자생활을 마친 스님은 범어사에 공부 많이 한 동산 스님이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 길로 범어사로 갔다. 그곳에서 설봉 스님을 만나 선을 익히게 되었다. 약산 스님은 이제까지 설봉 스님만큼 선지를 지니신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서 지금도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스승님이 그립다고 토로했다.

약산 스님은 무자화두를 받고 나서 매일 같이 설봉 스님의 물음과 닦달을 받아야 했다. 시원한 답도 하지 못한 채 그럭저럭 일 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약산 스님이 조금은 볼멘소리로 “어찌 개에게만 불성이 없겠습니까?” 하고 반문했다. 그러자 설봉 스님께서 “인마, 개가 불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니가 없다”라고 꾸짖었다. 설봉 스님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불시에 깨달았다. 이십대에 화두를 깨쳐버린 약산 스님을 두고 설봉 스님은 ‘너는 여러 생을 통해서 공부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중국 선불교는 오백 년 동안 1700공안이 만들어졌지만, 한국불교 역사는 천육백 년, 한국 선의 역사는 천이백년이지만 화두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중국의 공안과 조사어록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있기에 중국의 <본초강목>이나 그런 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한국불교만의 선문을 연구하고 선풍(禪風)을 만들어가서 중국불교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십대에 깨닫고 나서 나는 한국 승려니까 한국도학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내가 아는 만큼 남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약산 스님은 출가하고부터 선 이외에는 눈 한 번 돌려 본 일이 없다고 했다. 경전은 중생을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것이기에 선사가 법상에서 경전을 인용하여 법문을 하거나 진언을 말한다는 것은 선종의 분상에서 본다면 어긋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부처님은 도를 깨달은 후 ‘여래가 깨친 도리는 내가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진리가 본래 법계에 두루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라도 깨친 자가 부처님입니다. 우리도 그 법을 깨치면 부처님보다 못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부처님보다 훌륭해질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품겠지만, 그런 기개와 분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대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69년에 설봉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1970년 서른 살에 통도사로 돌아왔다. 그 후 약산 스님은 사십여 년이라는 세월동안 통도사 산문을 나가지 않고 중국의 선(禪)이 아닌 한국불교만의 선을 수립하기 위해 알아주는 이 없어도 혼자서 공부하고 정리를 해 왔다. 그 동안 이백 권에 이르는 <천봉선문대전(天峰禪門大全)>을 저술했다.

중국 여산의 혜원 법사는 삼십 년 동안 산을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약산 스님은 몸이 아파 병원이나 약국에 갔던 일을 빼고는 거의 사십여 년 간 두문불출했다. 공부가 좋아서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공부한 것도 있지만, <천봉선문대전>이 세상에서 빛을 보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했기에 산문 밖을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강산이 느리게 바뀐다고 해도 네 번은 바뀌었을 텐데 얼마나 답답했겠느냐고 묻자 “도인의 종적을 남겨야겠다는 생각과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애시당초 버렸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답했다.

<천봉선문대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은 온전한 책의 형태로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나올 준비는 벌써 마친 상태이다. 이백 자 원고지에 한문으로 쓰여진 것들을 복사하여 제본해 놓은 이백권의 책들이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있다. 그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돈오성불집(頓悟成佛集)> 10권, <수시법어집(垂示法語集)> 10권, <천봉화두집(天峰話頭集)> 20권, <화두평송집(話頭評頌集)> 20권, <화두평창집(話頭評唱集)> 20권, <화두거양집(話頭擧揚集)> 20권, <상당법어집(上堂法語集)> 20권, <시중법어집(示衆法語集)> 20권, <소참법어집(小參法語集)> 10권, <선문송구집(禪門頌句集)> 10권, <제경촬요집(諸經撮要集)> 20권 등이다. <돈오성불집>에는 부처님으로부터 중국의 선종사에서 뛰어난 선사들을 약 500명 정도 뽑아서 간략한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며, <수시법어집>에는 700편의 화두가, <천봉화두집>에는 1300편의 화두가 담겨있다. 중국의 화두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불교에 맞추어 새롭게 화두를 써나갔다.

약산 스님은 <전등록>을 보아도 중국의 쟁쟁한 선사들도 때로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답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메꾸어 놓기도 했었는데, 내가 달아놓은 화두가 100%맞다고 생각지는 않으며, 설령 50%, 30%정도 답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저는 족하다고 생각해요.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지만, 한국불교에 이러한 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스님의 바램이 있다면 수좌들 한 오륙십 명 정도 모아놓고 <천봉선문대전>을 텍스트로 해서 연구와 토론을 해나가면서 한국불교의 선지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라 했다. “한국불교는 한국인 스스로가 세워나가야 한다”는 약산 스님의 말씀은 불자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또 하나의 화두가 아닐까 싶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SHC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φCm × 29Cm
2 돈타레 5.6φCm × 27Cm
3 밀 대 4.7φCm × 25Cm
4 1호 5.9φCm × 20Cm
5 2호 5.9φCm × 14Cm
6 3호 4.7φCm × 13Cm
7 4호 4.7φ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양초.net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52 왕고들빼기 김치

해열과 종기를 없애는데 탁월한 왕고들빼기는 국화과의 두해살이 풀이다.

종류에는 고들빼기 · 이고들빼기 · 왕고들빼기가 있다. 1~2년생 초본으로 1~2m 정도 곧게 자라 가지를 치기도 한다. 손으로 꺾어 보면 흰색 유즙이 나오는데 쌉쌀한 맛이 난다. 꽃은 8~9월에 담황색으로 피며 전초를 고채 · 산호거 · 고개채, · 고마채 · 압자식 · 약사초라 부르기도 한다. 속명은 새똥 혹은 쓴풀이다.

키가 자라면서 끝에 새순이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끝을 꺾어 주면 계속 가지를 친다. 가지가 여럿 올라와 봄부터 가을까지 올라오는 잎을 나물로 계속 먹을 수 있다. 잎을 따 물로 씻어 생으로 먹기도 하고 즙을 내 먹기도 한다. 살짝 으깨 초고추장으로 양념해 생채로 먹어도 맛있다. 전국에 분포하며 산과 들에서도 잘 자란다. 가는 잎 왕고들빼기와 용설채도 약으로 쓰거나 식용으로 사용한다.

심장과 폐경에 주로 작용하는 왕고들빼기는 몸에 오른 열을 풀어 내리고 피를 맑게 해 보호할 뿐 아니라 위를 튼튼하게 한다. 염증성열 · 편도선염 · 인후두염 · 자궁염 · 성기이상출혈 · 유선염 · 종기 · 부수럼 등을 낫게 하는데도 좋다. 달이거나 즙을 내 복용하는데 환처에 붙일 때는 짓찧어 사용한다.

어디서도 잘 자라고 약·식용으로 사용

피 맑게 · 위 튼튼하게 하는 효능 있어

하루에 15~30g 정도 사용하되 종기와 고치기 힘든 부스럼에는 생잎을 짓찧어 환부에 붙여준다. 어린잎을 산나물로 섭취하면 위를 튼튼히 하고 소화 작용을 돕는다. 산촌 (02)735-0312



왕고들빼기 김치

재료 : 왕고들빼기, 소금, 고춧가루, 볶은 통깨, 찹쌀 풀, 물엿.

만드는 법

① 왕고들빼기는 대궁이 올라온 그대로 부드러운 부분부터 포기 째 꺾는다.
② 물에 소금을 간간하게 풀고 왕고들빼기를 담근 후 무거운 돌로 눌러 2일 정도 삭힌다.
③ 깨끗이 씻어 바구니에 건져 물을 뺀 다음 찹쌀 풀을 쒀 소금으로 간한다.
④ 고춧가루 • 통깨 • 물엿 • 생강을 다져 넣고 왕고들빼기를 넣고 양념을 골고루 잘 버무려 항아리에 담아 삭힌다.

금강선원 초중 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❻

피 맑게 · 노화억제 … 만병통치약

뽕잎차는 효능이 많다. 철분 · 칼슘 · 섬유질 등이 풍부해 당뇨병 · 고혈압 · 뇌졸중 · 동맥경화 ·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하며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수행하는 내게는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었다.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에 뽕잎은 각기병과 몸이 붓는 증세, 소갈증(현대의 당뇨병), 풍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적었다. 일본 영서 스님은 "뽕잎차는 선약 중 귀중한 선약"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뽕잎은 녹차와는 달리 카페인이 거의 없다. 성인이 하루 3kg을 먹어도 전혀 부작용이 없다는 시험결과가 화제를 모은 적도 있다. 당뇨병 치료 보조식품으로 알려진 누에가루도 누에가 먹는 뽕잎에서 오는 효능으로 짐작된다. 부작용 없고 안전해 성인병 관리에 탁월한 식품이 뽕잎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뽕잎을 쪄서 말리고 또 찌고 말리고를 아홉 번 한 것이 금강선원 구증구포 초심차다. 선원주변 맑은 공기와 기름진 토양에서 자란 뽕나무에서 채취된 뽕잎은 무기질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뽕잎을 씻고 찌는 물은 청정한 맥반석 지하수를 자화육각수로 정화해 차를 우려냈을 때 더 깊은 맛과 깨끗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금강선원 주변 뽕나무는 생김부터 그리 좋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은 뽕나무인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먼저 알고 다르다 말한다. 좋은 생김만큼 맛도 뛰어나다고들 이구동성 입을 모으니 만드는 이는 신바람이 절로 난다.

봄부터 주렁주렁 열리는 오디는 눈과 입을 달콤하게 하고, 오디가 다 떨어지고 더워지려는 때는 뽕잎이 볕을 가려 선선한 바람으로 한가로운 마음을 갖게 한다. 바람을 전하던 잎은 마음까지 고요하게 하니 그것이 뽕잎차다.

금강선원 발심차(發心茶)는 11월초 첫 서리 맞은 뽕잎을 채취해 만든다. 발심차는 만드는데만 두어달 가까이 걸린다.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겨울 초입 청정한 금강선원 주위 첫서리 맞은 싱싱한 뽕잎을 따서 곱게 썰어 찌고 그늘에 말리기를 9번해 맛을 냈다.

차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 차 이름으로 고심했다. 단순히 뽕잎차라 표현하기보다는 무언가 의미를 담고 싶은 마음에 며칠을 고민했다. 문득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 便正覺)"이란 말이 떠올랐다. '처음 마음을 발할 때 이미 완성된 것' 이란 이 구절은 불교에 귀의한 이래 내 마음을 잡고 있던 말이었다. 차 드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음다(飮茶)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차 이름을 초심차라 지었다. 무릇 불도를 걷는 이나 세상사는 사람들이 초심의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발심차는 초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초심이 진일보해 불법에 대한 마음을 발심하라는 의미로 지었다. 꼭 불법이 아니라도 좋았다. 차 마시는 이들이 그네들 가슴에 담은 초심을 발심으로 옮기길 바라며 지은 이름이니 말이다. (055)931-9590 (계속)



소중한 이 치과안은영 원장

40 치과에 관한 10가지 오해-2



잠들기전 칫솔질이 가장 중요

지난 호에 이어 치과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그에 대한 진실들을 소개한다.

5. 누런 이가 튼튼하다?

-진실 :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르듯 치아색도 다르다. 치아색과 단단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요즘은 새하얀 이로 자신 있게 웃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6. 칫솔질은 하루 세 번만 하면 된다?

-진실 : 칫솔질은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포함한 플라그를 제거하는 일이다. 식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나면 무조건 하는 것이 좋다.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해 적어도 세 번을 권장한다. 특히 잠들기 전 칫솔질은 가장 중요하다.

7. 치약은 비쌀수록 좋다?

-진실 : 치약은 약이 아니다. 칫솔질에서 중요한 것은 치약보다 칫솔과 칫솔질 방법이다. 아무리 치약이 비싸고 좋아도 칫솔질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마다 치아 마모정도와 치석이 생기는 정도가 달라 그에 따라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가 자주 시리거나 하루 세 번 이상 칫솔질 하는 경우 마모도가 낮은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치약이든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8. 이는 소금으로 닦는 것이 좋다?

-진실 : 소금으로 이를 닦아도 치약 못지않은 구강 세척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금물이 입속 세균을 제거하는 소독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금은 치약에 비해 입자가 굵어 치아를 더 쉽게 마모시킨다.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도 낮아 소금보다는 치약 사용이 권장된다.

9. 스케일링은 너무 아파서 하기가 싫다.

-진실: 평생에 한 두번 하는 사람은 스케일링 할 때 아플 수 있다.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을 모두 떼어내야 하는데 오래된 치석은 잘 떨어지지 않아 그만큼 힘들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하는 사람은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아프지도 않다. 스케일링을 하고 난 후 찬물에 시리지도 않는다.

10. 구강청정제나 방향성 치약으로 구취(입냄새)를 없앨 수 있다?

-진실: 입냄새 원인은 당뇨, 신장병 등 전신적 질환도 있다. 90% 이상의 원인은 구강 내에 있다. 치태(플라그), 치석, 충치, 불량한 보철물 등이 구취를 유발한다. 구강청정제 등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입냄새를 없앨 수 있으나 약제 효과가 떨어지면 입냄새가 난다.

11. 그 외의 오해들

1) 전동칫솔이 손으로 하는 칫솔질보다 더 편하고 잘 닦인다.

-진실: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서 설명했듯이 칫솔질은 아래위로 솔로 쓸어내듯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다. 전동칫솔은 아래위로 회전하는 것이 드물고 있다 해도 손으로 하는 것만큼 정교하지 못하다. 전동칫솔은 어린아이처럼 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품이다.

2) 머리가 큰 치솔이 좋다.

-진실: 머리가 큰 칫솔이 잘 닦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치아 사이와 치아 구석구석을 잘 닦기 위해서는 머리가 작은 칫솔이 더 좋다. 머리가 큰 칫솔은 무리하게 구석진 부위에 집어 넣으려다 입안에 상처를 내는 경우가 많다. (02)776-2882

성불조각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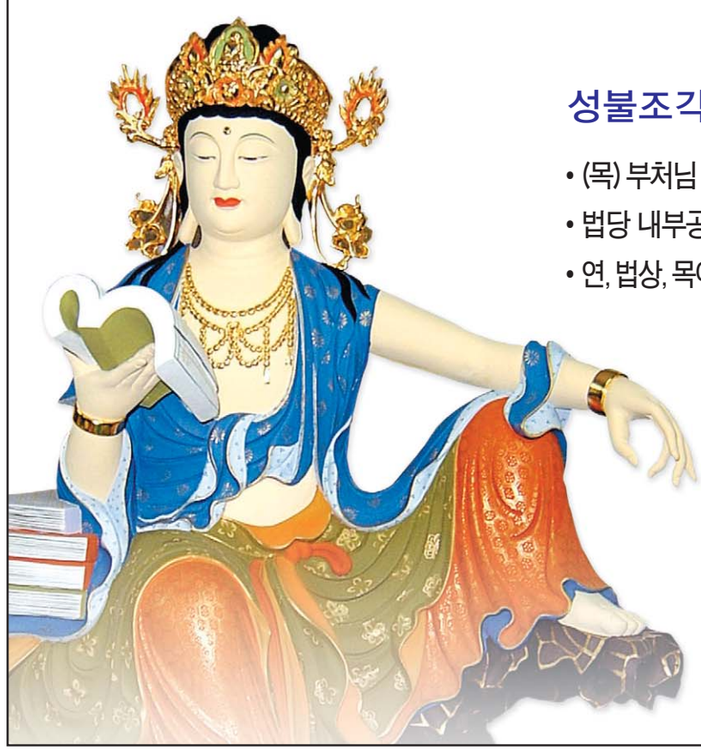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춤추는 이순신!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떴다

동국대 만해광장서 창작뮤지컬 '이순신'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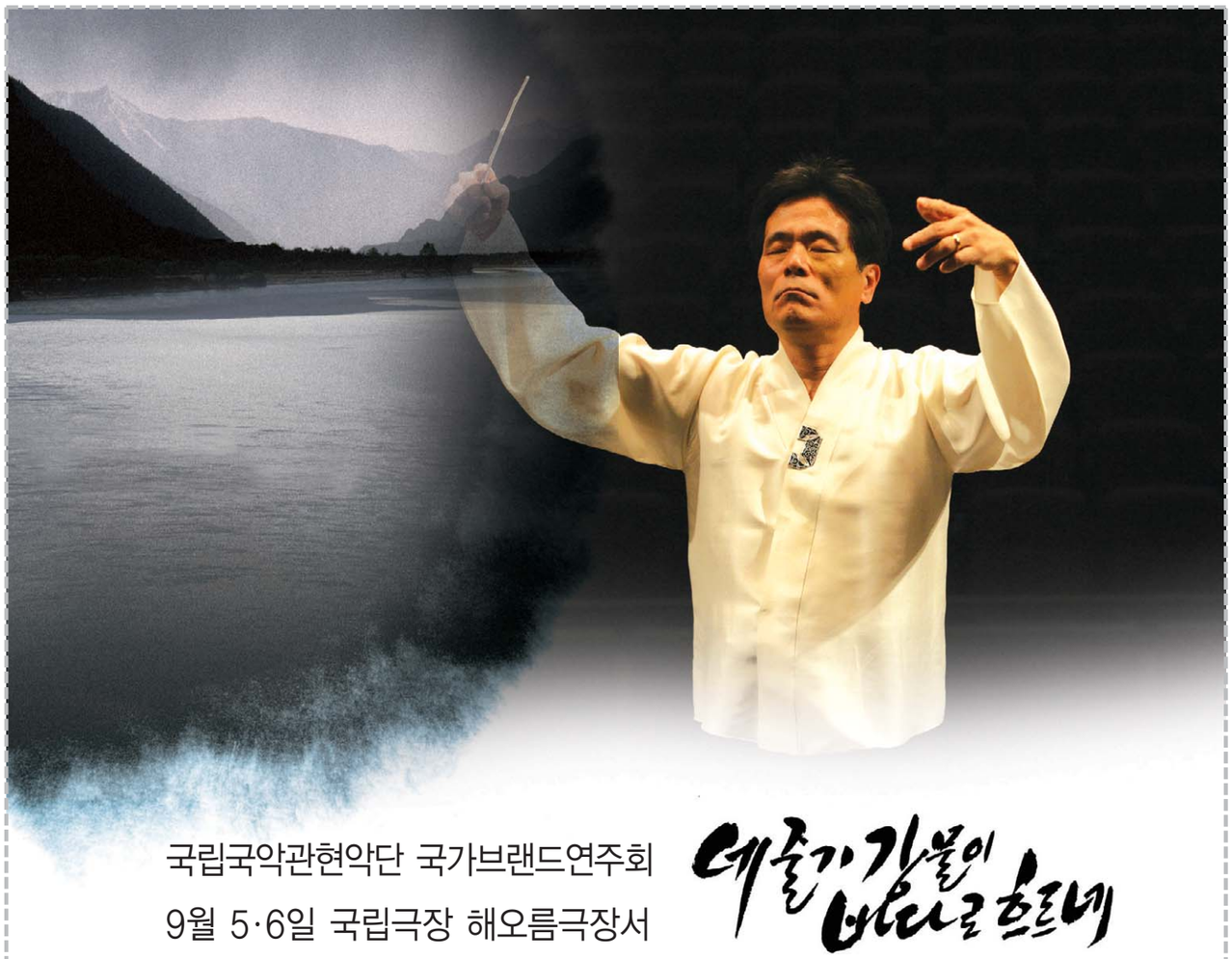
충무공 이순신의 탄생지를 품은 서울 동국대와 불패의 전적지 경남 남해가 만났다.

동국대(총장 오영교)와 경상남도(도지사 김태호)는 20억 규모의 대형 창작뮤지컬 '이순신-임진왜란편'을 무대에 올린다. 8월 14~15일 통영한산대첩축제 초연 후 제2회 충무로국제영화제 개막 축하공연으로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연한다. 2009년부터는 매년 4월 이충무공 탄신일을 기해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 공연으로 지속될 계획이다. 후속편 '정유재란'은 동국대 영상대학원과 동국대충무로영상사업단이 영상과 특수효과로 참여할 예정이다.

창작뮤지컬 '이순신'은 2010년 해외진출을 목표로 3년 간 총 50억원이 지원되는 관학협력사업이다. 이윤택 교수(동국대 연극학부) 극본 · 연출로 극단 연희단거리패와 일본 온데코좌타악그룹이 앙상블 출연한다. 연출가 이윤택과 연극 '화성에서 꿈꾸다'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배우 민영기가 주연을 맡았다. 총 80여명의 출연진이 전통식 거북선과 판옥선을 타고 대형 무대를 누빈다. (02)2260-3869

가연숙 기자





국립국악관현악단 국가브랜드연주회
9월 5·6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서

대줄기 강물이 바다로 흐르네

한국의 대표종교 화해의 바다서 국악관현악 향연

'새벽예불에 다뤄지는 법고(法鼓) · 목어(木魚) · 운판(雲版) 그리고 범종(梵鐘)은 미혹으로부터 자연의 실상을 겸허히 일깨우네.'

전통음악의 재창조와 현대음악의 생명력을 명상음악으로 승화시켜 온 '국악가요'의 선구자 김영동(58 · 경기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이 불교의 '화엄(華嚴)'사상을 담아 평화와 상생을 연주한다. 9월 5 · 6일 양일간 2회에 걸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지는 '국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황병기) 국가브랜드연주회'에서다.

2008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개막작으로 선보이는 '네 줄기 강물이 바다로 흐르네'의 테마는 '자비(慈悲)'다. 불교 · 도교 · 무교 · 기독교의 네 줄기 강물이 사랑과 관용의 진리로 화해한다는 의미다. 각각의 종교를 상징하는 대표 국악관현악곡을 위촉, 도교는 박영희가 '낮음과 비움', 무교는 박범훈이 '신맞이' 기독교는 나효신이 '태양 아래'를 연주한다.

김영동의 '화엄'은 1988년 여름 순천 송광사에서 새벽예불을 모시며 얻은 영감의 연장선이다. '겉치레 없는 예불소리는 그야말로 큰 음악이다'라는 것이 그를 사로잡은 기억이다. 푸른 새벽녘, 태평소와 함께 만물을 깨우는 사물의 연주가 시작된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감싸 안는 범종의 울림이 여운을 남길 때 즈음 종성은 경건한 염불의 전주가 되어 '오분향례'와 <반야심경>으로 화엄의 미묘한 법을 장엄한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배경에 자리한 자연의 소리다. 물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음미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명상에 잠긴다. 작곡가 이건용(한예종 교수)은 "종교라는 네 개의 문고리를 열고 문화를 넘어 음악의 물길을 만든다. 심연의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린 국악관현악은 인간과 종교를 아우르는 세찬 흐름"이라며 이번 국가브랜드 연주회의 의의를 밝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네 개의 종교가 음악으로 만나 화해의 공연을 한 자리에서 갖는다는 의미는 남다르다. 황병기 예술감독의 말처럼 "무겁고 의미 있는 종교 주제를 음악으로 재해석하는 실험은 국악의 높은 예술성과 현재성을 새롭게 이어가는 소중한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02)2280-4115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티베트인의 삶과 구도정신' 展
대구 수성아트 갤러리서

수채화와 유화의 중간 성질을 지닌 아크릴 물감.

티베트인의 삶을 담아내기에 모자람도 넘침도 없는 그림재료다. 화가 이준일은 오랜 기간 티베트에 머물며 보고 느낀 실경 스케치를 모아 8월 29일까지 대구 수성아트 갤러리서 전시한다.

티베트 성지에서 염원하는 신도들의 모습을 아크릴물감과 먹을 활용해 물의 성질을 가진 아라비아고무를 재료로 안료와 혼합한 불투명 기법(과슈 · Gouache)으로 표현했다. 죠캉 사원 앞 바코르 광장에서 오체투지하는 순례자들의 삶을 고스란히 화폭에 담았다. 가연숙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삶의 여정 해석하는 방식 엿보기
리씨갤러리서 9월 10일까지

삶이란 시작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여정이다.

현생의 거대한 구조 혹은 사회 안에서 겪게 되는 소외와 상실감을 관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매듭을 풀어가는 두 작가가 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리씨갤러리에서 9월 10일까지 열리는 '기나긴 여정(Long Day's Journey)'展에서 이들을 만난다. 삶의 긴 여정과 애착을 사진과 소묘라는 서로 다른 예술방식으로 보여주는 전시다.

사진작가 오상택은 현대사회의 물질적 비대함 속에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소외를 이중모순의 방식으로 접근한다. 작품 '과정(Process)'은 현대인의 삶에 묻어있는 현실의 삶과 이상에 대한 동경을 순간 포착으로 그려낸다. 화가 차소림은 초월의 메시지에 힘겹게 다가가는 자신을 페르소나인 작은 개미로 대치한다. 은유적인 텍스트와 바늘땀의 기호학 속에서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 한다. 절대 가치의 음성을 찾아 헤매는 개미는 진리의 자아를 찾기 위해 갈망하는 과정의 연속선 위에 놓여있는 듯하다.

인간이 개미를 닮았다. 멀리서 보면 캔버스의 얼룩으로 여겨질 정도로 미미하다. 거대한 자연과 기호학의 텍스트 속에서 인간은 긴 여정의 등장인물로 기묘한 어울림을 형성한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여된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기보다 자연과 어울림에 의한 이상적 자유를 갈망하는 방식으로 포섭된다. (02)3210-0467 가연숙 기자

고무신코 만 행 화
2008년 9월 5일 ~8일까지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예정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사부대중 선 물

지압슬리퍼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 · 동 깔창
조각세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15,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동 깔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망사단화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법사과정 학생 모집

불교지도자 양성 및 포교를 목적으로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교 과 목	불교학과(기본)	풍수학과(선택)	역리학과(선택)
내 용	교리, 의식,한문	풍수학 이론 및 실제	역리학 이론 및 실제
교육기간	1-2년	6개월-1년	6개월-1년
교 수 진	자광 스님 서진아 스님	모성학 선생 외 2명	청봉선생 외 2명
비 고	기초교리 불교학개론 제반의식	도선국사 이후 풍수대가로서 실제 입증 직강 및 현지 답사	30년 경력 정통 비법 전수

◆지방인을 위한 통신반 운영
◆전 형 : 서류접수(주민등본 및 이력서) 및 면접
◆개 강 일 : 2008년 9월 8일 (월요일)
◆강의시간 : 월 · 목 오후 1시 ~ 6시까지 (학과별 2시간)
◆문 의 : 031)448-0888~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 사무소 옆(안양역과 명학역 중간)

安養 淨土寺 부설
大 宇 宙 佛 法 師 大 學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울퉁보살 불퉁거사 <12>

구성 : 김흥인



두 개의 다리를 여덟 개로 늘린 농부 [백유경(百喩經)]



한 농부가 무성하게 보리 싹이 자란 밭을 보고 보리밭 주인에게 어떻게 키웠는지 물었다. "땅을 편편하게 고른 뒤, 물과 분뇨를 줬소." 농부는 보리밭 주인의 말대로 했다. 문득 밭에 난 자기 발자국때문에 보리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생겼다. 두 개의 발이 걱정된 농부는 평상에 앉아 하인들에게 대신 밭일을 시켰다. 자국은 여덟 개로 늘어나 땅을 더욱 단단하게 했다.
범부들도 이와 같다. 계율의 밭을 다뤄 좋은 싹이 나려면 스승에게 묻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 온갖 악을 지어 계율의 싹이 나지 않게 한다.

옛 판화의 세계

진언을 설해 증명하다
증명설주(證明說呪)



석씨원류(釋氏源流)3중 증명설주(證明說呪)편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관세음보살이 대비심 다라니를 중생의 안락을 위해 설하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허락을 요청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을 살펴보면 "<대비경>에 이르길,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타락가산 관세음보살 궁전의 보물로 장엄된 도량 가운데 보배 사자좌에 앉았다. 이때 관세음보살이 은밀히 신통력으로 광명을 방출해 세계를 빛나게 비추니, 하늘 궁전과 용궁들이 모두 진동했다. 이때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했다. '제게 대비심 다라니가 있어 지금 곧 그것을 설하고자 합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 그들이 안락함을 얻게 하기 위한 다라니며, 모든 병을 제거해 오랜 수명을 얻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많은 재물을 얻게 하기 위해서며, 모든 악업과 무거운 죄를 멸하고 멀리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속히 모든 희구하는 일이 만족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원하오니 세존께서는 자비와 애민으로 이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부처님이 말씀했다. '지금이 바로 그것을 설할 때다. 마땅히 속히 설하라.' 이에 관세음보살은 다시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했다. '만약 사부대중 가운데 이 주문을 외고 간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비심을 일으켜 마땅히 지심으로 내 이름을 부른 다음에 곧 이 신주를 외어야 합니다. 이 주문은 능히 몸 안의 모든 무거운 죄업을 제거하고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들이 대비신주를 외우고 간직하는 사람은 현재의 생 가운데 구해 만약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비심 다라니를 송지했다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대중이 모인 앞에서 합장하고 정주하시니, 이때 모든 중생들은 대비한 마음이 일어났고, 관세음보살은 곧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설했다. 이 다라니를 설하고 나니 하늘에서 보배 꽃비가 춤추듯 내렸고,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이 기쁨에 휩싸였고, 천마와 외도들은 모두 공포에 싸여 몸의 털이 곤두섰다. 일체 대중의 모임에서는 모두가 과위를 증득하게 됐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들이 보리심이 일어나게 됐다."

본문 내용에서 불자들이 수행방법으로 선택한 주력신앙 공덕과 의의에 대해 알 수 있다. 다라니를 설하는 이유는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관음보살님은 밝혔다.

주력 신앙을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안락을 위함이요, 행복한 삶을 위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는 속담이 말해주듯 노는 입에서 가시 돋친 독설이나 남을 흉보는 일을 삼가하고 노는 입에 다라니를 독송해 향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언 다라니를 끊임없이 독송해 어둡고 긴 말법시대의 터널을 슬기롭게 빠져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를 가득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회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수행일기/靜覺

숲속 외로운 부처님
이른 아침 새들이 날아와
제 멋대로 지절대다
해질녘 중하나 깃털을 줍네.

사찰방범
현대불교신문사
대전, 충남, 충북 지사장
혜철 스님이 감시 카메라의 가격을
확실히 내리고 전국 서비스망
구축과 함께 전국 사찰 방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격,성능 만족
확실한 서비스
사찰방범의 가장 앞선 길입니다!
기본사양 설치비용
4CH DVR
LCD 모니터
카메라 4대
250만원
(설치비포함)
1년 무상 A/S
고장 발생이 거의 없는 꼼꼼한 시공
년회원 가입 시
정기점검 실시
(케이블보수.기기청소.작동점검)
~ 알려드립니다 ~
직접방문하여 제품의 설명과
비교평가 및 고객의 요구에
따른 맞춤 시공을 해드립니다.
전화문의
043-732-5560
010-9422-8453
현대불교신문사 충청(대전.충남.충북)지사장
(www.dss.or.kr , cafe.daum.net/dasungsa)
선남선녀 따뜻한 만남 특별법회 봉행 옥천 대성사
영도시스템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 (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역학무병건강비법전수
- 2박 3일 체험 코스 -
1.구궁 당 주역/간단 비법 전수
2.난치병(스트레스,비만,혈압,당뇨,암..) 근본치유 예방, 무병 건강 양생법전수
052)264-8183
011-855-8180
건강 도인촌 신불정사 무구 합장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분
전화 주십시오
02)584-8844
011-354-8484

불교전통 불공의식(범음,범패)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
각종불공
(바라춤, 승무)
010-2200-8176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 1, 주방, 거실, 욕실 / 방 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 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초혼 · 재혼 · 국내 · 국제
대졸 초 · 재혼,신원확실
직장인,공무원,사업가
국제,필리핀,베트남,한족
재혼 70세까지 전화상담환영
02)312-5004
017-766-6888

사주학 · 매화역수 강좌
개인지도, 책임지도
평생운,연운,월운,일운,건강운, 빙의까지 정확히 적중시키는 수리학의 비법을 전수합니다.
(1개월 완성)
02)747-9136
011-307-2975

빙의퇴치 비법전수
신병 · 불치병 고쳐드림
30년 경력 혜봉스님
부처골 지장선원
054)383-8553

氣
★ 그대는 이미 천지를 얻었다 ★
흥망성쇠 성질감정 조절지도 훈련
풍수명당. 시험합격 기도터 성지
운의흐름 개운시기 전생 우울증세
장단기수행지도 단체 개인훈련
불교강좌. 출가희망자 선발 공양주
안성백마사 031)674-7188
백마사불교대학 017-203-9400

入山61년 雲水33년
이제야 비로소 入息 出息
自覺케 되었더이다
實參과 活句로써
전법 교화할
포교도량을 찾습니다
(대소불문)
011-9752-1080

사람은 누구나
다 如來藏佛임을 自覺하고
入息 出息 修行하면
無位眞人이 되어
이 오탁악세에 오히려
영원한 숨을 얻을 수 있으련만
011-9752-1080

神과 물질 그리고 권력
명예따위에 노예가 되어
世世生生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망상을 生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第一戒不殺生계의
심오한 뜻을 다시금 받아
지녀 了解토록 널리
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11-9752-1080

사찰 같이 하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명리학의 대가 (30년) 수강생을 모십니다
(속성 3개월 과정 / 철학원 운영 중)
011-9344-2048

황토사찰에서
행 자
모 십 니 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묘각사
031)774-476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 – 65세)
▷보시금 월 100만원
010-7160-2734

버스기사 구함
53세 이하 불교신자로
서울이나 서울근교
거주자로
출퇴근 할 수 있는 분
▷남현동 관음사
02)582-8609

공양주 보살님
(60세이하, 유경험자숙식가능자)
종무실보살
모십니다
(숙식가능자)
052)298-9911

스님차량을
운전하며
모시고 십습니다
(54세 女)
011-9084-1710

절지을 터
보시합니다
사찰 건립하실스님은
연락바랍니다
010-2531-7878

불사 같이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법랍 25년, 50대
중반 비구승입니다
(명리학,침구학,최면학)성업중
부산 경남에서 하고자 함
010-2945-7704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40대 / 부산)
011-1755-1905

50세 비구스님
(법랍 20년차)
사찰운영이 어려운곳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0-9390-3879

기도 수행하며
가족같이 지내실
비구니스님과 신심있는
보살님,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 모십니다
010-5003-9040

포교당 운영할 도반 모심
도심속 포교원 같이
운영할 도반 모시며
30년간 수도생활의 모든것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 비구승)
010-2014-34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010-3791-9668

비구니 노전스님
모십니다
염불하신지 15년 이상
기도 잘하시는 비구니스님
010-3156-9797
054)762-426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6-300-81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호스피스 요양원
(주방장1,주방보조1)
043)298-2258
011-9732-8562

기도 부전스님
모십니다
(법랍 3년이상,세납50세미만)
▷ 경기도 포천시
011-9269-8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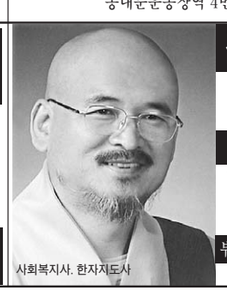
청정계곡물도량.약사암에서
평생도반으로 남은여생 마음
편히 살아가실 비구니스님.
화주보살님을 모십니다
(보시금약간)
042)272-3177
010-9518-3177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중급 (월요일) 18:30
• 관상 · 풍수 : 매주 수요일 18:30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암침술 즉효요법
● 개강 : 9월 5일(매주 금요일반)14:00 ~ 주 1회
9월 6일(매주 토요일 주간반)14:00 ~ 주1회 / (야간반)19:00 ~ 주 1회
9월 7일(매주 일요일반)14:00 ~ 주 1회
● 과정 : 1. 기본과정(경락진다,정확한 취혈,사암침 즉효요법100)
2. 전문가 과정(카이로 푸락틱, 맥진법, 사암침 즉효요법150)
● 특전 : 1. 개인 및 책임지도로 비법전수 2. 100% 실습위주 교육 3. 교재 무료
4. 재수강무료 5. 중복 수강환영 6. 회원 무료치료
7. 저자 직강(사암침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즉효요법)
● 공개강좌 : 매주 수요일14:00 ~ 주간(일반 회원 대상) / 20:00 ~ 야간(직장인, 의사님 대상)
● 추천 : 충남 청양 신 충수 의학박사께서 회원님께 적극 추천합니다.
● 상담 : 02)747-9136, 011-307-2975(종로3가 국민은행빌딩 401호)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신병(신을 받아야 된다는)이 28숙 기도로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 202호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남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TVbuddha.co.kr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古典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렵고 오판과 실수가 많지만 太極四柱는 四柱감정이 정확하고 논리가 정연하므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다. 필자도 20여년간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려운 命理學을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재운이 있느냐 없느냐, 성공할것인가 실패할것인가, 시험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배우자 덕이 있느냐 없느냐, 해로하느냐 이별하느냐, 궁합은 좋으냐 나쁘냐, 자식덕이 있느냐 없느냐, 관재구설수와 교통사고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 승진운은 있느냐 없느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위기의 해와 달은 언제인가? 등을 확실하게 감정할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것과 같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로 풀이 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
(현재 대구에서 20기생 강의중, 수강희망자 상담환영)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 테이프13개와 敎材代 포함 : 20만원 (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53)326-4585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수강생 모집」
1. 개인 지도 수갱생 모집
2달 완성 (수강료 300만원)
단, 명리나 오행에 기초를 익히신분에 한하여 가능함
2. 기초 수강생 수시모집 (수강료 100만원)
• 7월 개강) 목요반 4시 – 6시 30분
• 7월 개강) 토요반 10시 – 12시 30분
고급반 육임을 하신분들에 한해서...
신 간 안 내
최고에 오행술인 육임을 보다 쉽고 빠르게 공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각 점단마다 국수를 부쳐 설명하였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온 목적사을 말할수 있는 내정 비법인 시간법이 들어 있습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 가능 (전화로도 가능)
■ 상담문의 : 02)793-7333 (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www.saju79.com (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 (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패철 보는법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 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 저. 표지본문 전체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이 책 구입한 분 www.kbs.cc에서 나경 사용법 강의 무료시청. 주문전화: 1688-1137.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X 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02)826-5067
031)774-5067 (토요일 10시 ~ 일요일 4시까지)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기도도량(울산)
● 대지 2000평, 주차장 300평
● 법당 40평(기와지붕)
● 요사채 30평+20평
● 지장전 및 산신각
● 산좋고 물좋고(계곡접)
● 전망좋은 기도도량 최고
● 양도가 : 9억
● 위치 : 양산(마당 넓은 절)
● 부지 600평 법당 30평
● 요사채 40평+20평 산신각 5평(목조)
● 5층 탑, 뒷산 아름다운 절
버스진입 가능,주차장 완비
● 양명현 탁트인 전망
● 가격 : 8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상담 서비스

사 찰 안 내
● 위치:부산
● 법당:22평
● 요사:15평
● 부지:2,000평
● 가액:4억5천만원
● 위치:서울근교
● 법당:22평
● 요사:200평
● 부지:800평
● 가액:62억
● 위치:강원도 강릉
● 법당:20평
● 요사:30평
● 부지:480평
● 가액:3억원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삼방동
● 평수 53평, 3층건물 2층 전체
법당 시설완벽
● 방2개, 샤워실, 화장실,
공양간 2개, 창고
재래시장및 대단지아파트 입구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절충
연락처 010-2055-3366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용덕
(의령읍 5분내 거리)
● 대지 180평, 법당 25평, 요사 25평
● 가액 : 7,000만원
* 마당까지 차량진입 가능
* 20년된 사찰, 조계종 스님 환영
010-7748-8900
055)572-5036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 대지 391평(사용가능 땅 600평)
대웅전 : 35평
요사채 방5개,부대시설 일절
● 영광불갑사까지 이어지는 산세
● 2억2천만원(절충가능)
010-6654-16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4층건물중 2층(42평)
● 법당 35평, 비품일절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 가능함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양도함
● 보증금 500만원 / 월 45만원
시설비별도 답사후결정
010-7496-331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3층건물중 3층(불교대학운영중)
● 평수 : 108평
● 법당,종무소,대중방4,
화장실 2개,욕실완비,
옥상사용가능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4802-5288
011-9538-445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최고 중심지
● 4층건물중 4층(60평)
● 법당(40평)
아미타불 삼존불(동불)
● 방2개, 거실,욕실,
대형에어컨,엠프시설완비
● 가액:보증금 500만원,월 30만원
시설비 3천8백만원(절충가)
010-4583-695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중구부락 210번지 금병암
● 평수 : 대지 총69평(일반주택)
● 법당 15평,삼성각2평,방4
● 가액:1억 3천만원
055)744-6188
010-4871-27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북부 2개의 신도시 부근
노송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부지 630평(실사용 1000평이상)
법당 20평 요사채2동(100평,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시청에서 차로 5분거리,
전철 개통 예정
포교수행의 최적지
● 가액 : 시세절반 상담후 절충가
주변 주택가 평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선)
010-5290-3709

포교원안내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약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영가단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31)405-418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대흥동
● 평수 50평 3층중 2층
● 법당 방3 해우소2
공양간 등 아파트식구조
모든시설 최상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300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54)281-1147

사찰(급) 안내
● 위치 : 안동 암산 유원지 테마 마을
● 대지 200여평 법당 28평
● 큰방3개, 비품 일절 양도
● 삼존불, 소불(240불),각단탱화
● 관광단지조성계획지로
주변경관이 수려함
● 지장보살(6m),
텃밭(80평) 시내 10분거리
주변땅으로 잔디조성
● 가액 : 1억3천5만원(급매)
054)858-9628~9
019-377-896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현산면
면소재지 바로옆동네
● 100여가구 사는 마을 맨
뒷집(산자락)
● 대지 : 350평 임법당 32평
(살기좋은곳)
※ 직접 방문해 보시면 첫눈에 ok
● 가액: 7000만원
011-621-954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감악산(柑岳山)내
● 풍광 수려 대작불사 대가람 최적지
● 임야 4380평 유실수-감, 밤, 주목, 다수
관리지역"종교부지"허가 500평-현재대작불사중
● 법당 25평(예정) -다글라스 목재 구비
화엄성중전 10평 법당완축(알마시카목재)
지장전 15평, 관음전 15평, 요사 25평
(3채증축예정)
● 토목공사 완비 지주석-자연석 완비
● 요사 15평조립식(방4) 창고개조-5평(방사2)
전원주택 1동-건평 15평(방사2)대지100평
8평 조립식(방사2, 창고1)
● 원력 높은 스님 분께는 절충가능합니다
장난전화 사절 ● 가액 : 4억 2천만원
010-5547-1518
010-4001-3415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모종동
(온양 온천 터미널인근)
● 평수 : 빌라 2층건물중(2층 23평형)
● 방3,거실,욕실(대지지분 17평)
● 법당 : 관세음 보살봉안, 인등, 탱화
● 가액 : 4천만원(시설비 포함)
● 특징 : 년말 수도권 전철 개통예정
(투자요망)
041)533-0853
010-3011-0853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 요사,산신각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대출가능)
011-9393-4965

토 굴 안 내
● 위치 : 문경시 마성면
정리1리 마을 끝에집
● 평수 : 147평. 방2칸,
부엌1개,화장실 겸 욕실
● 뒤에 매실나무 7년생
6그루오죽(대)나무숲
1년 토지세 3만5천원
● 가액 : 800만원 (가격조절가능)
※ 조계종스님이 계시는 토굴로서
오래 거주하며 살수있음
054)571-82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 법당 신축 건물 28평
밭 약 50평
용왕각 4평, 산신각
전체 부지 약 1,000평
● 가액 : 3억
010-2536-8774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경동시장
● 평수 : 25평, 시설완벽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600만원
● 유동인구 엄청많음
● 명리,역학 완벽한자 환영
017-568-2236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칠곡 아이씨 근교
● 평수 : 46평, 3층 건물 중 2층
법당, 방 3개, 인등, 원불 평생입회 봉안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주차장 완비
아파트 밀집지역, 시설비 가격절충
● 즉시 법회 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011-9424-477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서구
버스정류장앞 2층단독
● 평수:40평,법당,삼존불,후불탱화
● 방3개 베란다 도시가스
● 전세 2300만원 월세 없음
시설비 1200만원
010-8674-0121

포교원 및 불교문화원
●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1동 1호선 구일역 5분거리
● 평수 : 법당 80평, 문화원 80평
살림집 40평 (옥상 150평)
지하 주차장 시설완비
● 도심포교 및 각종 불교문화
사업 최적지로서 완벽한 시설
● 가액 : 보증금 1억원 월120만원
시설비 1억 8천 (보시 절충)
02)853-6010
011-9405-818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 대지 605평, 건평 130평(4동)
법당 60평, 다용도실 10평,
요사채 30평(슬라브건물)
창고 및 화장실 18평
주택 12평(기와건물)
● 가액 : 2억 6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전철역 옆
● 평수 : 약 40평
● 포교 최적지,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절충
011-526-09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북 충북대학교
1km지점
● 평수 : 33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25만원
(꼭 필요한분에 한하여
시설비 1천만원)
● 역학하시는 분 적합
법회 즉시 가능
010-2877-7746

포교당 안내
● 위치 : 기장 대변입구
3층건물중 2층
● 평수 50평
● 방4개 법당1 욕실구비
시설일체완비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4137-5413

스님 개인 토굴분양
● 언양 시내에서 30분거리위치
● 산속 물과 공기가 맑은곳 위치
● 평수 20평
● 본인의 의향을 반영할수 있음
● 마당(정원을 300평 가질수 있음)
● 자세한것은 다음번호로 연락바람
연락처 010-2232-0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총776평
(대지 238평, 전 538평)
● 건물 : 요사채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삼성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 이상(2~3년생)
●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진입, 함창읍에서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버스정류장 앞, 부평시장 역세권
● 평수 : 120평
● 방 3, 창고방 1, 창고 1,
● 공양간 大, 주방 2, 화장실 2
삼존불, 지장소불 120불
● 시설 최우수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32)519-1108
010-4545-110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792번지
● 도배, 페인트, 수리중
● 보증금 400만원 월 20만원
하실분 시설비 무료
010-8929-1215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마산, 진주, 고성, 통영,
함안30분거리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가액 : 3억(융자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화왕산 사찰터
● 평수:임야 관리지역 12,792평
임야 관리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2억 7천만원(급매)
017-570-1600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신림동
● 대지 103평 법당 35평
마당 넓어서 주차가능
모든시설 완벽
● 보증금 1200만원
월세 55만원~60만원사이
시설비 8000만원 절충가능
011-395-6763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산14-1
● 연력 50년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
● 대지 250평 전답 730평(국유지)
● 법당목조12평 요사채 황토기와집
방5개 등기필,조립식 한동
● 가액 : 1억6천만원
018-406-3073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화소 IC 3분거리 도로접
● 대지 680평,건물 25평
현 임법당 사용중
● 산밑 양지바른 암자터
● 가액 : 7800만원
010-5015-3827
011-463-227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대지 800평, 법당 50평
요사채 50평
추모원 50평(납골당 사업가능)
● 가액 : 답사후 절충
● 산좋고 약수최고,도심속 산사
명당속의 기도도량
● 중개인 사절
● 도심포교에 큰 뜻이 있는
스님을 모시고자합니다
010-6591-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 정릉
● 평수 : 500평
● 법당, 요사채, 공양간
● 보증금 3000만원,월50만원
시설비 5000만원
010-3422-2575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인천 역에서 5분거리
● 평수 약 85평
● 구조 : 법당,공양간,삼존불,
방,욕실,큰방등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법당 50평, 주변환경 주차장
● 맑은 공기,산세수려
● 보증금 4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심야 보일러
010-2892-9877

사 찰 중 개
● 위치 : 대구
● 부지 : 108평
● 법당 : 70평
● 요사 : 14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 부지 : 오천여평
● 시설 : 대웅전,자장전,관음전,삼성각,설송당,
자양당,요사채(건출 총 170여평) 잘 지은 집
● 환경 : 좌청룡 우백호 노적봉이 휘감은
수려한 산속. 지장기도도량의 명당자리
● 계획 : 실버복지원 납골당-토목공사 완료
● 가액 : 시세 50% 직거래, 답사 후 절충 결정
055)356-6083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국악문화회관 후문 건너편)
● 평수 : 90평(7층 건물중 7층 전체사용)
● 법당 : 40평(미타삼존불, 원불 200불, 인등 600개, 신중단, 영단, 연등)
● 주지실, 사무실, 상담실, 주방겸 공양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완비
● 보증금 4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천만원(최상급, 절충가)
스님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
042)252-5450/055)944-5450
011-649-0108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망우공원내
● 3층 건물중 1층 약 128평(주차장 넓음)
● 대지400평 텃밭 50평,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법당(48평)방5,거실,욕실,주방및 공양간
대형에어컨,엠프시설 완비 비품일체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월 85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
비품일체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010-3382-7921

임 법 당
● 위치 : 양산시 통도사부근
● 대지 320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5평, 방3, 거실, 공양간
2층 법당 20평 친견실
● 아미타삼존불, 후불탱화, 아미타 지장관음신중
● 텃밭있음. 절앞 버스정류장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집기일체 양도, 시설비 2200만원
010-6460-4747

토굴 암자 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비슬산 자락
● 부지 : 약 1400평. 가옥 신축 황토집
● 특징 : 연못가, 청정계곡
● 가액 : 4억 5천만원
010-4782-2112

암 자 안 내
● 위치: 마산시 구산면 바닷가 인근 마을내
● 법당 1, 요사채 1
● 시설비 500만원, 1년세 60만원
● 현재 법회운영중, 교통편리
055)222-734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지하철 7호선
강남구 논현역 2번출구 1분거리
● 평수 10평 4층건물중 4층(옥상사용)
● 보증금 2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200만원
● 유동인구 많은 최고 요지자리
역학상담하면서 포교하실분
02)516-277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버스종점앞(위치최고)
● 건평23평 (시설 최고급)
● 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음보살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2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연락처 051)638-1134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50>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⑭

보고 듣는 마음과 삼계는 허깨비

次生意識 卽能分別種種諸色 因此則有 一切煩惱善惡等法 卽當反觀念色之心 不見相貌 當知見者 及一切法畢竟空寂 是名修觀

이와 같다면 청 황 적 백과 순종하는 경계, 위배하는 경계, 순종하지도 위배하지도 않는 갖가지 모든 색은 제육의식이 분별한다. 이로 인해 일체 번뇌와 선악 등의 색법이 있게 된다. 이 때 즉시 색을 생각하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하면 사물을 보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는 것이며, 보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하면 마음의 모습마저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보이는 선악 색법은 필경 공적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보고 듣는 것은 허깨비와 같고, 삼계는 헛꽃과 같으며, 듣는 소리를 되돌리면 이근의 가리움이 제거되고, 육진이 소멸하면 깨달음이 원만하고 청정하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눈으로 볼 때에 닦는 지관인 것이다.

아나율타 존자는 잠을 자다 부처님께 꾸지람을 듣고 나서 그 뒤로는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수행정진 하다가 끝내 실명을 하였다. 세존께서는 그를 연민히 여기시고 "낙견조명 금강삼매(樂見照明 金剛三昧)를 닦으라"고 명하여 마침내 그는 천안을 얻어 육안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삼천대천세계를 손바닥에 있는 과일을 보듯 하였다고 했다. 이것은 눈으로 색을 보며 지관을 닦아 이익을 얻은 하나의 예이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일체처에서 지관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근근진진 모두가 진실한 원통경계이며 두두물물이 보리의 도"라고 말한다.

二耳聞聲時修止者 隨所聞聲 卽知聲如響相 若聞順情之聲 不起愛心 違情之聲 不起嗔心 非違非順之聲 不起分別心 是名修止 云何聞聲中修觀 應作是念 隨所聞聲 空無所有 但從根塵和合 生於耳識 次意識生 强起分別 因此卽有一切煩惱善惡等法 故名聞聲 反觀聞聲之心 不見相貌 當知聞者 及一切法 畢竟空寂 是名爲觀

두 번째로 이근이 성진을 마주하였을 때 닦는 지관법문에 대해 밝히고 있다.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소리는 산골짜기에서 되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진실한 모습이 아니어서 그것은 허깨비 망상으로써 소리의 모습이라고 호칭하는데 불과할 뿐이라는 점이다.

내 감정에 순종하는 좋은 소리란 예를 들면 세간의 아름다운 악기소리와 노래하고 찬탄하는 소리 등을 말한다. 반면에 헐뜯고 훼방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저주하는 소리 등은 모두가 내 감정을 위배하는 소리이다.

내 감정을 위배하거나 순종하는 소리에 대해 논할 것 없이 모든 소리는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메아리처럼 홀연히 일어났다 바로 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그 때문에 소리를 따라서 탐애하는 마음도 성내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만일 감정을 위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담박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 역시

소리를 자성으로 돌이켜 들을수 있어야
소리를 따라 일어나는 생멸이 소멸돼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면 이를 지수행이라고 한다.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이근만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이식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식은 분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단지 있는 그대로 들을 수만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분별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대상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소리를 들어도 들리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는 경우와 같다고 한다.

따라서 내적으로 이근이 있고 밖으로는 성진이 있고 그 중간에는 명료하게 식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이식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근과 성진이 인연이 되어 그 중간에서 이식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식은 이근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이근은 이식으로 인해서 들을 수 있다.

이식은 단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 그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분별까지는 하지 못한다. 따라서 반드시 제육의식이 이식과 동시에 일어나야만 그 소리의 좋고 나쁨을 분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분별심 때문에 일체 선악 등의 법이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

안식은 아홉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일어나지만 이식은 여덟 가지 조건만 갖추어도 일어난다. 안식은 광명의 인연이 없으면 볼 수 없지만 이식은 광명의 인연이 없어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식이 일어나는 조건에는 아홉 가지 조건 가운데서 광명의 인연을 제외하고 여덟 가지 인연만 갖추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일체 중생은 번뇌의 지배를 받으며 종일토록 그 소리의 좋고 나쁜 감정을 따라서 생멸로 유전하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때에 내 자성으로 돌이켜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만일 듣는 마음을 내 자성으로 돌이켜 들을 수 있다면 소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어 듣는 사람과 들리는 일체 모든 소리가 끝내 공적하다. 이를 두고 "소리를 자성으로 돌이켜 듣는다면 내 자성에서 위없는 도를 성취한다"라고 말했다.

능엄경 이근원통장에서는 "최초로 발심하여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따르지 않고 내 자성으로 돌이켜 들어가면 대상의 소리도 동시에 없어진다. 소리와 내 자성으로 돌이켰다는 마음이 이미 고요하다면 소리의 진동과 그 소리가 사라지면서 고요한 두 가지 모습에 대해 분별심이 끝내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수행이 증가하면 듣는 마음과 들리는 소리가 끝까지 다했다는 마음에도 머물지 않게 된다. 듣는 마음과 들리는 소리가 공하여 그것이 공하였다는 깨달음이 극도로 원만하게 되면 공이라고 깨닫는 마음과 들리는 소리마저 공이라는 것까지도 소멸된다. 소리를 따라서 마음이 생멸하는 것이 소멸되면 적멸한 경지가 목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에 세간 출세간을 홀연히 초월하여 시방세계가 원만하게 밝아진다"라고 하였다. 이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관 수행에서 듣는 마음과 들리는 소리가 끝내 공적하다고 한 이치와 서로 부합한다.

이것을 이근을 통해서 관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三鼻臭香時修止者 隨所聞香 卽知如焰不實 若聞順情之香 不起著心 違情之臭 不起嗔心 非違非順之香 不生亂念 是名修止

세 번째로는 코로 냄새를 맡을 때 수행하는 지관에 대해 밝히고 있다.

수행자가 전단향과 침수향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향 등 이 모든 것을 따라서 냄새를 맡게 되는데, 이를 두고 향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향진은 인연을 따르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훌륭하게 사용하면 좋은 쪽으로 운용이 되고 악한 쪽으로 사용하면 악이 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향기는 실로 선으로 오를 수도 있고 악으로 빠져들 수 있는 인연이어서 선과 악의 근본이 된다는 점이다.

세간의 일체 모든 향기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았다면 내 마음에 적합하고 내 의식을 기쁘게 하는 갖가지 탐애스러운 향기를 맡는다 할지라도 한 생각도 탐욕으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반대로 갖가지 염증이 나는 더러운 냄새를 맡는다 할지라도 한 생각도 성내는 마음마저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또 내 감정을 위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냄새를 맡는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지러운 망상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비근으로 향진의 냄새를 맡으면서 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이처(十二處)의 성립

오온을 수립하고 나서 다시 십이처를 건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처(處)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광론(廣論)'에서 "'처'는 우리의 모든 주관적인 인식활동, 즉 식(識)이 일어나고 자라난다는 의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부연해서 설명해 보면 우리의 인식주관은 인식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체 세력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안으로는 육근(六根)을 의지하고, 밖으로는 육경(六境)을 의지해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한쪽 부분이라도 결손이 생기면 우리의 인식활동은 성립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육근과 육경이 합해서 모든 인식활동을 일으키는 생장문(生長門)이라는 의미에서 '처'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오온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한 덩어리로 취합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실체적 존재의 성립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즉 오온은 개공(五蘊皆空)인 것입니다.

비록 외적인 자연현상계로서의 색법이나 내적인 우리의 육신은 실재하지 않는데도어떤 유정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심식활동만은 실재하고 있다고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간의 유정들은 오온 가운데서 식온만은 색온과는 달리 실재하는 주재자가 있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나머지 색온 수온 상온 행온만은 당연히 그 주재자인 식온(識?)의 소유라는 집착도 동시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집과 아소집이 상대적으로 일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늘 가는데 실 가듯 아집이 있는 곳엔 아소집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헤아림과 그에 따른 집착을 타파하기 위해서 십이처를 다시 오온밖에 따로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이처를 건립한 근거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십이처의 건립을 통해서 오온 가운데 식온은 독자적인 실재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안으로 육근과 밖으로 육경을 의지해야만 생장(生長)하기 때문에 식온도 역시 나머지 사온(四蘊)처럼 주제가 없는 무아의 이치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식온에 대한 아집이 타파됨으로써 다시 그에 따른 수온 상온 행온에 대한 아소집도 역시 타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집을 거듭 타파하기 위해서 십이처 법문을 설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명소 - 명산 - 명지
사찰 및 템플수련
연수원용도 부지매각
■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산 후면
■ 면 적 : 66,116㎡(20,000평)
■ 매 가 : 실 수요자와 직접상담요망(협의)
■ 참 고 : 2009년 - 유동인구 - 약 3백만명 추정
주변동선에 유명사찰 없음
■ 위치 · 입지 : 100대명산 팔봉산후면 접함,동-남향
홍천강인접-홍천대명콘도 5분거리
동서고속도로-남춘천 IC-7분거리
▼ 전경 및 이미지 조감도
대표전화 033)435-8060 / 011-377-3410
주인직접 - 중개업소사절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오시는 길 ▷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기림사-감은사지-수중릉 신라불교 순례길

(104) 함월산 기림사

경주의 변방 동해구(東海口)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만파식적의 옛 땅이다. 신라가 바다를 통해 해외로 드나들던 동해구는 지금 감포와 울산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이다. 동해구에는 신라 통일 전후에 지어진 옛 절들이 많다. 그 중 기림사가 가장 큰 가람이다.

경주에서 동해구로 넘어가는 4번 국도는 신라 역사의 호젓한 뒤안길이다. 도중에 만나는 추령은 토함산과 함월산 중간에 위치한 형남기맥의 한 고개이다.

기림사는 인도스님인 광유성인(光有聖人)이 임정사(林井寺)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건했다고 한다. 기림사는 삼국통일을 전후해 동쪽변방을 괴롭히던 동해구를 지키기 위해 세운 호국사찰이다.

호암천 위에 걸린 임정교 다리를 건너면 넓은 주차장 한 켠에 대숲이 인상적이다. 대나무는 불교의 고향 아열대지역의 식물이기 때문에 사찰 주변의 식생으로 잘 맞아떨어진다.

일주문부터 느티나무, 서어나무, 말채나무 등 비교적 나이 많은 활엽수들이 숲을 만들고 있다. 절이 앉은 형국 또한 기묘하여 일주문만 아니면 산속에 절이 있음을 전혀 알아챌 수가 없다.

천왕문을 지나면 왼쪽에 수각이 있고, 맑고 찬 물이 줄줄 흘러나온다. 기림사에는 일찍이 소문난 다섯 가지 약수가 있는데, 이를 오종수(五種水)라고 불렀다. 기림사라는 이름 이전에 사용했다는 임정사(林井寺)라는 이름도 이 물을 인연으로 해서 지어졌을 것이다.

대적광전 공간으로 들어서면 ㅁ자형 마당에 반송이 자리하고 있다. 기림사 반송은 우리나라 절집 반송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반송으로 손꼽힌다. 해방 전 기림사 사진에 없는 걸 보면 해방 후에 식재된 듯하다. 반송은 조경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약사전 앞마당 약간 두두룩한 곳은 목탑이 있던 자리이다. 얼마 전까지 목탑 자리에 수령 500여년의 늙은 피나무(보리수)가 있었는데, 태풍에 꺾여 지금은 그 자리에 피나무가 관목처럼 수북하게 자라 있다.

하단은 그냥 맨땅인 데 비해 상단은 파쇄석 자갈이 깔려 있다. 연병장처럼 상단 마당 가운데 노향(老香) 한 그루가 섬처럼 서 있고, 돌담 주변 배롱나무엔 때마침 나무마다 꽃이 만발하고, 왕벚나무 등걸엔 잠시 지나간 소나기에 지의류들이 파랗게 옷을 갈아입는다.

곤충들은 대체로 햇볕을 좋아한다. 일사량이 많은 경내 숲 가장자리는 곤충들의 해방구다. 기림사는 여러 종류의 여름 꽃들이 있어서 나비류들이 다양하고, 햇볕 좋은 시내가 있어 잠자리들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리장수잠자리는 왕잠자리과에 속하는 대형 잠자리이다. 몸 색깔은 녹황색이 중심을 이루고, 가슴의 크기에 비해 머리가 작으며, 배의 각 마디에는 앞쪽에 황색 무늬가 있다. 날개는 투명하고 날개맥은 흑갈색이다. 여름에 주로 구릉지나 산간 계류 등에 나타난다.

삼천불전 동쪽 기둥에 손가락 굵기 만한 구멍이 여럿 뚫려 있다. 하늘소나 왕바구미 등 딱정벌레들이 드나드는 구멍이다. 녀석들은 그 안에 집을 짓고, 목질을 갉아먹고 산다. 그냥 놔두면 목재의 수명이 단축된다.

삼성각 주변 물 고인 곳에 무당개구리가 보인다. 기림사 주변의 양서류는 참개구리, 청개구리, 산개구리, 두꺼비 등이 관찰된다. 파충류로는 줄장지뱀과 유혈목이가 관찰되었고, 주민들의 말로는 함월산 일대에는 능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도 살고 있다고 한다.

매월영당 뒷숲은 인적이 없어 새들의 지대방이다. 여름철새인 꾀꼬리가 새끼를 쳐서 이소(離巢)를 시켰다. 어린 꾀꼬리들이 뒷숲에서 비행 연습을 하느라 여기 저기 날아다니고 있다. 호암천 물가에는 물까마귀, 꼬마물떼새, 노랑할미새, 검은댕기해오라기가 눈에 띈다.

기림사 경내에 조경 목적으로 식재된 나무들은 단풍나무, 배롱나무, 산수유, 향나무, 보리수, 석류, 왕벚나무, 소나무, 감나무, 석류, 자귀나무, 앵두나무, 옥매, 수수꽃다리, 박태기 등 눈에 익어 어울림이 좋다. 외래종은 나무수국, 독일가문비나무, 남경도 뿐이다.

초본의 경우는 하단보다 상단이 더 다양하고 화려하게 식재되어 있다. 맥문동, 왕원추리, 벌개미취, 봉선화, 도라지꽃, 옥잠화, 초롱꽃, 범부채, 국화, 상사화 등 우리의 토종초본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다른 절들과 차별화된 멋이다.

보물로 지정된 건칠불상은 종이나 삼베 등으로 불상을 조성한 뒤 옻칠을 하고 다시 도금해 조성한다. 이러한 건칠불상 문화는 중앙아시아와 티베트를 원산지로 하는 옻나무가 중국에서 고려 유학승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뒤에 크게 발전하였다.

호암천 상류 계곡길은 일주문께 숲거리로 되돌아가면 왼쪽으로 나있다. 언제부턴가 기림사에서 상수원과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시냇길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덕분에 자연이 많이 되살아나고 있다.

호암천 상류는 소규모 산간계류 형태를 보이며, 하상은 작은 돌과 자갈로 구성되어 있다. 수생식물들이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어 자연성이 양호한 상태이다. 설악산이나 가야산 홍류동계곡에서 볼 수 있는 물까마귀도 이 계곡에 살고 있다.

시냇길을 따라가면 감로암이 나오고, 거기서 계속 올라가면 토박이 사람들은 '도통골'이라고 부르는 산중에 이른다. 서라벌-추원-마차골(모차골)-세수방-불령재(부처고개)-용연폭포-기림사-대종천-수중릉을 잇는 길이다.

함월산의 식생은 온대남부숲에 해당한다. 키 큰 나무로는 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음나무 등이 우세하다. 그보다 키 작은 나무들로는 미역줄나무 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함월산은 동해남부의 기후 영향으로 난대식물인 나도밤나무와 사람주나무 등도 나타난다고 한다.

미역줄나무는 햇볕이 좋은 산중턱이나 숲의 가장자리에서 많이 관찰된다. 덩굴성을 띤 줄기와 가지는 2m 가량 자란다.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고 달걀 모양이다. 꽃은 여름에 피고, 가을에 붉은 빛이 도는 연록색 열매가 익는다.

초본층에는 어수리, 독활, 산박하, 기름나물, 배초향, 들깨풀, 파리풀, 단풍취, 참취, 애기나리, 홀아비꽃대, 제비꽃, 계요등, 양지꽃, 노루발, 대사초, 구절초, 큰기름새, 그늘사초 등이 분포한다.

어수리는 미나리와 같은 종류로, 주로 산기슭 반음반양지에서 흔히 관찰된다. 굵고 속이 빈 줄기는 1m 이상 자란다. 여름이 깊어지면 가지 끝에 흰색 꽃이 우산처럼 펼쳐져서 핀다. 산중 절집에서는 봄에 어린잎을 뜯어다 나물로 먹는다.

독활도 키가 1m 이상 자란다. 줄기는 굵고, 잎은 달걀 모양이다. 어수리와 비슷한 시기에 흰색에 가까운 연녹색의 꽃을 피운다. 가을에 까만 열매가 꽃이 진 자리에 열린다. 이른 봄에 어린 순을 먹는다.

부처고개[佛嶺]로 올라서면 봉표석(封標石)이 있다. 화강암에 '연경묘 향탄산인 계하 불령봉표(延慶墓 香炭山因 啓下 佛領封標)'라는 글씨가 음각되어 있다. 조선 순조의 아들인 익종의 연경묘 제사 경비를 얻기 위해 이 산에서 숯을 구워 팔았는데, 이를 위해 일반인들의 출입통제를 알리기 위해 세운 표석이다. 함월산 지역의 숲이 비교적 잘 보전된 것도 여기에 기인했을 것이다.

감은사지로 발걸음을 옮긴다. 감은사는 기림사에서 사십릿길이나 떨어져 있지만, 장항리사지-기림사-골굴암-감은사-이견대-대종천-문무왕 수중릉 코스는 신라불교의 성스러운 순례길이 된다. 생태적으로도 모두가 한 권속들이다.

감은사는 현재 동탑을 보수하는 중이다. 절터 한켠에는 오랫동안 당나무로 모셔진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얼핏 보면 한 그루처럼 보인다. 절터 동쪽 가장자리에는 잘 자란 큰 곰솔(해송) 세 그루가 있고, 절터로 올라가는 돌계단 좌우에는 중국단풍나무 두 그루가 금강역사처럼 서 있다. 절터 뒤로는 대숲과 활엽수숲이 푸르게 자리하고 있다. 능선이 가까운 곳에는 소나무들이 우점하고 있다.

이견대는 신문왕이 동해의 용이 된 부왕을 친견하고, 검은 옥대와 대나무(만파식적)를 하사받았다는 전설의 현장이다. 대종천 다리를 건너기 전 감포 쪽으로 난 도로 옆에 자리하고 있다.

이견대 앞에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옛 전설을 다시 되새기게 하지만, 만파식적을 만들기에는 너무 빈약해 보인다. 신라 범종에 있는 음관(音管)의 모습이 만파식적에서 비롯되었다면 만파식적을 만들어낸 대나무는 왕대였을 것이다.

대종천은 토함산과 함월산 골짝물들이 모여서 동해로 들어가는 지방하천이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동해천'으로, 1917년 나온 지도에는 '대종천'으로 나와 있다. 바다와 접한 대종천의 모래톱에는 해풍에 강한 갯메꽃이 자리하고 있다. 바닷바람과 소금끼에 강한 갯메꽃은 바닷가 모래밭에 뿌리를 깊숙히 내리는 덩굴식물이다. 잎은 수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두껍고, 뜨거운 햇볕을 반사하기 위해 표면에 윤기가 난다.

대종천 하류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철따라 바다를 오르내리는 2차 담수어로는 큰가시고기와 숭어, 은어, 망둥어 등이 있다. 봄이면 큰가시고기가 산란을 위해 올라오는데, 수질과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 게다가 물을 차고 오르는 힘이 약해서 물막이 보가 있는 곳은 거슬러 올라오지 못한다. 그래서 점차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대종천은 방생처로 오랜 명성이 있다. 대종천에는 불자들이 함부로 방생한 붉은귀거북이 쉽게 눈에 띈다. 초여름이면 모래나 자갈밭에 알을 낳는다.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새끼가 부화되어도 걱정이요, 부화되지 않고 썩거나 홍수에 떠내려가도 걱정이다.

대종천 다리 건너면 대본리 해변, 모래와 까만 자갈이 깔려있다. 문무왕 수중릉으로 전해오는 대왕암이 바닷가에서 100m 거리에 떠 있다. 옛부터 이곳 사람들은 '댕바위(대왕바위)'로 불러오고 있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감은사지 당나무.






위에서부터 문무왕 수중릉, 어리장수잠자리, 등에 이름이 쓰여진 방생 거북.

'임정사'로 창건된 기림사, 동해구 수호 호국사찰
마구잡이 방생에 붉은귀거북 대종천 '생태교란'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 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 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장천석	1967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 졸	공 무 원	충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졸	회 사 원	충 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회 사 원	경 기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 사 원	대 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 사 원	서 울
왕현민	1973년생	179	대학교	대학교전임강사	천 안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충 주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공 무 원	서 울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경	충 북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논 산
이용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 사 원	서 울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 사 원	천 안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울 산
배종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 영 업	대 구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조 리 사	서 울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경 북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 약 사	충 북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 사 원	경 북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 사 원	부 산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대 전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 사	충 북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 융	서 울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인 천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 영 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 무 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 영 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 사 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 사 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 사 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 무 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 사 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 영 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 사 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 융 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 무 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 사 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 사 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 영 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 지 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 무 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 무 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 무 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 영 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 영 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 육 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 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 사 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 사 원	대 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학	회 사 원	인 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학	농 업	경 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자 영 업	대 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 졸	학원강사	충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 사 원	전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졸	교 육 직	서 울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94 호 현대불교
2008년 8월 27일(음력 7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저 나무들은 무조건 자기 뿌리를 믿고 살고 있어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도 스님 친견을 많이 한 편에 속하는데요,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그릇만큼 대해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옆에서 제삼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릇의 크기보다도, 어떤 그릇은 작은데도 좀 예뻐하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똑같은 그릇인데도 찬물을 담아 주시고 그러는 그릇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스님 그것은요, 댁의 마음이 이만 하다면 내 마음도 이만 하고, 똑같이 그렇습니다. '댁의 마음이 바다와 같다면 나도 바다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게 있지 않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크고 작은 거지, 누가 크게 해 주고 작게 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내느냐,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즉 말하자면, 사람 사는 상식으로 '이건 넘어 뛸 수가 없어.' 하는 관습 있지 않습니까? 그 관습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죠. '관습은 없다' 즉 말하자면 습도 없고 번뇌도 없다, 붙을 자리가 없다, 체가 없다, 그냥 점프해서 뛰어넘어도 그것은 뛰어넘는 사이가 없다고 하는 거죠. 현실로는 이렇게 계단이 딱딱 져서 있지만요. 계단을 올라오셨죠? 계단이 딱딱 있어서 딛고 올라와야 올라오죠? 그런데 체가 없는 마음은 계단을 점프해서 올라와도 올라오죠? 바다를 건너가려도 바다를 건너가죠, 바다 속을 들여다보려 해도 들여다보죠, 은산철벽을 뚫고 나가려도 뚫고 나가죠?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하고 광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모든 것을 몰입을 해서 거기다 항상 같이 놔야 된다는 얘기죠. 놔서 그것이 완전히 보림이 됐을 때에 이 모든 중생들도 다 화해서 공생이 되는 거죠. 공생, 공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생(共生) · 공심(共心) · 공체(共體) · 공용(共用) · 공식(共食)이 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어디는 못 가겠어요? 가고 싶은 데 다 가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론은 알았는데 진짜 보면 보이질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길 통해야 보이는데 여길 통하지 못하니까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이승 저승 볼 수 있고 멀고 가까움이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한군데밖엔 없어요. 그것도 도는 아니지만 도와 겸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것이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신통도 누진통으로 합해야 이게 도다, 이런 말이죠.

질문자2(남)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방진 얘기지만요, 스님의 일등 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 최주현

스님 그래요. 아니, 지금 보니까 아는 얼굴인데어, 공부 잘하네, 이제는. 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왜 못하겠소, 응? 어차피 탤런트들인데, 어차피 끝나서 막 내리면 그뿐인데, 그까짓 것 던져버리지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달랑달랑하우? 하하하….

질문자3(남) 안산에 사는 심륜회 회원입니다. 스님, 항상 우리와 같이 하나 되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스님, 지금 우리들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을 때 어느 형제는 머리로 기억을 하려고 하고요, 어느 형제는 귀로만 듣고 어느 형제는 가슴으로, 그러니까 즉,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머리, 귀, 가슴, 어느 이름으로 공부해야 바른 공부가 될까, 질문 올립니다.

스님 그럼 육신의 하나라도 떨어져 나간 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기능이 하나만 없어져도 작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육식(六識)이라는 말을 하죠. 그것도 이름이지만 말입니다. 그거를 나는 공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지막지하게, 어린애가 젖병 하나 들고 그냥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그냥 그렇듯이, 그걸 붙들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러듯이 그렇게 사시란 말입니다. 아는 척하고 따지고 들면 오히려 이 무의 세계에는 근접도 해 보지 못합니다, 정신계에는. 우리가 아는 거는 나중이고 무의 세계부터 이렇게 둘이 아니게끔 통해야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주장자의, 즉 말하자면 스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自) 스승.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아리송할 때 진짜 거기다 되묻고 되묻고 하다가도 자기가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때 나한테 물어라 이겁니다.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스님 그렇게 일일이 따지게 되면 언제 갑니까? 지금 갈 길이 바빠서 점프하랬잖아요. 갈 길이 바쁘니까,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밟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점프해라 이거야, 그냥. '그냥 모든 걸 거기 놓고 들어가라. 그냥 밀고 들어가라. 물러서지 말라. 그냥 믿고 밀고 들어서라.' 이런 소리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은 모르고 아주 여여하게 그냥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짓지 않았을 뿐이지 그대로 행을 하시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 아닌 행을요.

사회자 법형제는 아니지만 우리 금왕지원의 스님들이 추천을 해서 금왕지원 학생회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름수련회에서 느낀 게 많이 있어서 스님께 한번 여쭤 보려고 오늘 질문석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질문자4(여) 저는 금왕지원 학생회에 다니는 고3 학생입니다. 스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여기 질문하러 오기 전까지는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스님 뵙고 나서 바로 정말…, 여러 스님들께서 계속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묘법을 만났으니까 모든 걸 다 걸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 왔어요. 그런데 잠깐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스님 뵙는 순간 그냥 '정말 나는 모든 걸 다 걸고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요즘에는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깊게 잘 안되고, 제 안을 들여다보면 뭔가가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고 생겨났다 없어졌다 그런 것도 많은데 그냥 그거를 보게 되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뭐랄까, 너무 까마득하다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한순간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해져 오고 그런 거를 느끼고 그러거든요. 물론 계속 주인공한테 관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가지만 스님께 가르침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스님 그런데 지금 걸음마도 걷지 못하고 자라는 애기가 젖병 하나만 들면 됐지…, 똥 누면 똥 치워 주겠다, 아니, 잠자리가 탁 있으니 그냥 잠자고 그러면 되지, 걷지도 못하는 아기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러니까 허허허…, 무조건 믿어. 저 나무들이 무조건 자기 뿌리를 믿고 살고 있어. "너, 네 뿌리를 진짜로 믿고 사니?" 하고 저 나무들한테 가서 물어봐. 그렇게 "진짜로 믿고 사니?" 하고 묻는다면 묻는 자가 어리석어. 그렇지? 그냥 뿌리는 이미 달려서 벌써 싹이 나서 살고 있는데 "너 뿌리를 진짜 믿니?" 이러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야, 그렇지? 그런 것과 같이 너도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너를 형성시켜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형성시킨 너부터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즉 말하자면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본,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 봐! 그걸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은 다 소용없어. 이름이 좋든 그르든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공' 하면 둘이 아닌 이 한 개체가, 몸뚱이가 살고 있는 걸 말해. 그런데 고정된 게 없이 살고 있거든, 모두.

질문자4(여) 그리고요,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스님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면, 산행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담력 테스트 비슷한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조가 길을 잘못 들어서 되게 오랫동안 산을 헤맸어요, 밤에. 9시 정도에 산에 올라갔는데 새벽 2시 정도에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잠깐 꿈꾼 것 같고, 그때도 무섭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정말 믿을 거라고는 주인공밖에 없었어요.

스님 잘했어. 정말 그렇게만 자꾸 해 나가면 일등 될 거야. 하하하….

질문자4(여) 그때, 정말 스님도 계속 찾고 주인

☞26면으로 계속

발행 한 주만에 재판 인쇄

"자애로운 스승, 일타 대종사와의 인연
해인사 장경각에서 108만배 기도 성취
2천번 넘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 방방곡곡 설법
제주 약천사 창건
단양 도락산 광덕사 백만불전 건립불사"



신심 | 239P 정가 10,000원 |
원력 | 285P 정가 10,000원 |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02)2198-5151

제주 약천사 혜인 스님의 신심, 원력이야기

신심, 원력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좌)_ 혜인 선사가 평소에 실천궁행했던 경험들을 책으로 펴냈다. 거기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부대중을 향하여 고구정령 토설했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로 짜여 있다.

무비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_ 사람들을 그토록 감동시키던 그 법문이 이제 글로 화하고 책으로 엮어져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고은(시인)_ 장엄한지고 여기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쉬운 길라잡이를 만나 훤히 트였구나. 이 길 따라 가고 가면 되는구나.

전 언론이 격찬, 격찬 !!!

한국일보_ 오척 단구 어디에서 그렇게 큰 힘이 솟아났을까. 책에는 그 고행의 과정이 별다른 자랑이 아니라는 듯 소개되어 있다. **경향신문_** 책에는 스님의 신심과 원력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스님이 법문 내용을 토대로 쓴 글들이다. 그의 법문은 유쾌하면서도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문으로 유명하다. **매일경제신문_** 혜인 스님 법문이 시작되면 불자들은 웃음과 감동이 번갈아 교차한다. 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번에 책을 한꺼번에 두 권을 낸 것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한국경제신문_** 불교계에서 '포교제일의 부루나 존자'로 불리는 그가 두 권의 책을 한꺼번에 펴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리다 보면 108배를 넘어 140배, 150배가 된다고 한다. **세계일보_** 그가 펴낸 수행에세이에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신심과 효심, 용기를 불끈불끈 솟게 한다. 때론 배꼽을 잡게하는 솔직한 이야기도 쏟아져 나온다. 또한 인과의 진리가 담겨 있어 현대인의 잃어버린 가치관을 되찾는 데에도 친절한 길 안내가 돼준다. **국제신문_** 혜인 스님은 108만 배 이후 삶에 큰 변화를 느끼면서 설법 잘하는 법사로 통하고 있다. 감동을 주는 스님의 법문이 알려지면서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전국과 세계 곳곳을 다니며 초청법문을 한다. **불교신문_** 왜 책 제목이 신심과 원력인가. 스님은 이렇게 풀이했다. "신심은 불심(佛心)이요 원력은 보살의 마음입니다." 스님이 책을 발간한 이 유는 하나다.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기 위해서다. **현대불교신문_** 혜인 스님이 그간 걸어온 수행의 길에서 스스로 지켜 온 신심의 근거와 그 기운의 불가사의함이 페이지마다 녹아있다. **법보신문_** 책은 법문의 형식을 빌었지만 혜인 스님의 수행의 향기를 진하게 담고 있다. 서문을 장식한 고은 시인의 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따라가 볼 일이다.

그냥 모든 걸 근본에 놓고 들어가라! 그냥 밀고 들어가라!

☞25면에서 계속

공도 막 찾고 하면서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그게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모든 게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 우린 처음부터 공부하고 가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자기가 공부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우리는 진리를 참구하고 공부하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자꾸 배우러 어디로 쫓아다니고, 붙들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거든. 그런데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믿어야 되고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쓸 때면 빈손,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다 가서 이렇게 붙들어 줘. 그 나무들이 전부 관세음보살이 되고, 그 나무들이 전부 보살들이 돼, 길잡이가 되고.

질문자4(여) 스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 그래. 이 묘한 도리를 말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나.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터득해 나가야지.

질문자5(남)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법형제 심우회 회원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에 겪었던 기쁘면서 슬프고, 슬프면서 기뻤던 마음을 저 혼자 알기에는 정말 아쉬워서 저 밑에 신축 건물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열흘 전에 스님을 친견하고 나서 위암과 폐암을 앓던 제 아버님께서 편안히 잘 가셨습니다.

스님 편히 앉아서 얘기해요.

질문자5(남) 네.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다 못해 와서 스님을 친견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저희 아버님께서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말씀하신 후에 6일 있다가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우제를 지내고 왔는데 스님 친견하고 나서부터 그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참, 고마운 일만 생겨 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말씀 전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겪었던 일들이 뭐냐 하면, 아버님의 암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하루아침에 없어졌고, 장례식을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많이 오던 비가, 어저께 같은 경우도 11시에 삼우제를 지내기로 했는데 10시 한 40분까지 비가 왔었는데 장지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딱 모시고 나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식당에 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하고 제 동생이, 그 장지에 가서 봤었는데 약간 산 밑쪽, 그러니까 흙을 갖다가 메웠던 자리에 있는 묘소인 줄 알았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서 묘를 받으러 갔더니 임진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제일 위에 있는 본토에 잡게 돼서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스님 친견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몸이 크냐?" 그러니까 "큽니다" "그래, 무슨 까닭에 크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가고 옴이 없이 모든 게 다 부처님 몸이기 때문에 큽니다. 그러니까 티끌 하나 가지고도 이 세상을 다 거기에 한데 집어넣어서 한 몸이니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티끌 하나에 다 집어넣어도 손색이 없으니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나는 경전은 못 봤지만, 지금 내가 그냥 하는 소립니다. 우리 부처님이 얼마나 크냐고 한다면, 이렇게 크다 저렇게 크다, 말 못 할 지경이죠. 그렇듯이 댁의 그 모든 것을 보는 건, 하여튼 그건 비밀이니까 살아가면서 터득하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러한지, 누가 악수를 해 줬는지, 누가 스쳐 갔는지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자5(남)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문 끝났습니다.

스님 더 하세요. (질문자에게) 하세요, 그냥. 하세요. 지금 살아서 못하면….

질문자6(남) 시간이 초과됐는데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책이라든가 비디오를 통해서 스님을 많이 뵈었습니다만 오늘 실제로 처음 뵙고 보니 상당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에게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식이 있는데 여자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그 정신적인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군에 들어가기 전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같은 학번인 여학생을 정신적으로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현재 군을 제대한 뒤에도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지난번에 그 아파트 부근을 배회를 하다가 신고를 당해서 부모 입장인 제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담도 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와 자식이 한마음이 안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고 선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인 거는, 자식이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하면서 여건이 됐을 때 여자한테 접근하면 괜찮지만, 같은 학번이었던 그 학생은 현재 졸업을 했고 자기는 3학년이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도전을 해서 자꾸 여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상당히 비판하는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자기는 그게 아니라면서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자꾸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님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자 시간이 초과됐지만 질문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모든 생명의 모습은 다르지만 삶의 도리는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마음공부를 하시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원자가 부처님, 자불이라면 입자가, 이 보살들이 나가서 다 조절을 해서 양면을 모두 해롭지 않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한군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젖병이 만약에 주장자라면 주장자 있다는 겁니다.

> 습도 없고 번뇌도 없다, 불을 자리가 없다, 체가 없다
>
> 그냥 점프해서 뛰어넘어도 그것은 뛰어넘는 사이가 없다

사회자 질문 다 끝났습니다.

스님 질문을 한 게 있소? (대중 웃음) 허허허…. 대답한 사람은 누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마음공부 하는 것이 공부 같지도 않고 뭐, 헬렐레하게 생각되기도 할 거예요.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렇게 배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 나아가야 공부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요, '사방이 다 터져서 밟을 계단이 없다. 마음은 체가 없는 거니까 강을 건너가려면 강을 건너가고, 또는 산을 넘으려면 산을 넘고, 또 손을 잡아 주려면 잡아 주고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나쁘고 좋은 거는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쁘고 좋은 거를 알면 그만 붙들고 나가면 되지, 그걸 산산조각을 내서 이유를 붙여서,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고 한다면 이게 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사는 게. 거기다가 맡기세요.

질문자6(남) 그런데 학생이 지금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등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님 난 지금 말소리가 잘 안 들려서 못 알아듣고 대답을 해 준 거지만 그 대답을 들은 대로 그냥 하세요. 그럼 편안하게 모두 돌아갈 거니까요.

사회자 질문 다 끝났습니다.

스님 질문을 한 게 있소? (대중 웃음) 허허허…. 대답한 사람은 누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마음공부 하는 것이 공부 같지도 않고 뭐, 헬렐레하게 생각되기도 할 거예요.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렇게 배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 나아가야 공부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요, '사방이 다 터져서 밟을 계단이 없다. 마음은 체가 없는 거니까 강을 건너가려면 강을 건너가고, 또는 산을 넘으려면 산을 넘고, 또 손을 잡아 주려면 잡아 주고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나쁘고 좋은 거는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쁘고 좋은 거를 알면 그냥 좀 나쁜 것은 좀 제쳐 놓고 좋은 생각으로 더불어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버리지 말고 그것도 한데 넣어서 그냥 좀 탁탁 뛰어 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 발로 뛰어 봐라 이거예요. 아, '한 발로, 한 손가락으로 버텨서 하늘을 받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항상 여러분한테 '체는 공했다. 체는 고정됨이 없어서 항상 보고 듣는 것도 다 고정된 게 없고, 그러니까 바람처럼 날아간다. 우리 인생은 구름처럼 둥둥 떠서 가는 도중이다. 우리 구름이 스러져 버리면….' 하는 얘기나, 또 막이 내리면 그뿐이라고 하는 탤런트 얘기, 뭐 별소리 다 해 가면서, 손짓 발짓 다 해 가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한 것은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둘 아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다고 했습니다. 둘 아닌 일대사라면 전체를 말합니다. 요 벌레 한 마리라도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삶 아님이 없고' 이랬으니까 '과거 미래 현재도 없고, 그냥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우리가 둘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인연을 맺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예를 들어서 나쁘게 사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수백 명을 건질 수 있다면 그냥 점프해라 이거야. 그런데 용기가 없죠, 패기가 없죠, 관습이 많죠, 욕심이 있죠, 습관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 말려서 뛰어나가려 해도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말입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쓰지를 못해요, 마음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 집에 아침에 도둑이 들었는데 전부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친정에 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공부 하는 사람 같으면 항시 울타리를 쳐 놓고 산단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좀 문제가 많으니까, 우선 만나면 죽지는 않겠지만 내가 놀라니까, 모두 그저 놀라지 않게, 무섭지 않게, 둘이 아니게 이렇게 울타리를 쳐 놓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미리미리 그렇게 마음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못하느냐 말이야.

지금 지구 대기권에서 이렇게 망이 쳐져 있는 거는 법망이란 말입니다, 법망! 우리 몸에도 법망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이 세포가 법망이죠. 이 법망이 없으면 온갖 곳에서 들어와서 이거 못 삽니다. 세균성도 들어오고 영계성도 들어오고 유전성도 들어오고 전부 끼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법망이 있어서 잘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지요. 이 속에서 만약에 양 개체가 대립해서 싸우면 이 집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집만 무너지고 그놈들도 다 죽게 돼 있죠. 그러면 똑같이 또 인연이 돼서 또, 또, 또 간단 말입니다. 뭘로 태어나든지 또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 년이 갈는지 수천 년이 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거를 다 벗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해서, 그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힘이 없다, 있다 이거를 논의하지 말고, 그저 모르는 머슴아이가 왜, 물 땅땅 치고 그냥 막 개구쟁이처럼 놀듯이 그냥 점프해서 올라가서 해결을 하고 이래라 이겁니다. 그게 뭘 내가 할 줄 모르고 알고가 없어요. 자불은 본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불성이 본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여한 줄 알고,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만법을 들이고 내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 본래 불성이 있으니까 찾을 필요도 없다 있는 것만 믿으면 된다. 저 나무가 자기 뿌리 있는 걸 믿고 그냥 살듯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움죽거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답답한 심정이지만 나도 겉더껑이로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와서 만나고 간 뒤에 아버지가 그렇게 편안하게 행복하다고 하셨다는 그 뜻이,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어디? 그러나 그걸 말로 할 수가 없죠. 내가 했다 네가 했다, 누가 했다 어떻게 했다, 이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 이유를 댈 수 없는 나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답답하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세요.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죽은 세상 산 세상을 왕래할 수도 있고 점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단을 밟아서 꼭 그냥 낑낑거리고 올라오려고만 하지, 왜 그냥 뛸 줄은 모르느냐 이거죠. 어차피 체가 없는 나가 체가 있는 나를 형성시켜서 자기 집을 삼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주인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그럽니까?

그럼, 그만 내려가도 될까요?

※위 법문은 1998년 8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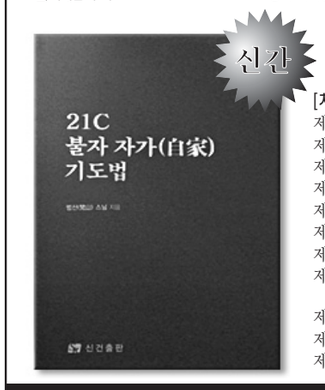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상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한국불교여래종
입 종 안 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 · 문도를 환영합니다.

◆ 사찰등록 및 입종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사진(여권용) 4매
3. 사찰전경 및 법당내부 촬영사진 각1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

입 종 안 내

대한불교해동조계종

종 정	청암	부 종 정	화주
총무원장	지공	원로의장	청해
감사원장	만봉	종회의장	보광
교육원장	지원	종회부의장	관불
사정원장	일현	종회의원	진광
호법원장	거송	포교원장	원각
문화원장	덕호	복지원장	법성
총무부장	석문	재무부장	지호
감찰부장	지인	홍보부장	도일심
문화부장	용기	의전부장	혜오
섭외부장	성화		

● 각 지역구 종무원장을 모집합니다
● 스님 입종을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실 행자님을 모집합니다

대한불교해동조계종 총무원장 지공
◇총무원 : 울산 북구 정자동 175-1번지
전화 052)293-7328 핸드폰 011-556-5507

화제집중
관세음보살 순금(22K) 목걸이 메달

대자대비의 발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장등록 출연 중)

자비구세 정신의 핵심으로, 천 가지 지혜 눈으로 중생계를 살피고 천 가지 구원의 손길을 펴서 고해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구하시려는 넓고 깊은 원력을 지니신 대자대비의 유일한 진신 관세음보살님… 그 위신력과 가호를 항상 간직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업성취, 신수대길, 재수대통, 복덕구족, 만사형통, 승진, 합격, 안전, 성취발원, 삼재팔난 관재구설 병고액난 일시소멸


확대[앞]


확대[뒤]

※ 메달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재질 : 순금 22K, 케이스 : 케노픽(항공기 유리소재) / 크기 : 가로 2cm × 세로 3cm

사찰 불사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스님들께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10-7208-3777, 010-2869-577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산100번지 **각원사 혜일 합장**
농협 231080-52-220201 이규상



불자 세상보기

이 병 두
칼럼니스트 · 번역가

메시지 없는 8·15 경축사

"'대통령 8 · 15 경축사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다. 솔직히 털어놓자면, 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정치 문제에 대해 아주 냉소적이 되어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 이른바 운동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멀리 떨어져 다만 바라다보고만 있었기 때문이다.

글을 쓰려고 경축사를 훑어보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슴에 다가오는 메시지가 없다. 이번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건국 60주년'에 대해서도 단순한 단어 나열에 불과할 뿐 그 의미와 감격이 묻어나지 않는다.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사라지고, 경축사 첫머리를 "60년 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라며 시작하는 것도 경박하기 짝이 없다. 혹 종족이나 부족의 역사는 있었어도 어엿한 국가를 수립해본 적이 없었던 신생국가라면 첫 건국의 의미가 클 것이므로 중점을 둘 수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대통령 자신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에서 '5000년 한민족의 역사와 임시정부'를 거론하기는 하지만, 이는 '욕'을 피해가기 위한 '끼워 넣기 용'이라는 느낌이 든다.

게다가 곧바로 "한 때 이 자리에는 동족상잔으로 붉은 깃발이 올라가기도 했다"며 갈등과 분열의 과거를 경축사 서두에 배치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국가 지도자, 혹시라도 남북의 통일을 희망하는 민족 지도자라면 무엇보다도 화합과 화해를 먼저 거론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밖에도 이번 경축사에서는 예를 들어 "경제규모는 그 때보다 750배나 커졌고 1인당 소득도 300배 넘게 늘어났다"며 양적 성장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에 대통령이 보기에는 지난 60년의 현대사가 '성공' '발전'과 '기적'의 역사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우리 현대사가 과연 그러했던가? 물질적 성장의 뒤안길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 과정에서 힘들게 살다가 쓰러져간 이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대통령이 너무 자주 '기적'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신화'가 아니라,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산물"이라고 돌려 표현하기는 하였지만 기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대통령의 호감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 편향'의 근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까지 지울 수 없게 된다.

'현대사 박물관'을 새로 짓겠다는 제안 또한 어리둥절하다. 현재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현대사 박물관'을 추진한다면,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비교할 수 없는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 쪽에서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영웅으로 만드는 '현대사 만들기' 작업이 되겠지만 이에 저항하는 물결 또한 여간 거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대통령은 국민 화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를 여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혹 이번 경축사에서 점수를 줄 수 있는 곳을 찾으라면 "역사는 구경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이고, 자유는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빈곤과 싸웠고,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해 억압과 싸웠으며, 사회적 자유를 얻기 위해 차별과 싸웠고 문화적 자유를 얻기 위해 편견과 싸웠다"라는 대목일 것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나라에서 억압,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그래서 갈등과 분열을 확대하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빈부와 종교의 차이, 사는 지역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는커녕 점점 크게 만들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그 다음 대목에서 '성숙한 자유의 구현'을 강조하였지만, '성숙한 자유'가 무엇인지 대통령부터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경축사는 장밋빛 선거 공약과 다를 바 없는 내용들로 이어간다. 여기에서 특히 우려되는 점은 "집 근처에 문화 · 체육시설이 촘촘히 들어서게 하고, 각종 규제를 신속히 풀겠다"고 하는 대목이다. 이것은 부동산문제와 개발 열풍을 불러올 것이고, 이제까지 소외된 이들을 더욱 소외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노사분규와 거리 시위'가 국가 브랜드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대통령의 진단에는 불도저라는 그의 별명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고, "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대목에서는 미국의 압력을 이겨낼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짐작하게 되고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의 책임만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를 직시해서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인사치레용 언급에 그친 것도 현재 한일 관계에 비추어 아쉽기 짝이 없다.

社說

수행이 '부종수교'의 길

우리는 불교의 존립 근거를 '자리이타(自利利他)'에서 찾는다. 자신의 깨침을 추구하며 남을 돌보는 것이다. 이는 '지혜와 자비' '수행과 전법' 등의 개념과도 두루 통한다. 불교에 자리만 있고 이타가 없다면 혹은 이타만 있고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종교로서도 존재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집단도 될 수 없을 것이다.

자리가 먼저인가 이타가 먼저인가? 물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것과 같은 우문이다. 이 두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먼저와 나중을 따지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이다. 이를 우리는 신심 혹은 원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조계종이 수행가풍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자리의 노력이 없이는 이타의 복전을 가꿀 수 없기 때문이다. 하안거 해제 이후 자리의 의지를 더욱 옹골차게 보여주는 법석이 열려 보는 이를 흐뭇하게 한다.

선원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선문회가 해제 직후 법석을 열고 비구 선원장 혜국 스님을 초청해 <몽산법어>와 <좌선의>를 놓고 강의를 들었다. 조계종 교육원도 본말사 주지 스님 등을 위해 '간화선 실참수행 향상과정'을 마련했다. 보다 바르게 간화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종단적 의지다. 또 벽송사의 경우 다음 달 '선회'를 열어 실참과 이론 공부를 병행하며 자리의 살림살이를 튼실하게 건사할 계획이다. 진정한 수행은 결제와 해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리이타의 본업을 한시도 잊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려는 원력에 있다. 그 원력이 부종수교(扶宗樹敎)의 원동력이다.

범불교도대회에 '곁불'은 없다

결국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다.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 불교계가 이 긴 이름의 집회를 꼭 해야만 하는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 기어이 여기까지 오게 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정부가 조금만 더 성의를 가지고 '종교편향 문제 풀기'에 임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불자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불심을 발동하여 해당 인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정부와 종단을 화해시켰다면 상황은 이렇지 않을 것이다. 종교편향의 책임 당사자들이 조금만 더 명쾌하게 인정하고 참회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면...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다. 불교계에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불자들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상황에 경찰은 주요 불교계 인사들에게 회유성 편지를 띄웠지만 화만 더 돋운 꼴이다.

거기에 범불교도 대회의 '곁불'을 쬐려는 시도까지 있어 기가 막힐 뿐이다. 범불교도 대회는 순수한 종교집회다. 종교편향이란 내용이 다소 시국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점의 차이다. 이 신성하고 순수한 종교집회에 곁불을 쪼이며 뭔가를 얻어 보려는 세력이 있다면 당연히 불교계는 용서할 수 없다. '광우병' 관련 단체나 특정 정당의 범불교도 대회 참여를 용인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에서 범불교도 대회의 '수배자 수배해제' 요구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범불교도 대회의 성공 여부는 그 순수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올림픽과 마음공부는 닮았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㉗ 한국불교 금메달 불심

"불자 된지 십 년 만에, 그거 신기하네요. 올림픽 경기도 마음공부와 닮은 점이 많군요." 윤씨가 웃으며 말한다. 그는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전에는 한 번도 마음공부와 연관시켜 보지 못했다. 지난 번 올림픽까지만 해도 그냥 운동경기로만 보았다. 그런데 이번 북경올림픽은 달랐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하나 불교의 마음 정진과 연결이 되며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정된 바가 없다: 선수들의 기록을 보니 과연 제행무상하여 고정된 것이 없었다. 과거의 메달리스트나 세계기록 보유자가 이번 경기에서는 뒤처지는가 하면, 전혀 무명의 선수가 뜻밖의 승리를 하기도 하였다. 마음공부의 경계도 한번 넘어섰다고 남보다 나아졌다는 상을 세우면 안 되겠다. 나는 절에 십년 다녔지만 언제 뒤쳐질지 모르니 스스로 경계해야겠다. 이제 갓 들어온 선수(불자)가 곧 나보다 나은 기록(마음 정진)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다. 불자로 다닌 횟수나 과거 잘 한 일만 믿고 상을 세우면 안 되겠다.

훈련만이 살 길: 메달을 딴 선수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같이 고된 훈련을 하고 눈물겨운 노력을 한 결과다. 마음정진은 나의 중생심을 부처님 마음으로 조복 받는 훈련 과정이다. 아상을 하심으로, 집착을 공하게 놓는 마음으로, 화나는 마음을 인욕으로, 주기 싫지만 보시하고 나누는 마음으로 바꾸어 가는 훈련이다. 한마디로 혼자만 독생 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같이 공생하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훈련만이 불자로서 승리를 보장한다.

역시 탐심은 안 된다: 금메달을 따고도 도핑한 것이 드러나 취소된 선수. 지나친 집착과 탐욕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준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정법으로 정진해야지. 쉬워 보이는 길이나 삿된 방편을 따라 가려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악업을 짓게 된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좌절할 일이나 사고가 있어도 훌륭한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절망은 금물이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자.

방심하지 않는 마음: '조금만 방심하면 체중 조절에 실패합니다'라는 선수들의 이야기. 조금만 방심하면 탐진치에 빠져들고 게을러진다.

마음집중의 중요성: 양궁, 사격은 물론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마음 집중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 순간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가 0.1초의 격차를 만들 정도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금메달이 은메달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삶에서도 그렇다. 평소에 자성부처님을 찾고 내면에 깊이 관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그러면 중요한 일이나 역경을 만나는 순간에 결정적인 마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코치: 뛰어난 실력을 기르려면 훌륭한 코치를 만나야 한다. 마음공부에서는 먼저 길을 가시고 깨달으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사들의 법문을 접할 수 있으니 세계 최고의 코치들을 모시고 있는 셈이다. 아니, 지구뿐 아니라 우주 삼세 최고의 코치이신 부처님을 모시는 영광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잠깐, 코치는 완벽한데, 선수는?

불보살의 응원: 대-한민국 하며 응원할 때 사천팔백만이 함께 우리 선수를 응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마찬가지로 불자가 마음 정진을 하고자 하면 일체 부처님과 보살들이 응원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일개 올림픽 응원도 저러한데, 올바로 마음을 정진하려는 불자를 법계에서 왜 응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 깨달으신 분들의 공(空)한 응원의 힘은 보이고 들리는 인간의 함성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시방삼세에 항상 불자들과 함께 하시는 불보살님들의 지극한 가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내자.

한국불교 금메달: 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그 나라 전체가 기뻐하고 축하한다. 한국 불자들이 금메달 불자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불교가 금메달이 되어야 한다는 서원을 세운다. 마음공부만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질 수 없다. 열심히 정진하시는 이천만불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희망인 스님들. 7연승한 한국 양궁을 다른 나라에 전수하고 가르치듯 한국불교도 세계인이 배우게 되는 그 날을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 "올림픽을 보며 마음공부 구호가 생겼어요"라는 윤씨.

잘 살고 싶으면 마음 다스리면 되고!
업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마음공부 하면 되고!
성불하고 싶으면 열심히 정진하면 되고!

대-한민국 불교의 발전을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화이팅.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생전예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②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③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④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⑤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⑥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⑦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⑧ 생전예수재 49재 기도의식처 조성의의.
⑨ 부록 :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 백팔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달마사
● 법 명 : 임수월하 보살(임 분상)
● 주 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산 791번지

상기사찰 및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대한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법하

사도세자 '恨'과 정조 '孝' 용주사에 '응결'

51 22대 정조 – 건릉 (3)



용주사 승무제 모습.

궁궐 전각배치 본따 가람구성, '효행본찰'
'부모님 은혜' 소멸시효 없는 가르침

조지훈의 절창, '승무'가 지어진 곳이 용주사(龍珠寺)이다. 용주사에서 펼쳐진 승무제를 여러 번 감상하고 2년에 걸쳐 완성한 시가 '승무'다. 용주사 승무제는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제다. 매년 10월에 열린다. 부자간인 사도세자 '이선'과 정조 '이산'의 비극과 효심이 용주사에 자욱이 서려 있다.

용주사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화산(花山)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이다. 854년(문성왕 16)에 창건하여 952년(광종 3)에 소실된 갈양사(葛陽寺)의 옛터에 창건된 사찰이다.

갈양사는, 원효 대사의 '해골바가지 물' 설화와 유래가 깊은 절이다. 원효가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가 지금의 화성시 상안리에 위치한 당성(일명 당항성)의 토굴 속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된다. 컴컴한 새벽에 갈증이 나서 주변을 더듬거려보니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어 시원하게 마셨다. 날이 밝아 그것을 보니 해골바가지였다. 대경실색과 동시에 활연대오했다. 의상은 당나라로 향하고 원효는 발길을 돌렸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원효는 하산길에 화산에 들러 지세가 빼어난 이곳에 갈양사를 창건했다. 이곳 주민들은 원효가 득도한 토굴이 당성 어딘가에 있다고 믿고 있다.

정조는 경기도 양주 배봉산에 있던 부친의 묘소를 천하제일의 복지(福地)라는 화산으로 옮겨와 현륭원(후에 융릉으로 승격)이라 했다. 1790년(정조 14)에 보경 스님을 팔도도화주(八道都化主)로 삼아 팔도 관민의 시전(施錢) 8만7000여 냥을 거두어 갈양사 옛터에 145칸의 사찰을 창건했다. 이 절은 사도세자의 능 현륭원에 명복을 빌어 주는 능사(陵寺)로 창건됐다. 낙성식 전날 밤 정조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하여 용주사로 이름 지었다. 용주사는 정조의 불타는 효심이 응결된 명실상부한 효행의 본찰이다.

용주사는 전통적 가람배치양식이 아닌 궁궐의 전각배치 방식을 채택한 독특한 사찰이다. 대웅보전 왼쪽에 있는 효성전에는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정조와 효의왕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효성전 앞에는 부모은중경탑이 서 있다.

정조의 효성이 어찌 개인 정조에게만 국한된 정신이랴. 당시의 만백성은 물론 오늘을 사는 후대에게도 긴요하고 절실한 귀감이다.

'부모님의 지중한 열 가지 은혜'는 소멸시효가 없는 가르침이다.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라 역사와 함께 공존해야할 애창곡이다. 다시 한 번 새긴다.

회탐수호은(懷耽守護恩:품에 품고 지켜주시는 은혜)

오랫동안의 인연이 귀중하여 /금생에 와서 어머니 뱃속에 몸을 맡기네 /달이 지나면서 오장이 생기고 /일곱 달로 접어들어 육정이 열리네 /몸이 무겁기는 큰 산과 같고 /가고 서고 할 때마다 바람조차 겁을 내며 /비단옷이라곤 입어 보지도 않고 /단장하던 거울에는 먼지만 쌓여 있네.

임산수고은(臨産受苦恩:해산함에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

잉태한 지 열 달이 다가오니 /해산의 어려움이 아침저녁으로 임박했네 /나날이 중한 병든 사람 같고 /나날이 정신이 혼미해지네 /무섭고 두려운 마음 표현하기 어려워 /하염없이 눈물 흘려 옷깃을 적시네 /슬픔을 머금은 채 친척에게 말하기를 /이러다가 이 몸 죽을까 겁이 나오.

생자망우은(生子忘憂恩: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

자비로우신 어머니가 그대를 낳을 때에 /오장이 모두 터지고 갈라지듯 했고 /몸과 마음이 고통으로 혼미해 졌네 /흐르는 피는 양을 잡은 듯하지만 /낳은 아기 건강하단 말 들으니 /반갑고 기쁜 마음 비길 데 없네 /기쁜 마음 가라앉고 슬픈 마음 다시 일어나니 /아픔과 괴로움이 온 몸에 사무치네.

연고토감은(咽苦吐甘恩: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시는 은혜)

부모의 은혜 깊고도 중하여 /사랑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네 /좋은 음식 마다하니 무엇을 잡수시나 /쓴 것만을 삼키셔도 그 얼굴 밝으시네 /지중하신 그 사랑에 솟는 정 한이 없고 /은혜 더욱 깊으시어 더욱더 애절하네 /어린 자식 배부르게 하려고 /자비로운 어머니 배고픔도 마다 않네.

회간취습은(廻乾就濕恩:마른자리 아기 뉘고 젖은 자리 누우신 은혜)

어머니의 몸은 모두 젖더라도 /아기는 언제나 마른 자리에 누이시네 /젖으로 아기의 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비단 옷소매로 찬바람 막아 주시네 /한결같은 사랑으로 잠조차 폐하시고 /아기의 재롱에서 기쁨을 찾으시네 /다만 아기를 편케 하려고 /자비로운 어머니는 편함을 원치 않네.

유포양육은(乳哺養育恩: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자비로우신 어머니 땅과 같고 /근엄하신 아버지 하늘과 같네. /고루고루 펴신 은혜 똑같이 베푸시니 /어버이의 아기 사랑 그 역시 한뜻일세. /눈이 멀다 해도 미워하지 않고 /손발이 없어도 싫어함 없네. /뱃속에서 길러 친히 낳은 자식이라 /온종일 아끼시며 사랑을 베푸시네.

세탁부정은(洗濯不淨恩 :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은혜)

생각하니 지난날엔 고왔던 그 얼굴에 /땜시 있는 자태는 깊고도 소담해라. /비취빛 두 눈썹은 버들도 부끄럽고 /두 뺨은 분홍빛 연꽃보다 뛰어나네. /은혜 깊이 더할수록 고운 빛 바래지고 /씻고 닦고 하시느라 손발이 거칠었네. /아들딸을 사랑하는 한마음 쏟는 동안 /자비로운 어머니 주름살만 가득하네.

원행억념은(遠行憶念恩:멀리 떠나면 걱정해 주시는 은혜)

죽어 헤어짐도 실로 잊기 어렵지만 /살아서 못 만남도 또한 가슴 아파하시네 /아들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 또한 그 곳에 함께 있네 /밤낮으로 자식 좇아 마음이 따라가니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 천 줄기 만 줄길세 /원숭이가 울며 불며 새끼를 그리듯이 /자식 생각에 애간장이 다 끊어지네.

위조악업은(爲造惡業恩:자식을 위해서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은혜)

어버이의 크신 은혜 강산과 같사오니 /깊고 중한 그 은혜 갚을 길 아득하네. /자식 고생 대신 받기만 원하시니 /자식이 고생하면 어머니 마음 편치 않네. /아들딸 먼 길 떠난다는 말을 듣고 /다니다 밤이 되어 찬 곳에 눕지 않나 /자식들이 잠시라도 고통을 받을 세라 /어머니는 오래도록 마음을 졸이시네.

구경연민은(究竟憐愍恩:끝까지 염려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어버이의 크신 은혜 깊고도 중하여라. /은혜와 사랑을 끝없이 베푸시네. /앉고 서나 자식에게 마음이 따라가니 /멀거나 가깝거나 마음은 자식에게 있네. / 어머니 연세 높아 백 살에 이르러도 /팔십된 자식을 항상 걱정하시네. 이 같은 부모 은혜 언제쯤 끊길런가 /목숨이 다한 뒤 그때야 떠나리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김소월의 '초혼'보다 더 곡진한 노래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정조가 심었다는 회양나무가 최근 말라 죽었다.

승 무

조지훈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서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씨 보선이여

까아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우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 하고

이밤사 귀또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